皇紀二千六百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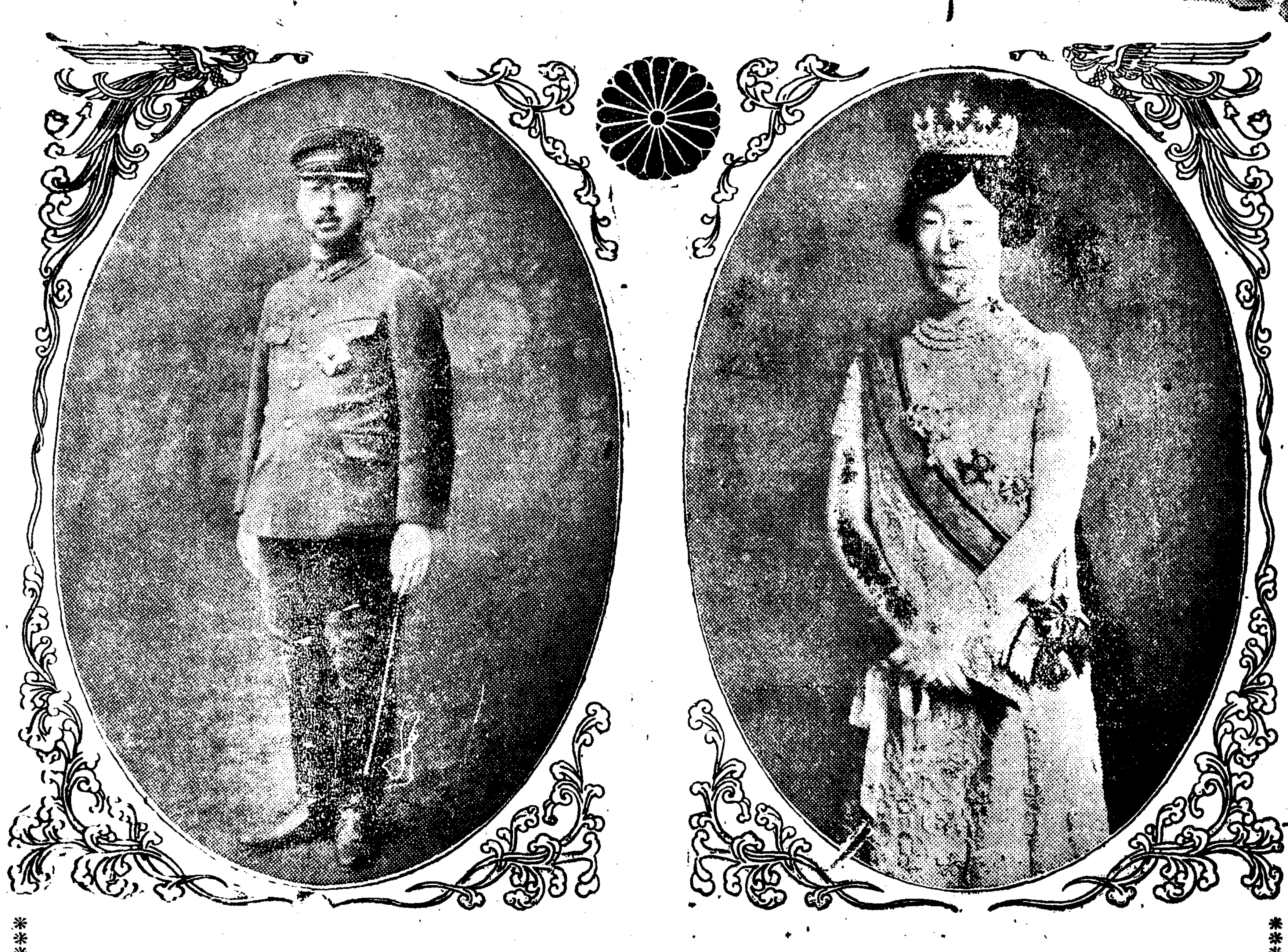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日) 夕刊十二面

皇國臣民ノ誓詞
一、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二、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三、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錬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天皇陛下의 御威德
夙夜御政務御軍務에御精勵

皇國의 恒興이 빛나며 悠久한 寶祚가 隆榮하옵시어 恐懼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光輝잇는 紀元二千六百年 還歷欽仰 聖代를 奉祝하는 紀元의 式年 昭和第十五春을 마지하사 興亞聖戰의 大本營에 親臨御四十을 算하옵섯다 皇后陛下께옵서는 御年御三十八歲 又大宮御所에 계옵신 皇太后陛下께옵서는 御五十七歲의 新春을 마지하옵섯다 惶恐하옵게도 恒常祭祀를 重히하옵시는 天皇陛下께옵서는 紀元의 式年에더욱 大御心을 軫念하옵시어 惟神의 大義皇國의 安泰를 仰하옵시는 叡念에 依하사 紀元節祭 [illegible]

一月中旬에는 [illegible] 御親拜하옵실 [illegible] 所에는 四十五回나 出御하옵섯스 [illegible] 奉拜하옵시는 陛下의 御一端을 [illegible] 夙夜御精勵하옵시는 大御心을 [illegible]



皇紀二千六百年

乾坤一轉 旭光은 東天에 빗나고 瑞氣는 四海에 彌滿한 紀元二千六百年이요 昭和十五年의 元日을 마지하엿다 이날을 當하여 天皇陛下께옵서 萬壽無疆하옵심을 奉賀하오며 皇室의 彌益繁榮하심을 奉祝하는것은 大日本帝國臣民의 無上한 慶幸이요 至高한 榮光이다.

생각건대 神武天皇께옵서 日之丸瑞穗의國을 肇開하옵신 以來 萬世一系의 皇統이 金甌無缺로 二千六百年동안 繼繼承承하야 寶祚愈榮하고 國體益彰한 것은 實로 萬邦無比의 慶幸이다 더욱이 皇威는 世界萬國에 顯揚되고 皇化는 東亞天地에 照治하여 가는 이때에 紀元二千六百年의 이날을 마지하는 것은 大日本帝國臣民의 獨特한 光榮이요 至大한 慶幸이다.

今上陛下께옵서는 第百二十四代의 天皇이시옵고 이날로써 御踐祚第十五의 元旦을 마지하옵시는바 允文允武 萬機를 御總攬하시옵고 玉體益健하옵시와 聖德의 雨露가 四海에 洽潔하옵는것은 日常拜承하옵는바이다.

皇后陛下께옵서는 坤德이 崇高하옵시며 皇太子殿下께서도 六回의 誕日을 지나신제 몃날이 아니되어서 새해를 마지하시엇는데 御健壯하신 生活은 日常承聞되는바이다. 皇族各宮殿下께서도 御健勝하시와 元旦을 마지하심은 國民一般의 奉祝不已하는바이다.

回顧컨대 二千六百年、肇國하여온 八紘一宇의 皇道精神은 東亞新秩序建設의 聖業을 通하야 그實現의 段階에 到達하엿다. 이날은 皇國의 總力을 擧하야 이聖業完遂에 邁進하는 第四年의 元旦이다. 一線의 皇軍將兵이 皇威를 伏하고 崇高한 使命을 達成하려고 千辛萬苦를 勵精하고잇다. 護國의 英靈에 敬弔하고 尊貴한 犧牲을 慰問하는것은 銃後의 感謝와 感激을 表現하는 常道다.

大日本帝國臣民은 누구나 이날이 皇紀二千六百年이오 聖戰第四年의 元日임을 記憶하여서 億兆一心으로 時艱克服、聖業達成에로 邁進할 決心과 覺悟를 牢固하게하여야한다. 內外多難한 紀元二千六百年에 萬事가 亨通하여 所期한 目的을 達成하여야만 上으로 皇恩에 報答하고 下로 皇國의 使命에 忠實하는 所以가 될것이다.

興亞維新達成에 奮躍·使命을盡竭!

朝鮮總督 南次郎

紀元二千六百年의 新春을 [illegible] 陛下에 마지하게되어 圈內二千三百萬同胞와함께 [illegible] 的 [illegible]

으로써 삼가 寶壽의 萬歲無窮을 祝하고 一心報效의 決意를 새롭게하려고 생각한다.

一、皇紀二千六百年과天業恢弘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肇國의 事迹을 回顧하고 皇國日本의 本然을 省察함에 依하여 我等은 皇國臣民임을 無上의 光榮으로 생각하는바이다 그리고 맞는今年은 日本未曾有의 歷史的 轉換期인 興亞維新에 巨步를 내디딘해인 同時에 世界歷史의 一大轉換期인 動機도 包含되어 참으로 天意의 深大함을 感銘하지안을수업다. 神武天皇이天業以來、叢正、積慶、重暉의遺德을 基礎로하고 大和의 精神과 八紘一宇의 理想으로써 國內의不服者를 服從시키기爲하여 十數年의 民族建設이 必要하여今日과가치 我等現代의國民은一系直系을 [illegible]하옵시는天皇의大稜威를 奉戴하고 興亞維新의聖業達成에絕大한 努力을하여 民族의光榮을 發揚하고잇다. 이傳統的인歷史의 意匠는 終始一貫하고、天業恢弘의 意義는 炳然明瞭하다. 생각컨대 이興亞維新의核心인 日本國民의 道義的根源은、未久에全東亞民族、國民이다가지 至誠的團心을가지지안흘수 업는바가 되고、나아가서는 世界人으로하여금 我宗高邁大한 理國精神에 味到시키는 結果가 될것을 疑心치안는바이다.

二、興亞維新

至今支那事變은 第四年에 들어간다. 陸海軍進한 皇軍의 偉大한 戰果는 어미 敗殘將政權下의 奧地地方을 除한 廣汎한 我占據地域一帶에 新秩序를 釐來하기始作하였다. 政治的으로는 親日排共을 綱領으로하는 旣成政權과 相聯하여 新中央政權의 樹立도 近迫하여젓고 經濟的으로는 日滿支의 連繫互助亦是 將就하려고하고잇다. 이로써 善隣友好、共同防共、經濟合作의前途를 遊路할수잇고 이를 聖戰의 目的에 鑑照하면 實로 人意를 强하게하는바가잇다.

그러나 事變을 圍繞한 歐洲第三國의關係는 歐洲大戰의勃發에 依하여 반드시 緩和된것은 아니고 東亞에서 帝國의優越을嫉視하여 이에介入妨害하려는 意圖가 依然存在한데對하여、國民은 恒常 嚴肅한 警戒[illegible] 하지안는同時에 彼等으로하여금 그野心을 遂行할餘地가업게 할만한準備가 업서서는안된다. 準備라함은 다름이아니다 內에잇서 國民精神을昂揚시키고 財政經濟의 健全을維持하여 國家의 戰力에結結하는條件을 保全하는데잇다. 我等國民은 事變下 我軍需及建設諸資材의 大增產設備가 不得已 主로民需의 抑制에依하여 遂行되고잇는事實을 諒解할때에 今日의緊急이야말로 高度國防國家의 完成과 興亞維新達成의 洋洋한 希望에 連繫가잇스므로 無限한 鼓舞를 느끼게 하는바이다.

三、半島의大使命

大陸國民으로서 處世하는 길은 各各그本能과 使命과를 忠實히敢行하는데잇다 個人의業體、團體의活動、地方의責務 이것이 모두 그環境과個性과를 特殊하게하면서 國家에對한 普遍的使命을 다가치함은 마치 人體의各部分이各各 그任務를 달리하면서 全一한 有機的生命을 形造함과 恰似하다 我朝鮮은 帝國構成의單位的 一地方으로서 他諸地方과 가치戰時國家에 對하여 普擔하여야할 普遍的使命外에 그地理的關係에 依하여 廣義國防의 須要에應하여 大陸前進兵站基地로서의 特殊한 大使命을 지고잇는것은 內外識者가 一齊히認識하고잇는바로 半島全施政의 力點도 또한여기잇다. 卽物的、經濟的으로는 모든 資源을 일으켜 國防產業의 伸張培養하고 人的、精神的으로는 半島同胞의 心境으로하여금 더욱기피 皇國臣民으로서의 自覺에 徹底시키는 一方面이야말로 半島의 最大한 時務인同時에 또한 半島民衆의 福祉를內地國民의 水準에까지 向上시키는所以이다.

眞理는 恒常 新奇한것이아니다. 畢竟 이는 合邦以來의 施政大精神에 基한데 不外한것이나, 그러나 三十年의 政續과半島同胞의 自覺이 相俟하여 그勵行를 여기까지 達케한것이다. 더욱이 官民이 協戮하여 聖戰下에 志向을 一定케하고 內鮮一體의 感激으로써 이 大陸前進 兵站基地에 國民的使命을 바뜨는것은 省察하여보건대 多幸이라고생각하여야할 境遇라고 하지안을수업다.

이에 紀元二千六百年歷史의榮光에 빗나는年頭에잇서 予는圖內官民과 함께 이해에 所懷되어잇는 深甚重大한 意義를 省察하여써 提撕時艱에處하여 奮勵半島의使命에 나아가려고 盟誓하는바이다. (寫眞은 南總督)

征戰바야흐로四年! 大業成就에邁進

軍司令官 中村孝太郎

皇紀二千六百年 新春에빗나는 興亞의新春을마지하여 멀리東天을奉拜하고 祖先을 慶仰하여 삼가 聖壽의無窮과 皇室의彌榮을 奉祝한다.

伏惟컨대 悠遠한옛날 皇祖皇宗、國을肇하옵섯는데 神武天皇御卽位以來 歷朝 이를 繼承하사 實로二千六百年 萬邦에卓絕한 皇國國體의 基礎는 더욱鞏固하고 八紘一宇 天業恢弘의 聖國理想은 今次의聖戰을 期하여 皇國을 中樞로하는 興亞의大業에나아가 宇內列强을 瞠目시키고 皇威는 益益六合에遍하되어 國威는 燦然히 八紘에 빗난다. 이光輝잇는 新春을 마지하여生을皇國에 享受한 無上의 感激과 歡喜와를 느끼며 삼가 聖代를 奉祝하고 盟誓하여 皇恩의 萬分之一이라도 奉報함을 期하는바이다.

征戰바야흐로四年、大陸의戰野에잇는 百萬의 皇師는 光輝잇는 新春을마지함과同時에 士氣는 益益軒昂하여、東亞의曠野를 制壓하고 聖戰의 遂行에 當한 巨步를 내디디는 同時에 銃後一億의同胞는 總力을다하여 擧國一體 聖戰에 딸코 新東亞建設의 基礎는 將就되려고 하는데 이는 實로 有史以來의 大業이요 또한 現下皇國의 眞正한姿態이다.

어가는 偉大한國運의 進展은 御稜威下將兵의 絕大한 奮鬪와 擧國後援의餘澤으로 기괴感謝에 不堪하는同時에 興亞의礎石이된 護國英靈에 對하여 衷心 追悼의 赤誠을 올리고 傷病의 勇士와 그遺家族에게 衷心으로 獻辭同情을 다하지안으면 안된다.

그리고 國史를 回顧하건대 神武天皇께옵서 祖宗神祇의 뒤를 繼承하사 그元元年 橿原宮에 奠都하옵신以來 實로 二千六百年、이동안 皇統은 連綿하사 不變하옵섯스나 國運은 幾多의 變化와 波瀾을經由하여 今日에 이르럿는데 皇國國威가 發揚되고 國運이 隆昌하여온데는 恒常御稜威下의 我等祖先이 君民一致、我國體의 精華를發揮한 時代이엇섯다.

近世에잇서서 明治天皇의 御治政이 이것을 明顯하고잇다. 明治維新은 皇政復古、天皇親政下에萬民輔翼의 實을나타냄 眞擊力行의 改新이엇섯다 日淸、日露戰役은大業恢弘의 第一步로、我等의先人은 幾多의苦難을排除하고 能히 現下日本의 基礎를 鞏固케하엿다. 滿洲事變은 天業恢弘의 第二階梯로서 皇國國體의 發揚을 企圖할 歷史的 轉機의 結戰이며 今次 事變은 興亞維新、東洋永遠의 平和를 劃할 拔本的 大業이다. 國民은 光輝잇는 年頭에 思想을 國史에 救하고 또 近世日本의 發達의跡을자저 今次聖戰의 眞義는 實로 皇國의 大精神에서發한 國體의精華를 發揚하고잇슴에 想到하고 皇國民으로서生을享受하는 榮譽에感激하여 現代를奉祝하고 貴務의重大함을自覺하여 如何한艱苦이라도 克服하고 聖業을 貫徹할 一大決意로 새롭게 하지안으면 안될줄을 생각한다.

다시 눈을 돌려 時局의前途를보건대 興亞大業은 着着進步되어 新政權의 樹立도 在邇하지만 事變을 싸고도는 第三國의 軍事經濟、思想上의 壓迫과 西歐의 動亂에伴한 國際情勢는 皇國에 對한 將來의變化 또한 豫測키難한 狀態에잇스므로 實로 須臾의放心을 不許하는바이다. 따라서 今後 聖戰의目的을 完遂함에는 有形無形의 國力의 進展擴充과 軍備의 急速한 充實을 圖치아니하면안된다.

그러데 그遂行의實은 銃後에잇다. 實로今後에 對한聖戰遂行의 如何는銃後에잇다고해도 過言이아닐만치 國民의 責務는 刻刻重大性을增加하고잇다.

我朝鮮半島는 施政三十年의 意義기픈 新年을마지하여 躍進飛躍의意氣에불라 積年의旱害를克服하고 毅然皇國의、大使命達成에 [illegible] (寫眞은 中村軍司令官)

精神力、武力、經濟力 忠實한動員이必要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總裁 川島義之

이에皇紀二千六百年의 新春을 마지하게되어 삼가寶祚의 無窮과聖壽의 萬歲를 奉祝하고 國運의 益益隆昌함을 奉祝할수잇는것은 吾人의 無上幸福인바로 欣喜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생각컨대 今次事變勃發以來實로三十個月 이동안陸海의師、大命을바쳐 力戰奮鬪하여 이때문에 頑迷不靈하고 暴慢不遜한 抗日政權도 崩壞에瀕하고 新中央政權의 樹立도目睫에 近迫하엿다고는하나 聖戰目的의 根本的達成은 아직前途遼遠하고 [illegible]

退進을 許함가 업서서는안된다 더욱이 虎視耽耽한 會를 엿보고 狡猾誣詐하는 惡辣한 國際情勢에 처하여 我國民은 戰爭에 從事하는者나 銃後에 잇는者 나를 勿論하고 擧國一致、內鮮合體가되어 精神力、武力、經濟力의 充實向上에 最善을 다하여야 한다는 覺悟를 [illegible] 안는것이 國民精神總動員의 重大眼目이라고 아니할수 업다.

[illegible] 武天皇께옵서 八紘一宇의 大理想으로 肇國하시지 實로 今年은 二千六百年、其間半千年 國民精神은 自然結晶되여 어떠한外敵일지라도 이를 挫折시키고 어떠한 艱難困苦일지라도 克服하엿스므로 光輝잇는 今日의國體를業成하여 燦然全世界를光被하게되엇는데 我等은 祖先이傳한지든지 繼承發展시켜 國礎를 더욱 强靭케하여써 萬國에卓越한 皇道精神의 實現展開에 寄與貢獻하는바가업서서는안된다. 萬若 我等이 어떤歷史的 重大轉換期에 際하여 無自覺하게도 安逸遊惰를耽하고 物資의缺乏、統制의强化、勤勞倍加、旱害克服에잇서서 [illegible]

刻下의問題인 東亞新秩序建設은八紘一宇의 皇謨實現의 第一段階이다 그리고 그第一步는實로 內鮮一體의 理想顯現에잇스므로 聯盟員은 半島地位의 重大함을 認識하고 皇國精神의顯揚에、內鮮一體의 深化徹底에、旱害克服에、經濟國策에의 協力에、更一層 發奮精勵하기를 切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

皇紀二千六百年을 마지하여 年頭의 所懷의 一端을말하여、(寫眞은 川島總裁)

鄕土部隊武勳에 銃後赤誠이至大

陸軍中將 七田一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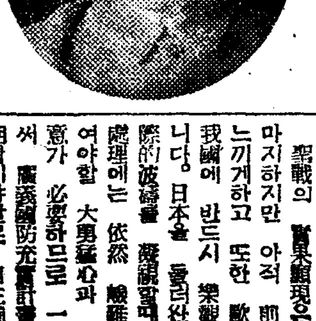
이에 聖戰下皇紀二千六百年의 元旦을마지하여 멀리東天을 奉拜하고 삼가聖壽의 萬歲를 奉祝하는同時에 大陸戰野에 活躍하고잇는 皇軍將兵의 武運長久를 祈念한다.

생각컨대 支那事變勃發以來二年有半 이동안皇師征戰에는 [illegible] 臨時維新兩政府는 드디어 明朗健全한發展을하여 [illegible]

大抵今次事變의 世界史的意義를생각하여보건대 [illegible] (寫眞은 七田師團長)

物心兩面을整備 新東亞建設에參與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我國體의 根基는 더욱鞏固하여 이에光榮여 燦然한 皇紀二千六百年의 新春을 마지하게되어 同胞들과함께 聖明의 御盛德을 欽仰할 皇室의彌榮을 頌慶하는바이다. 半島統治도 施政以來今年으로서 어미 三十年인데 治績의 跡을回顧할때 吾人의感慨는 一層 深甚한바가잇다 產業 經濟 交通 敎育 治安 衛生等物心兩面에亘한 各般施設이 躍進하여 舊時의面目을 一新하여 僅三十年이라는 短期間에 이가치 刮目할만한 發展을遂行한것은 世界에그比를 보지못한 一大事實로 이는 幾多先人苦心의 賜物이라고 아니할수업고 또한 吾等의感佩不措하는바이다.

半島同胞亦是一視同仁의 聖旨에奉答하려고 힘써 皇國臣民이 되려는 勃勃한 氣象은 燦然하여 [illegible] 事變下에 엇서 愛國의熱血이넘치는 곳에는 幾多銃後의赤誠으로 顯現되고 就中志願兵訓練所가 [illegible] 募者를 보게됨과가튼 事實은 未曾有의 事實이라고 아니할수 [illegible]

[illegible] 그外에 客歲半島徒[illegible] 萬이 萬邦無比한 我國體의認識을 堅確하여 皇道精神에 基한 [illegible] 的運動을 일으켜 어이 半島[illegible] 의日本化에 依한 劃期的 思想 現象을 吾人의 眼前에 보게된것이다.

그리고 또民事令改正은 司法上 內鮮一體의 具現으로 半島同胞에게 異常한 感激으로써 歡迎되어 內鮮關係의 史上에 또한 一道標를 樹立한것이다.

聖戰의 實東[illegible] 第四年을 마지하지만 아직 前途遼遠함을 느끼게하고 또한 歐洲의動亂은 我國에 반드시 樂觀의材料는 아니다. 日本을 둘러싼 澎湃한國際的波瀾을 凝視할때 支那事變處理에는 依然 艱難을 突破하여야할 大覺悟心과 不退轉의決意가 必要하므로 一億一心으로써 廣義國防充實計畫의 完璧을 期할이야말로 自主獨往、四周의 困難을 除하는方途임을 알지안으면 안된다.

이가튼 情勢下에잇서 我半島는 地理的優位性에 加하여 豐富한 人的、物的資源을抱擁하고잇다. 그리고 是等諸條件의 完備에依한 工鑛業의 急速한發展은 半島經濟發展에 一大變化를 齎來하고잇는것은 [illegible]

國家總動員의 一翼으로 展開된 國民精神總動員의 大運動은 有效하여 各種國策의 重要使命達成에 [illegible] [illegible] 皇紀二千六百年의 劈頭、幾多將兵에게 그苦鬪를 생각하여 [illegible] 若干所感을말하여 年頭의辭로한다. (寫眞은 大野政務總監)

今日의本紙附錄內容

昭和十五年一月一日

東亞에 미치는大戰의影響 (附錄其二一面) 咸尙勳
國際道德擁護論 (同) 金明植
事變處理大方針解剖 (同一三面) 特輯
東亞協同體理論 (同二面) 特輯
事變第四年經濟大觀 (同其二一面) 李甲燮
工併進政策의再檢討 (同) 特輯
무슨事業을할가? (同一面) 特輯 李勳求
運動面 (同其一面) 特輯
七道旱害地現地報告 (同一二面) 特輯
어린이페이지 (同其五一面) 特輯
『難局突破는生活革新에서』 (同一三面) 座談會特輯

社說

道德의再建

信과義를實行하자

一

古語에「一日之計, 在晨, 一年之計, 在春」이라고 하엿지만 이 光輝잇는 皇紀二千六百年의 元旦을 當하여 오는 一年의 道德的規範을 樹立하는것은 社會的으로나 個人的으로나 必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날이야말로 人類生活에 가장 根本이 되는 道德問題를 가지고 自我를 檢討하고 自己를 反省하여 道德의 標準을 樹立하고 오는 一年동안 生活의 規範을 삼고 行爲의 準據를 삼는다면 個人의 向上은 勿論 國家와 社會에 無形的으로 裨益되는바가 至大할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本欄을 通하여 所見의 一端을 開陳코자하는바이다.

二

우리社會에는 文明한社會가 具有한 여러가지 道德이 잇고 또 倫理가 잇섯다. 적어도 東洋的 道德, 儒佛敎에 根據를 가진 倫理가 社會人心을 支配하고 個人行爲를 規約하여 良風美俗을 形成하고 延하여서는 燦然한 道義文化를 釀成하는데에 貢獻이 만하엿던것이다. 그러데 輓近 西洋의 文化가 交流하고 個人主義思想과 唯利主義思潮가 澎湃됨을 따라서 傳來의 道德律과 倫理觀이 不知中에 漸次로 頹敗하고 朋壞되어서 忠君愛國의 國民道德이 虛如하여지는 傾向이 잇는것은 勿論 甚至於 弑父殺子等 可驚할 罪惡이 頻發하는 것은 慨歎不勝할바이다. 그리고 社會交際에도 信義가 墮地하여서 事業界까지도 그內幕을보면 詐欺와 告發이 詐僞와 欺瞞에 充滿하여서 爭訟이 事業自體를 爲하여 甚히 遺憾인 同時에 社會의 道德과 倫理를 爲하여 文化와 進步를 爲하여 遺憾千萬이라고 아니할수가 업다.

三

吾人은 勿論 時代의 變遷을 따라서 道德과 倫理도 適應하여 가도록 化應치 아니하면 아니될것을 否認하는것이아니다. 이時代에 處하여 그누가 千年이나 二千年 三千年前의 그것을 그대로 墨守하라고 할가보냐 그러나 道德과 倫理의 基本綱領은 亘萬古不易의 倫常이 되는것이 만타. 例컨대『信』과『義』는時의 今古와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人類社會生活의 規範이요 基準이되는 道德이다. 東洋古語에「朋友有信」이라고하고『丈夫一言重千金』이라고 하는것은 社會生活에 信이 얼마나 重한가를 말하는것이다. 事實上 信이 업고는 商業도 工業도 모든生產도 할수업을뿐아니라 延하야는 모든 社會生活까지도 到底히 할수가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信이 업는 社會에는 進步와 向上은 姑捨하고 腐敗와 衰退가 잇슬뿐이다. 信이 업시는 個人도 社會도 설수가 업는것이다.

四

義는 무엇을 意味하느냐하면 兒童에게 敎訓하는것갓다 그러나 事實上 義를 옳게 바로알고 實行하는 때는 個人은 만치못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義는 良心의 至上命令을 조차서 實行으로 實踐化하는것을 意味한다. 事物을 對하는瞬間에 良心의 命令대로만한다면 그것은 곳 義로운것으로 義가된다 古來倫理觀에는『君臣有義』라고 하여서 마치 君과臣사이에만 義가 잇는듯이 解釋되지만 사람과 사람새에는 더욱이 잇서야할 것이다. 自我와 自我以外間에 ... 社會는 ...되고

五

個人은 向上할것이다.

道德과 倫理가 個人의 向上과 社會의 進步에 偉大한 權能力이 되는것은 드러낼것이 업거니와 道德律과 倫理觀은 實行하여야할것이다「一日行一善, 又一日行一善」의 格으로 實行하여가는것이 緊要할것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이元旦에 우리 自身에게 向하여 今年은「信」과「義」를 實行하는 道德年을 삼아서 나가기로 하자하는것이다 이와가치하면 社會道德이 向上되고 生活이 發展되어서 이해는 實로 道德的으로 更生과 再生의 해가되고 따라서 個人은勿論, 國家도 莫大한 所得이 잇슬것을 確信不疑하는바이다.

昨年度對外貿易額 六十二億九千餘萬圓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一月以降十二月二十五日까지의 本邦(內地)對外貿易總額은 左와갓다 (單位千圓)

輸出 三、四五六、二五七
輸入 二、八三六、七〇八
合計 六、二九二、九六五
出超 六一九、五四八

이를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은 四億五千五百九十萬五千圓(三三…)增加하여 輸入은 一億三千八百六十五萬五千圓(九四割三)으로 增加하여 輸出入合計는 十億八千三百七十五萬圓(二〇割三三)의 增加로 貿易總額은 六十二億九千四百萬圓의 出超增加이다 그리고 이에 朝鮮及 臺灣分을 合計하면 昨年十一月二十五日까지의 輸出超過額은 七億六千二百九十四萬九千圓으로前年同期의出超四千八百五十四萬二千圓에 比하면 七億一千三百九十七萬七千圓의 出超增이다

莊嚴한四方拜御儀

皇紀二千六百年元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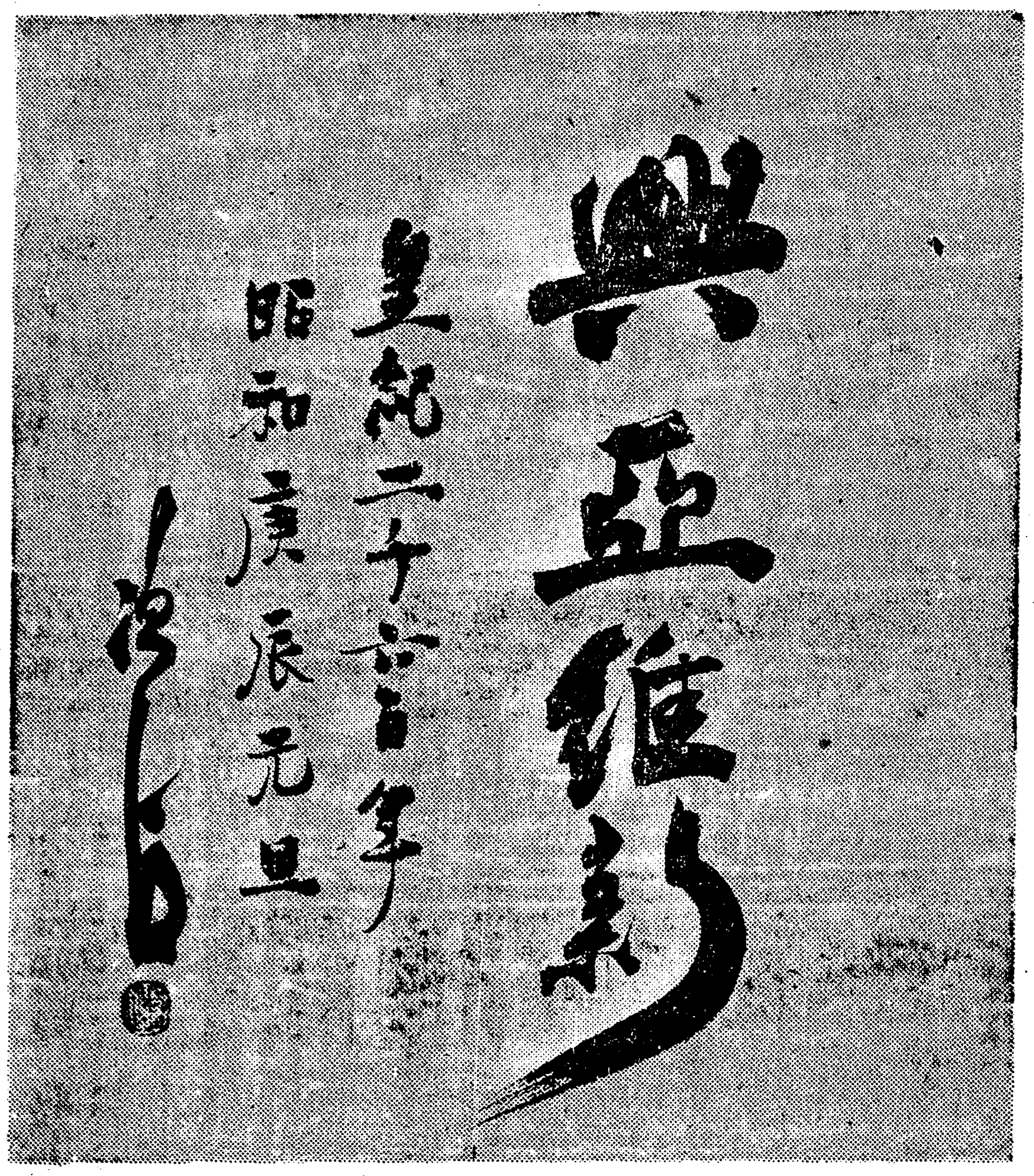
奉仰하는「天壤無窮」의 神勅「六合開都八紘一宇」의 無窮大詔대로 皇謨恢弘한 二千六百年, 皇統이 連綿히 빗나는 御稜威下에 今日마지한 聖國式年의 新春, 光輝잇는 昭和十五年의 元旦 寶祚의 彌榮을 奉祝하고 紀元元年元旦(陽曆二月十一日) 六合의 中心 橿原에 奠都하옵신 神武天皇의 皇謨를 欽仰하는 臣民이다 惶恐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五時半 四方拜의 御儀를 行하옵시고 伊勢神宮을 奉拜하사 寶祚天의 八重雲霧이 떠도는 敬悠의 御陵四方의 神祇를 御遙拜, 惟神의 大義, 無窮의 御遺訓을 仰慕하사 皇室의 御繁榮, 國運의 隆昌, 四海의 和平確立을 御祈念하옵신다 賢所神域 神嘉殿의 南庭, 御拜座에 奉圍하여 地上에 빗나는 庭燎의 御座에는 燈火二基가 ... 庭燎는 ... 開闢太古도 如斯하엿든가고 想到되는 森嚴한 大氣中에 惶恐하옵게도 陛下께옵서는 午前五時 ... 拜承된다. ... 御束帶를 입으옵시고 ... 奉仕하는 ... 御拜하옵시는데 그 동안에 어느듯 고요히 날이 밝아 元旦의 기쁨이 坊坊曲曲에 넘처지음 ... 中에서는 皇國의 式年대 御 ... 를 一層더하옵시사 四方拜에 뒤이어 歲旦祭의 御儀를 마치옵신다.

光輝잇는國史를回顧

肇國理想顯現에全力

阿部首相,國民의協力을要望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의 新春을 마지함을 當하여 삼가 聖壽의 萬歲와 皇室의 御繁榮을 奉祝하는同時에 이意義잇는해를마지하게된 我等國民은 皇國에生을享한 기쁨에感激을새롭게하고 光輝잇는 國史를돌보아 더욱肇國大理想의 顯現에努力하여서 聖慮에奉應하기를 期하는바이다 回顧하면事變이 미第四年을 마지하게되어 벌써支那에서는 日滿兩國과 相携하여 更生新支那를 代表하고 東亞의大途를邁進 中央政府가四億民衆의 興望을 등지고 誕生하려하고 잇다 이에따라 事變은 이미東亞新秩序建設의 理想을 步一步實際로 具現하여 나가는 段階에到達하고 이新段階에 一步를내드디는 今年이야말로 東亞의將來 나아가서는 世界의大勢를 決할 實로 重大한 해인것을 痛感하다 도리켜 世界의 情勢를보건대 歐洲戰爭의 進展에따라 國際情勢는 益益複雜을加하여 列國의政策의 東亞에미치는 影響은 決코 樂觀을不許하는바가 잇다 더구나 支那事變은 建設部門의 主要段階에 들어갓다고하나 이것으로써 곳 그終局을 告하엿다고는 할수업고 今後아직도 蠢動하는 抗日勢力을 擊滅하여 新支那의治安을 保障하고 그再建을 援助하기 爲하여는 國民이 다가치 緊褌을 새롭게하고 一大勇猛心을 북도두어 그勝利에 邁進하는것이 我等의 急務이다고 밋는바이다 國民生活도 時局의重大性에따라 更一段의 緊張이 要求되고 더욱 經濟方面에서는 여러가지 抑制가 加하게 될것이다 全國民이 기피 時局을 認識하고 擧國一體가 되어 國策遂行에 協力하여 事變完遂의 原動力이 되어가기를 切望하여 마지안는다 생각컨대 東亞新秩序建設의 大事業은 目的하는바가 高遠하니만치 勿論 至難의 事業이다 我等은 이를 完遂하기爲하여 不退轉의 決意를가지고 不動의 國策은 이미確立되어 御稜威下에 在外皇軍將士의 忠勇과 在內一億國民의 一致協力에依하여 어떠한 障害라도 突破할수 잇슴을 確信하다 紀元二千六百年의 佳歲를 當하여 또다시 興亞聖業의 年으로서의 一大光彩를 加하려고 全國民은 同心一體가되어 奉公에 勤勵하려고생각하는바이다



南總督新年揮毫

國民赤誠의結晶

昨年中에獻金一千九百萬圓 慰問袋는六百萬個

【東京電話同盟】東亞聖戰에 邁進하는 大陸第一線將兵의 活躍에 呼應하여 銃後國民이 바친赤誠의結晶은 國防獻金으로 或은慰問袋로 恤兵金으로 或은皇軍의現地慰問으로 事變發生以來 獻納金品은 莫大한額에 達하여 當局을 感激시키고잇는데 聖戰第三年인 昭和十四年中의 陸軍에의國防獻金은 一千九百四十萬圓, 同恤兵金은 約七百萬圓, 慰問袋六百四十萬個로 더욱이國防獻金은 昭和十三年度에比하여 約三百七十萬圓을增加하고 事變發生以來의 累計는約五千萬圓이라는 驚異的 巨額에達하고 海外同胞로부터의 恤兵金十二萬圓 慰問袋十七萬個에 達하엿다 國防獻金의用途는 特히 緊急必要한兵器資材의 整備에充當되어 軍當局에서는 現在까지 飛行機約二百五十機 戰車約百臺 高射砲約二百門을 製作하여 國民의赤誠에 報應하엿다 銃後에잇는 戰歿者遺族과 傷痍軍人等에對한 慰恤은 軍事保護院을 爲始하여 政府의諸施設 軍事援護諸團體의 施設이 擴充되어스므로 陸軍省恤兵部에서는 第一線將兵의 慰安激勵에 重點을두고 獻品의 ... 安用慰問의 ... 그린業績의作成 ...로 成立된 慰問團의 派遣 正月用慰問袋의 配給等을하여 銃後國民의 赤誠을 將兵에게 傳하엿는데 戰歿者遺族에의 弔慰金香華料 百十萬圓 應召軍人遺家族에對한 福祉見舞金二十五萬圓 入院患者退院時見舞金及 慰安施設費九十八萬七千圓 戰傷病者公杖 靖國神社大祭에에 上京한 遺族稱京旅費의支給等도 今年度의主要한事業이엇다

日蘇漁業條約

今春에相當進展豫想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問題에關한 二十七日의 東鄕 모로토프會見의 結果에對하여 外務省에서는 公電의到着을 기다려 愼重考慮, 거듭한結果二十九日 午前부터 東鄕大使에게 國訓을 發送하고잇는바 이에 基하여 아마도 三十日에는 東鄕大使와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과의 會見이잇슬것으로보인다 二十七日의 會見의結果 明確히된 蘇聯側意向은 漁業問題解決에對하여 相當한 熱意를 보이고잇서 ...는 北樺鑛業金問題가 圓滿히 解決하게되면 今春을期하여 長期에亘한 漁業條約締結을 爲하여 商議할 意思가잇다고 文書로써 表示하여오기때문이다 따라서 漁業問題에關한 日蘇關係의前途는 相當히 期待할수잇게되어 現在商議中인 暫定協定及 北樺鑛業金問題도 順調로 進行하면 新春初頭에는 圓滿解決을 보게될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이 暫定協定을 成立하여 新春에는 長期漁業條約交涉이 莫斯科에서 ...

今日本紙附錄 合二十四面

八面鋒

己卯年은가고 庚辰年은 오다.

◇ 往年에는 東西兩洋에 大戰亂이 버그러젓고, 世界全人口의太半이 戰禍에 휩쓸리다.

◇ 新年은皇紀二千六百年, 西曆一九四〇年, 意義가 一層깁다.

◇ 새해는 戰勝의해, 希望의해, 光明의 해로 해수소서.

◇ 天下名山 金剛山에 山火가 일어나 名刹名莊이 다 불타고 奇木佳草가 다 봇는다고.

◇ 盜掘黨의 跋扈로 墓碑의 傷처가 컷섯는데, 다시 祝融조차 名山을 害치니 이게원일일고。

◇ 原因은 不明하나 盜掘黨의 失火갓다니 盜掘黨의 罪, 一層罪難[illegible]이로군.

蘭州空襲에關해 軍令部次長祝電發送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發表(三十日午後三時) 今次海陸軍航空部隊共同의 蘭州空襲에對하여 今日軍令部次長은 及川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及西尾支那派遣軍總司令官에게各各左記要旨의 祝電을發하엿다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에게 海軍航空部隊는 陸軍과共同하여 長驅敵航空의有力한據點을 攻擊하고 赫赫한戰果를 거두엇슴을祝함

支那派遣軍總司令官에게 陸軍航空部隊는 海軍과 共同하여 幾多艱難을克服하고 敵航空의有力한據點을攻擊하여 赫赫한 戰果를거두엇슴을祝함

本社長一行 傷病兵慰問

方本社長은 李主筆, 咸編輯局長과 同伴 三十日午後三時半 龍山陸軍病院에 檜山院長을 訪問하고, 傷病兵에게對한 慰問의意를 表하고 和品을 贈呈한後 同院長의 案內로 傷病兵을 一一히 慰問한後 歸社하엿다

高木滿洲中銀理事 事務打合次渡東

【新京電話同盟】高木滿洲中央銀行理事는 今年度 滿洲國의紙幣印刷計畫에關하여 內閣印刷局과 事務打合次, 約三週間豫定으로三十一日午前九時三十分 新京發渡東하기로되엇다

本社辭令

編輯部長兼學藝部長 李相昊
解學藝部長兼任 兼任編輯局次長
調査部長 任政治部長 李甲燮
學藝部次席 任學藝部長 金起林
社員 任編輯部長 文東彪
印刷部次席 任印刷部長 李德興

新春文藝當選者

☆文藝評論 一等(賞金五十圓) 黃州郡州南面正方山城 鄭義浩
☆戲曲 一等(賞金百圓) 京城府蓮建町一九六의三 咸世德
☆短篇小說 二等(賞金五十圓) 京城府館町二〇三 金萬善
☆詩 二等 京城府西橋町一七六 李史羅
☆時調 一等 曹南嶺
☆漢詩 一等 京城府城北町二五三의一 崔和順
☆童話 一等 城津邑旭町 金郁
☆童謠 一等 北鎭 朴陽松

活版、石版 オフセット プロセス 諸般印刷
日新印刷株式會社
京城府漢江通一五番地 電話龍山⑪九三二番 振替京城二七六四一番

東洋產金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三〇〇六番

京城府公平町二十五番地 典東旅館 主 孫義日 電話光化門 長六九九番

京城鍾路二ノ六七番地 新刊圖書 學生用品 事務用品 大省堂 電話 光化門二七八五番 振替 京城 六九四六番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五七ノ九 株式會社 青木洋鐵商店 朝鮮支店 電話本局② 八〇四 一三五一番

府民館食堂

染料 塗料 ◎愛國公司 京城府鍾路四丁目一八一番地 電話光化門二〇六五九番 振替口座京城一八〇二四番

京城府堅志町 大同鑛業株式會社

金博鑛山 (忠淸南道扶餘郡忠化面晩智里) 主 方興爽 京城府竹添町二丁目六五ノ三

謹賀新年
弊社今般經營主體의一新을斷行하와 前東京株式取引所一般取引員 株式會社高井商店常務取締役高良禮一社長에就任 新春과함께陣容을改造하와 名實共히新生의 第一步를 내드디며하오니 一層愛顧하여주시옵기懇願하나이다
一月元旦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安東證券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九 電話 代表 本局四一六七

和信
株式會社和信連鎖店
和信貿易株式會社
鮮一紙物株式會社
大同興業株式會社

外金剛 空前의 大山火

滄岱里一帶國有林猛燒
襄陽三陟等地에도飛火
民家六十餘戶燒失、罹災民收容救濟
神溪寺는無事, 神興寺는灰燼

【春川支局電話】 지난 삼이십일오전세시에 고성군외금강면창대리(高城郡外金剛面滄岱里) 국유림에서 불이일어나서 장전, 온정리(長箭、溫井里)의 경방단이출동하엿스나 풍속(風速)이심하야 맹화는 외금강산장(外金剛山莊)뒤편까지와가지고 수항면, 온정리신사(水航面、溫井里神社)와 소학교가타고잇는중 삼십일일오전한시에 강원도 조전(棗田)기사 구보전(久保田)기수와 기외산림과원세명이 출동하엿는데 다행이 신계사(神溪寺)는 무사하다

또 삼척군상장면소도리(三陟郡上長面所道里)에서 삼십일 오후팔시에 국유림에서 불이 일어나 풍속 삼십미돌로 금강산 양양 삼척(襄陽、三陟)등지에 맹소중인데(삼십일일오전한시현재)지화할 희망이업고 양양 삼척 각부락에 산신여호가 타버려서 이재민은 방금각공회당에 수용중이다 그리고 양양군토성면 원암리(土城面元岩里)에서도 삼십일 아침에 발화하여 진화시켯는데 또다시 오후네시반에 불이 일어나 부락신흥사가 전소되고 신흥사(神興寺)는 방금맹렬히 타고잇는중이다 (삼십일일오전한시반현재)

人命被害도不少
長箭邑隣接部落危險狀態

【警務局着電】 삼십일일오전아홉시삼십오분 강원도기사로부터 경무국장에게온 보고에의하면 삼십일일오전일곱시 현재의 금강산산화상황은 다음과갓다

▲高城署管內—온정리수정봉(水晶峰)매봉(鷹峰)에 산화가 일어나 장전읍(長箭邑)서북방면으로 연소중으로 동부락은 위험에 빠젓다 ▲외금강면창대리(滄大里)전부락에연소 인가는 전소되고 승(僧)의 주택도 두채나탓다 신계사(神溪寺)본전과종무소는 연소를 면하엿다 ▲서면(西面)회영리부락 오십호는 전소되엇고 사자네명을 내이고 행방불명자도 다섯명이나된다 소도 한마리타죽엇다 산화는 회영리방면으로부터 백하교(百荷橋)방면으로 연소중이다

盜掘黨의 失火?
警務當局事件重大視

금강산불원인에대하여서는 경무국에서도 사건을 중요시하고 강원도경찰부를 독려하여 방금 극력조사중인데 풍문에 나무가마철되어 낫다는설, 숯굽는데서 낫다는설, 중석광도굴당의 실화설 방화설등이 분분한데도 굴당의작란이 틀림업슬것으로단정하고 그방면에 전력을 집중하여 수사중이다

長箭一帶 鰮粕被害莫大

【長箭支局電話】 삼십일일오후두시부터 동해안일대에는 폭풍이 습래하여 장전부근일대에서 말리던 온박(鰮粕)이 삼분의일이나 바람에 날러가 그손해가약 이백만원에 달하다 그리고 바람은 삼십일일 오전두시에야겨우머젓다

罹災民救助

금강산불때문에 온정리부락도 일시위험하엿스나 바람방향이바뀌는바람에 다행히 화를면하엿스나 불은 지금전산을 덥허버리고 맹렬히타고잇스므로 끝자구니에잇는 집들은 거이다 타버릴것으로 취측되며 인축피해도예상외에 클것으로보힌다 경무국에서는 삼교국장(三橋局長)의일홍으로 삼십일일아침 강원도경찰부장에대하여 전화로 이재민의구조에 만전을다하는 동시에 상황은 각각으로 전화로보고하라고 명령하엿다

溫井里本部落無事
燒失山林의被害莫大

【警務局着電】 온정리본부락만은 오전 두시반경에이르러위험을 면햇스나 기타는 연소중이다

통천(通川)경찰서관 내외금강방면은 삼십일오후 일곱시오십분경부터발화이전지인통천군갑남면(甲南面)운암리(雲岩里)방면에 연소중인데 서남풍때문에 화세는맹렬을 극하여 갑남면 두암리(斗岩里)로부터 운암리구하동(九龍洞)을 포함한 일대배여정보(국유사유림)를 전부소실하엿는데 인축의피해도 상당히만흔 모양이다 통천, 고저(庫底)양경찰서원은 소방대원을 비상소집하여진화에 노력중이나 동방면은산악지대인데다가 더구나 물이업서 진화는 당분간가망이업다 원인은조사중이나 숯굽는곳의 소위나아닌가 추측된다

警察警防團總出
必死的鎭火에努力

【警務局着電】 삼십일일오전다섯시삼십분경 무국에들어온 보고에의하면, 방금연소중의 외금강산 산화의상황은 아래와갓다

▲高城署管內(三十一日午前五時十分現在) 온정리(溫井里)방면본부락으로부터 약사정떠러저잇는 안가오승가전소하고 신계사(神溪寺)방면에연소중이다 서면(西面)화우리(花雨里)는 전동리이십오호가전소하고 인축의피해에대하여는전여불명하다 그리고 각방면으로 경찰서원과경방단원이 총출동하여 목하진화에노력중이다

▲襄陽署管內(二十九日午後四時現在)는토성면(土城面)원암리(元岩里)大(木炭)가마에서발화하여 산림이백정보를 전소하고 부락사십칠호를전소하엿다 인축의피해는불명하다

▲三陟署管內(三十日午後十時)상장면소도리(上長面所道里)와 장성대촌(大村)방면으로연소중이다 경찰 경방단원 오백명이총출동하여 진화중이다 이재민은 원암리에남어잇는집오호인가에수용되엇다

▲(三十一日午前一時現在)상장면소도리(上長面所道里)국유림에서 산화가일어나 삼림봉오로연소 목하진화중이나 진화될가망이업다

지금까지의 상황은이상과갓다 강원도에서는 이재민구호를위하여 계원을급파하엿다

本社 洪社會部長
飛行機로現場에急行

방금 맹렬한불꼿속에 들더싸여잇고잇는 세계의영봉 금강산의 화재상황을 좀더자세히 또 일초라도 빨리 보도하여 본사의사명을 다하기위하여 본사에서는 본사사회부장 홍종인(洪鍾仁)씨가 삼십일일 오전열한시반 비행기로 현장에 급행하엿다

北鮮電氣全燒

【城北支局電話】 이십구일 새벽한시에 뜻하지안흔 청진부미생정(彌生町)에잇는 북선합동전기회사(北鮮合同電氣會社)에서 불이부터 한시간동안에배치 전소하엿다 급보를받은 청진서와 경방단은 출동하여 진화에전력을다한결과 불시길은 다른곳에는 옴아가지못하엿다

목도한사람의말에는 처음 불자리가 그회사 이층으로부터 낫다는데 일설에는 배전반(配電盤)의 '쇼-트'의 부주의로일어낫다고한다

청진서에서는 발화의원인을다시엄중히조사하고잇는데 당회사직사원과 숙직인에게 엄중한문초를하고잇다

미생정은 청진구시가의 요지로 대표적인 번화가이어서만일 연소를 하엿다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인데 손해액은 약오만여원에 달하리라한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날과 明日은 날씨가조타

昨日最高 零下三度九 / 同最低 七度七 / 今朝 七度 / 同正午 一度

曆

▲一月一日(月曜日)陰十一月二十二日 ▲干支 癸卯 ▲日出午前七時四十八分 ▲日南中 ?時三? ▲日入後五時十七分 ▲晝間九時三十七分 ▲月出 ▲月入午前十一時三十分 ▲滿潮午前九時二十分 ▲午後九時四十分 ▲干潮午前三時 ▲午後三時十分

餘錄

▲경진(庚辰)의첫달맞이 천——삼가 세배를드리오니 이 하해를보내는동안 북만히바듬소서 ▲시가에소리나 빗갈이 업사와서 오늘과 어제가 다를리업사오나 ▲경진(庚辰)은 경진이고 기묘(己卯)가 아니오니 경진은 역시 새해외다 ▲오는 일년삼백륙십오일을 가지려고 모처럼 새손님이오니 ▲몸과마음을 새롭게하여 이 새손님을 마지합소사 ▲지난해 한해동안에 다해와서 아직도다음한편에 남어잇는 사업이 잇삽거든 ▲해가 새로우니 새로운힘과 용기로써 올해에는 기어히뜻을이루소사 ▲새해첫날을 마지하여삼가이러케두어마디로 세배를드리나이다

"우리音樂"을家庭으로!
朝鮮노래를朝鮮樂器로彈奏하는
梨花동산에迎春譜

(1)

동당 동당 두당동당…

덩덩 덩덩 디댕덩덩…

경진(庚辰)의 신춘을 축복게맛는 아름다운 누리가 힘불양옥으로부터 흘러나온다——여기는 조선의 여자학문을 길러내는 최고학부 이화전문(梨花專門)의음악과 조선음악을 연구하는 원기발랄한 아가씨들이 장고장단에 마추어 가야금 양금을 합주한다

……

그 누리를 따라 온반도가노래부르면 부드러운 봄시바람이 이땅에 래왕(來往)하고 온사람이 춤을 추면 이강산이 꽃바다를 이룰것이다

희망에 빗나는 새해에 화창한 누리를 외령에 퍼치려는아가씨들의 기운은 생불과가치용솟음치고잇다

「정서교육은 먼저 가정에서부터!」와 아울려「우리음악을 가정 안에!」라는 표어를 먼저 실천에 옮기고자 동교에서는 서양음악파함께 조선음악을교수하여와 어미 상당한 작품수업다

이러서 작년그공개연주를 가젓섯는데 금번에는 더욱 이에 힘쓸터이라하니 아가씨들이 가정에 들어가는 글자그대로 금실(琴瑟)이 서로화하는 아름다운열매를 매출것이다

……

이러한 가정이 늘고 퍼지어 온강산이 화방파 화평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멀지안흔 앞날에 잇슬것을 생각하면 그「버더나가는 힘」의위대함을 느끼지안흘수업다

이아름다운씨가 이미 싹터자라나는중이니 그뿌리와 가지가 온반도에 퍼저무성을 자랑하는날이 하루바삐오기만을기달리자

오늘 아가씨들이 화창하게연주하는곡은 「봄노래」(春之曲) 춘보(迎春譜)! 희망에 찬신춘을 마지하는 기쁨은 「금선(琴線)」을 타고 하늘로 흘러나와온사람의 심금을 울리니 어찌이에 화답하지 안흘손가?

(사진은 이전생들의 조선고악 수업광경)

賀表奉呈
團體縱走大會

朝鮮體育協會에서는 皇紀二千六百年을마지하여 賀表奉呈團體縱走金剛鮮大會와 朝鮮神宮, 扶餘神宮間二百粁强步蹤走輪走大會等의 劃期的行事를 行할터이라는데賀表奉呈大會는 十月一日부터 行動을 이르켜十一月二日國民奉祝에 東京에서 秩父宮殿下에 半島二千三百萬民衆의 奉祝의誠意모흔 賀表를奉呈하는것이며 朝鮮神宮, 扶餘神宮間二百粁强步競走輪走大會는 開催日은 未定인데 旺盛한國民體力集力을 涵養하는 行事로注目을이끌게한다

立敎第一戰에快勝

【마니라特電二十八日發】 比島에 來征中인 立敎籠球軍은 上陸한後 첫게임인 레트란·카레지팀과의籠球戰은 二十八日午後八時半부터 리잘·코-트에서 擧行되엇는데 結局四十八對 四十二로 立敎軍이 勝利하엿다

立敎48(27―21 / 21―19)42레트란

賀正

石橋良介

若草東寶映畫劇場 岡本清次郎

黃金座 小田勇吉

金炳憲

愛國生命 春岡崔宇植

三菱商事株式會社 京城支店長 山下甚之助

朝鮮??株式會社 村上義一

鄭泰述 京城府崇仁町七ノ三九 電話光化門三四五一

昭和??株式會社 取締役社長 中西康之助 京城府明治町一丁目九十九番地

京城府會議員 辯護士 崔白洵 京城府觀水町七番地 電話光化門二〇一四番

親和企業株式會社 親和鑛業株式會社 中村五郎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七〇番地 電話光(3)二六六一 二九八七 二九五三

鄭顯模

全有英

李釆鎬

具乙會

內山寬正

新田留次郎

王熙淳

鄭完圭

李永兆

大日本航空株式會社 京城支所 三宅耕一

孫完榮

金萬庸

宋祥九

高慶云

朝日商會 孫鍾洙

金熙善

江華??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在龍 電話江華 三六番

二田原秋三郎

喪中欠禮 朴受景 京城府??町五二ノ五六

賀正

尹致昊

三橋孝一郎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有賀光豐

林繁藏

高橋敏

朝鮮信託株式會社 谷多喜磨

古川兼秀

西岡芳次郎

韓相龍

武者錬三

伊森明治

京城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季洙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十五番地

朴興植

堀正一

渡邊彌幸

野田新吾

李鍾萬

崔昌學

金基德 竹添町

朴基孝

平和堂株式會社 李根澤

菊池一德

木野藤雄 産金課

新井俊次 京城南大門通二丁目

見目德太

松澤龍雄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會長 松本誠

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土師盛貞

金海鎭

京城 三越 支店長 三輪邦太郎

崔[illegible]楠

韓學洙

株式會社朝鮮取引所 理事長 荒井初太郎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古庄逸夫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十五番地

齋藤久太郎

東興銀行頭取 方奎煥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高橋省三

金桂祚

全用淳

李庚鳳

石川俊造

金判巖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金一泳

鐘紡サービス京城支店 支店長 平賀三男

吳元錫

尹明鉉

金鍾健

朝鮮運送株式會社 河合治三郎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社長 石川登盛

京城[illegible]陽社 鄭世權

韓澤洙

崔南周

鄭炳善 京城府北阿峴町一ノ八〇 電話光化門三五七八番

咸錫泰 京城 三角町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 專務取締役 三木淸一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十五番地

李駿烈

嶋屋釀造株式會社 戶嶋貞藏

金宗亮

趙南燮

三福合名會社 社長 金基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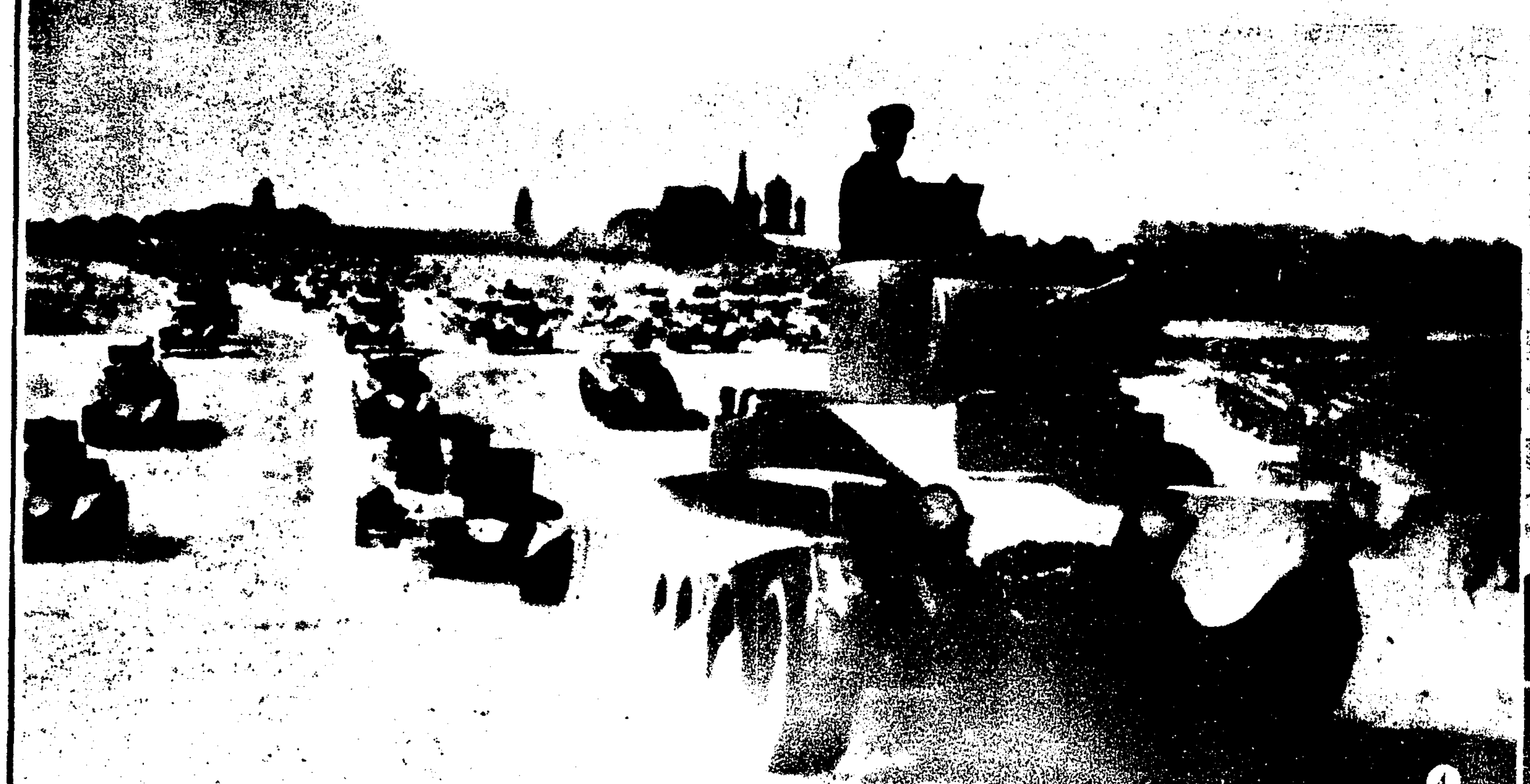
元孝燮 敦岩町三〇八

三井物產株式會社京城支店 支店長 山中清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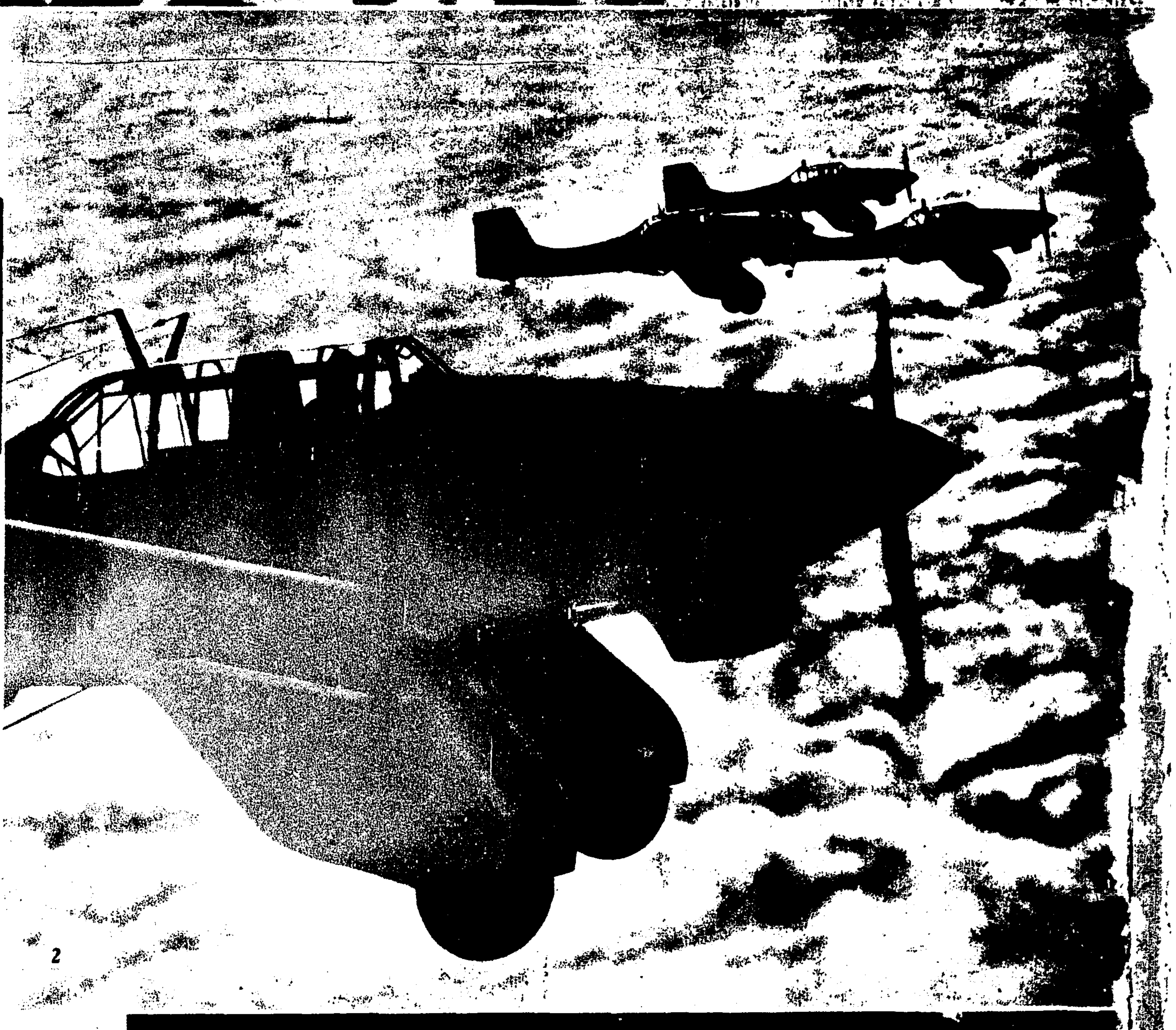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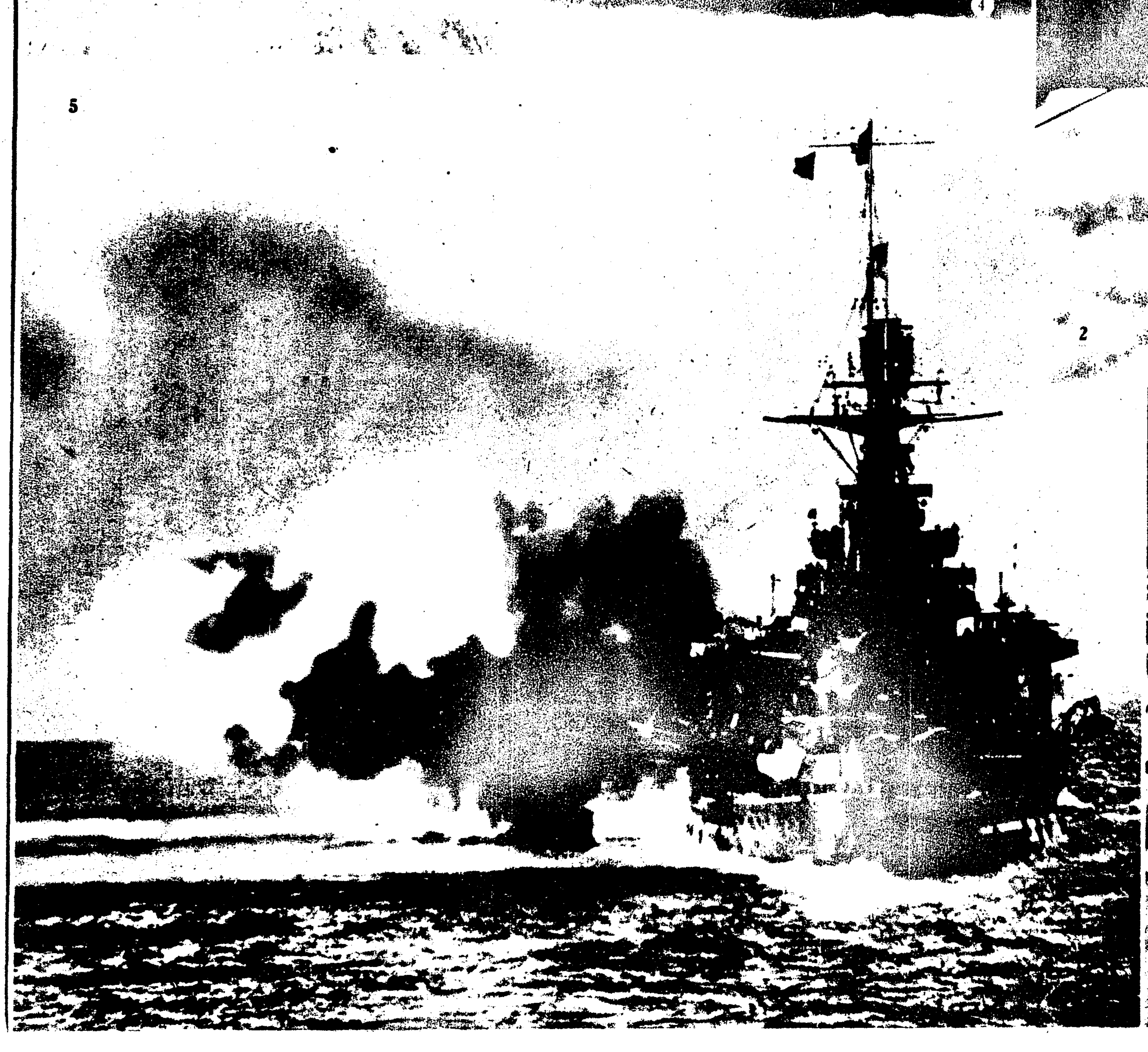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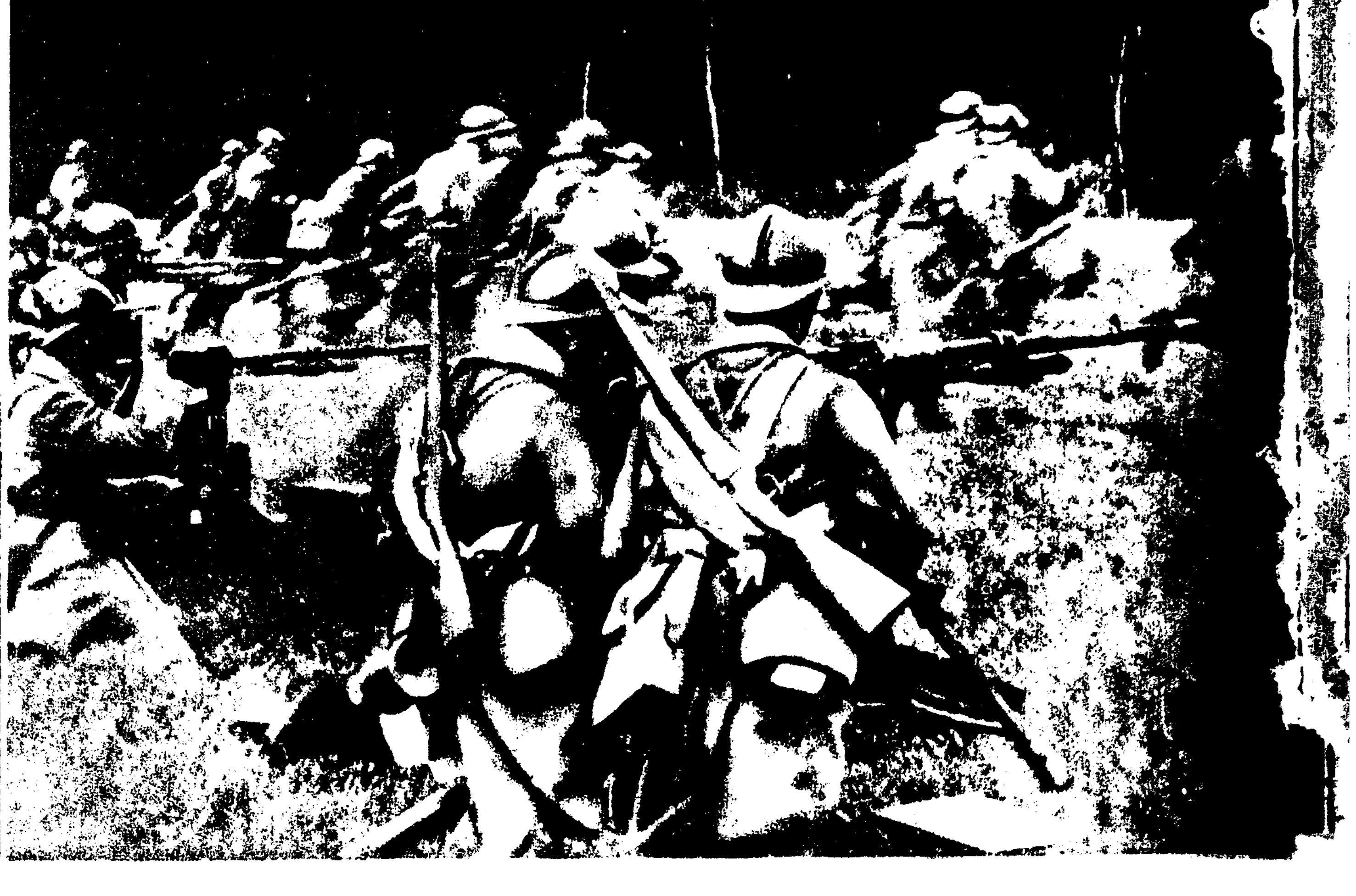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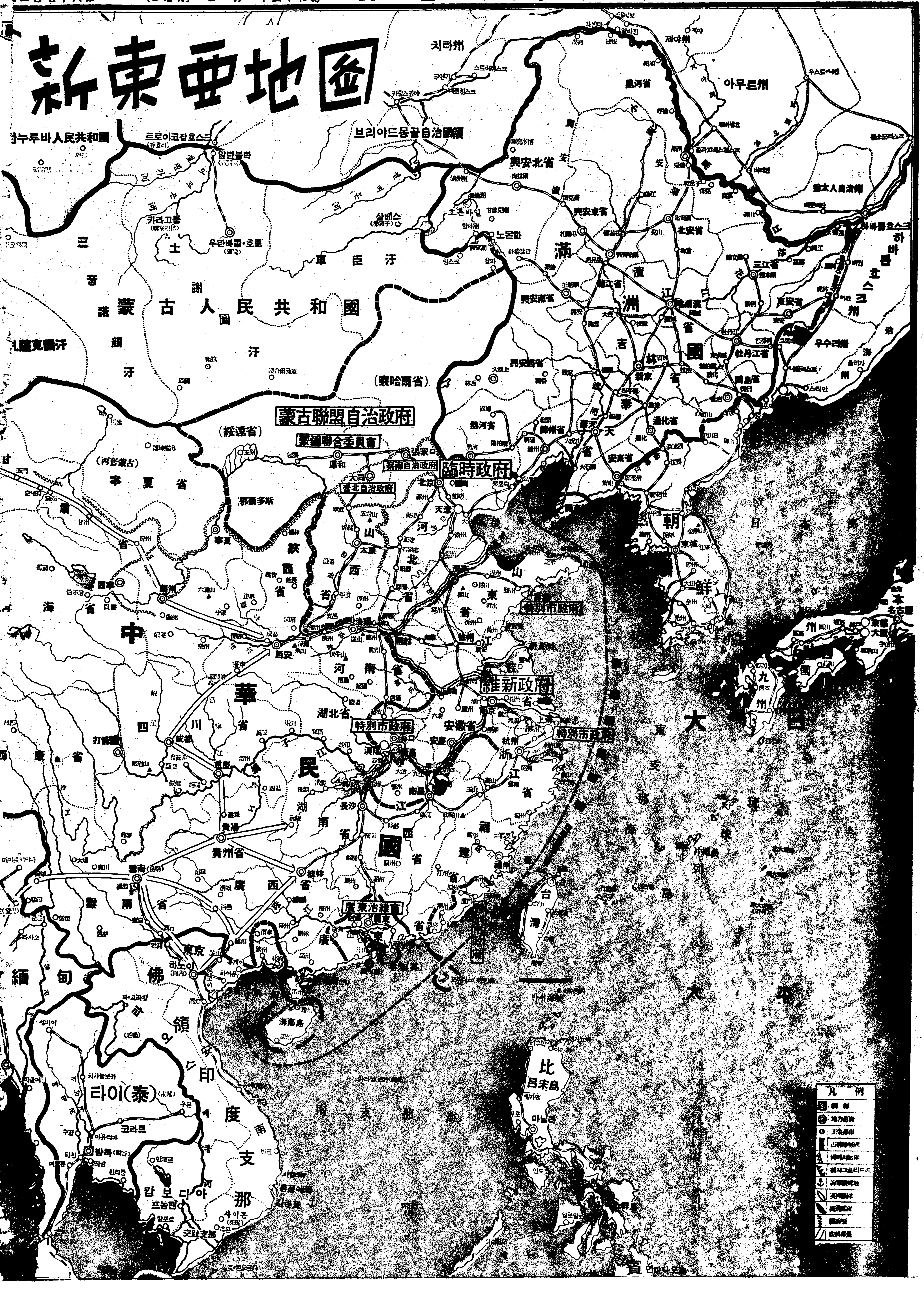


2

5






新東亞地圖
蒙古人民共和國
蒙古聯盟自治政府
蒙疆聯合委員會
察南自治政府
晋北自治政府
臨時政府
維新政府
特別市政府
廣東治維會
滿洲國
朝鮮
中華民國
佛領印度支那
타이(泰)
緬甸
比
呂宋島
마닐라
台灣
東支那海
南支那海
日本海
太平洋
大日本
琉球列島
海南島
아무르州
치타州
브리아드몽골自治國領
하바롭스크州
우수리州
猶太人自治州
興安北省
興安東省
興安南省
興安西省
黑河省
北安省
濱江省
三江省
東安省
牡丹江省
吉林省
間島省
通化省
安東省
奉天省
錦州省
熱河省
新京
京城
北京
天津
西安
成都
重慶
漢口
南京
上海
廣東
東京
하노이
방콕
사이곤
캄보디아
凡例

歐洲戰局地圖

諾威
瑞典
芬蘭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니아
丁抹
獨逸
波蘭
白露西亞·쏘·共和國
우크라이나·쏘·共和國
英吉利
아이레
和蘭
白耳義
佛蘭西
瑞西
伊太利
洪牙利
羅馬尼亞
유고슬라비아
勃牙利
알바니아
希臘
土耳其
西班牙
葡萄牙
北海
西洋
地中海
阿弗利加洲
알제리아(佛)
모록코(佛)
伊領리비아
키레나이카
埃及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레닌그라드
코펜하겐
伯林
함부륵
라이프치히
드레스텐
프라하
뮌헨
빈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倫敦
글라스고
만체스터
巴里
브륏셀
마르세이유
베른
로마
베오그라드
소피아
부카레스트
이스탐불
아테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스본
알제
튜니스
토리폴리
오뎃사
키엡호

映畫令實施下 新春映畫界 特輯

[illegible]的으로 비로소 [illegible] 하고 그 [illegible]하야 映畫人[illegible]하였다. 映畫가 그만치 成長하였다는 것을 [illegible]한다. 映畫는 오늘날 眞人의 生活方法의 한 樣式으로서 朝鮮에 있어서도 그 發展의 將來가 當局의 指導미테 相當한 期待를 갖게 되는바 特히 昭和十五年을 맞이하는 이 新正, 朝鮮映畫의 將來은 어떠하며 그 活動의 大勢는 어느 程度인가. 이에 朝鮮映畫 誕生以來 가장 代表的인 業績과 動向을 차지고 있는 市內 高麗映畫社에 新春映畫界의 全貌를 들기로 하자.

福地萬里

授業料 ・金漢

新春映畫界에 보내는 文壇의 激勵!

近來에 映畫는 文學方面에 相當한 協調의 氣運을 갖고 있는바 이에 特히 平素에 映畫方面에 關心을 갖고 있는 數氏에게 新春映畫界의 이애기를 듯기로 한다

小說家 咸大勳

나는 朝鮮映畫를 사랑한다. 勿論 技術的으로는 外國映畫에 뭇떠러질지 몰으나 거긔에는 生動하는 人物과 自然의 鄕土色을 갖엇다 是것과 映畫人들이 가난하면서도 그만한것을 맨드러 낸다는 情熱때문이다 나는 어떠면 福地萬里의 로케ー슌의 한 場面을 보앗다 마침 조선씨름場面의 한 部分이엇는데 거긔서 나는 鄕土藝術이 카메라에 박여지는것을 보고 예날 端午名節에 씨름하는 農夫들을 생각하고 흙과 自然과 農民들의 香氣를 느꼇다。

詩人 林學洙

나는 映畫에 對해선 門外漢이지만 福地萬里에 對해선 잘알고있다 特히 豆滿江의 流域과 滿洲大陸을 背景으로한 壯大한 것으로 그어느곳에 소리한 氣分을 滿喫할수있으리라고 생각한다

評論家 李軒求

飛躍途程에 있다고도 할수 있으며 完成의 境域에 達하려고있는 朝鮮映畫界에 있어서 福地萬里와 授業料의 企劃은 한 개의 그런희망일것이라고 생각한다。

授業料

高麗映畫社가 海外派遣制度를 創設

새로운映畫藝術[illegible] 아니 映畫界의 [illegible] [illegible] 高麗映畫社가 새로운 映畫[illegible] 標로 海外派遣 制度의 創設을 實施케되엇다는것이다 이 劃期的인 快事를 實行하기까지 該社는 社主李創用氏를 首班으로 朝鮮映畫人協會要人諸氏들과 協力하야 年[illegible] 社의 基本財産까지 [illegible] 第一次의 榮譽있는 派遣人材는 近日中에 發表될 豫定이다 이에 李創用氏는다 [illegible]이 말한다.

福地萬里 新京로케ー슌

李創用氏談

「[illegible]의 素志를 實行한데 不過합니다 오로지 新春努力하야 보옵이되 [illegible] 本年에[illegible]합니다」

福地萬里 [illegible]로케

「授業料の一場面」

大作「福地萬里」의 完成과 總督賞「授業料」에의 期待 ―昭和十五年을 代表할―

◇長々 二個年의 長久한 時日과 二十萬圓의 巨費를 投하야 內、鮮、滿의 廣大한 로케地域으로서 近々完成될 大作「福地萬里」는 上海에서 歸朝한 全昌根氏의 메가폰 아래 高麗映畫社와 滿洲映畫協會의 共同製作이다。그 登場人物의 二萬人 動員이라든가 四季에 亙한 雄大한 스케일 等은 半島映畫의 劃期的 面目을 世界市場에서 자랑할만한 作品이 되고 남음이 잇을것이라고 한다。(製作、李創用、撮影、李明雨、李信雄、出演、朝鮮側、沈影、朱仁奎、李圭鳳、朴昌煥、宋創寔、全玉、劉桂仙、田澤二、柳玄、滿洲側、陳鎮中、王娛波、李映、王美雲、張明、浪波、張敏、)

◇總督賞의 榮譽있는 當選作「授業料」는 朝鮮映畫의 只今까지의 方向을 一新하야 健實한 企劃미테 着手된 良心的인 秀作이다「國境」의 崔寅奎、「漢江」「城隍堂」等의 方漢駿、兩名監督이 協力演出이 또한 相當한 期待를 갖게할뿐만 아니라 出演에도 東京新築地劇團의 元老 薄田研二를 비롯하야 文藝峰、金漢、獨銀麒、金信哉、卜惠淑、田澤二、崔雲峰等 牛島의 錚々한 스타ー가 網羅되엿으며 特히 京城淸溪小學校의 鄭旅朝君 京城女師附屬小學校의 金鍾一孃 其他 京城男師附屬小學校와 水原梅香小學校의 兒童多數가 贊助出演되엿다 그우에 主題歌는 日本ポリドール레코ー드에 吹入되어 全國 어린國民들에게 愛唱된다고 한다 脚色은 東寶의 八木保太郞氏

福地萬里 [illegible]方面의 로케ー슌

金玉均傳映畫化着手
文壇의雄 林和氏材料蒐集中

많은企劃中 今年度의 一大壯擧라할作品은 前記高麗映畫社의 傳記映畫 東洋의志士 金玉均傳의映畫化다。벌서該社에서는 그간文壇의雄 林和氏를 文藝部에招聘하야 그材料蒐集에 着手되엿다하며 늦어도 本年三月中旬부터는 이巨作의 크랑크에 拍車를걸게 豫定이라는데 이作品의完成은 또한朝鮮映畫文化를爲한 絶對의 金字塔을 造成할것으로 믿어진다。

評論家[illegible] 徐光霽氏의「北風」

旣報한바와같이 軍用列車以來 다시 評論陣을 孤守하며 沈默을지켜오든 徐光霽氏가 今次「北風」을 制作키로되엿다 이作品은 그素材가 文藝作品인데比하야 着手前부터 文壇側 그외知己諸氏의演勵와방關係[illegible] 近來에 드문異彩를 呈하고있는바 다시昨年末에는 東寶의新鋭 山本藤夫 監督까지 일부러來鮮滯在하여 徐氏의 作品에友愛의協力을보여주었으며 亦是三月新春과 함께 크랑크할豫定이다。

朝鮮最初의「映畫年鑑」도刊行

映畫年鑑이刊行된다 一年史와 記錄其他人名錄과 全部各種의 興業錄을 蒐集하야 近日市場에 나온다 그編輯委員은 李創用 林和 徐光霽 金正革等四氏이며 發行所는 京城鍾路二ノ七 [illegible]會이다

東西高貴補藥을綜合한 强壯的强壯劑 サンワミン은東洋人에게最適!

健康美는肉體美에極致이다

朝鮮、東亞、每新三新聞十二月六日附朝刊에揭載된 美를生命보다도더 貴重히여이는 "헐리우드"의女俳優아가씨들은美容劑로 朝鮮蔘을愛用한다고하엿다。卽人蔘을먹으면 皮膚가고와지고人蔘을 原料로한 비누나化粧品을쓰면 살결이潤澤하여지고 부드러워진다고하엿다。

其原理는 한곳에잇다 人蔘은 우리朝鮮에서 古來로高貴補藥으로 이藥을먹으면 氣血을補强케하고 血色이 조와진다 血色이조화지면 外貌에 나타나는 肉體美가 조와짐으로 美容劑로쓰는것이다 サンワミン은 人蔘과鹿茸을 主成分으로하고 其他歐米各國에高貴補藥에 有効成分을 綜合하여 製하였음으로 健康과美를돕는데는 他品이追從치못하는製品이다。

【包裝】 五百粒 (一個月分) 五圓 二千粒 (四個月分) 十五圓 四千粒 (八個月分) 二十五圓

總發賣所 京城府[illegible]町 新興製藥所

支店及出張所 北京市前門外西河沿二三七號 滿洲國國都新京市[illegible]三〇 哈爾濱道裡[illegible]街二六 大阪市東區高麗橋五丁目

肺結核 肋膜炎 食慾增進特効劑

サンワミン

"헐리우드"의女俳優 美容劑로朝鮮蔘愛用 東京[illegible]에서三千斤輸出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今次歐洲大戰小메모
昨年九月一日 [illegible]
▲九月三日에 英佛對獨宣戰布告
▲九月十七日 蘇聯[illegible]
▲九月二十七日 [illegible]陷落
▲十一月三十日 蘇芬戰爭勃發

大戰推移如何에無關 事變處理는强行
列强極東工作은消極化難免

第二次歐洲大戰은 어느一側의 勝利로歸할가 支那事變이 帝國과 蔣介石政權과의 戰爭인것은 事實이나 歐米諸國의動向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잇는것은 움직이지 못할 現實이다. 即 蔣介石政權 혼자가튼면 事變處理는 南京陷落後 아니 事變의 勃發도 업시 處理되엇슬것이나 英米佛蘇等 歐米列强이 陰으로 陽으로 後援하고 支持하고잇기때문에 今日까지 遲延하는것은 누구나 共認하는바이다. 그런데 方今 歐洲에는 第二次大戰이 勃發하여 英佛獨三國이 戰爭의 渦中에 席捲되고 蘇聯 또한 芬蘭과 干戈를 相交하고잇스며 伊太利及 米國도 언제 戰爭에 加擔될지 모를 形勢에 잇스므로 帝國에는 事變處理에 無上의 好機會어니와 그러나 歐洲大戰이 언제까지라도 繼續되리라고는 밋기 어렵다. 終當은 英佛側의 敗北로 歸하든지 獨逸 或은 伊太利가 順序로 敗戰의 苦杯를 마시든지 或은 西歐動亂의 틈을 타서 蘇聯의 赤色魔手가 뻐처 歐洲에 新秩序가 建設될지 알지못할 處地에잇다. 그러면 歐洲大戰은 어떠케 結末을 지으며 또 그結果의 極東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할가. 實로 吾人의 關心을 갓게하는바다. (寫眞은 筆者)

英佛國 獨逸戰爭이 어떠케結果될지는 누구나 알수업다. 또 蘇聯及 伊太利의 向背도 只今 形便으로 判斷키 어렵다. 蘇聯이 獨逸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햇지만 끗까지 獨逸을 爲하여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後援을아끼지안흘까는 疑問이다. 何故오하면 蘇聯은 獨逸의 波蘭攻勢에 際하여 波蘭에 大軍을進駐시켜 波蘭西部를 占領햇고英佛獨의 他念이 업는 機會를타라 蘇聯은 에스토니아, 리트니아 라트비아等 발틱沿岸三國에 强壓政策을써서 軍事駐屯權을 獲得하엿고 芬蘭에 對해서는 올랜드諸島의 海軍根據地로서의 讓渡 레닌그라드 附近蘇芬國境의 數十粁後退를 要求하다 不聽한다하여 戰端을 開始하엿다. 萬一 伊太利가 參戰할境遇 발칸方面으로 進出하야領土擴張又는 地盤을 鞏固히할것은 明若觀火인 까닭이다 또 伊太利로 보드래도 獨逸과는 同盟關係에 잇지만 嚴正中立을지키고잇고 어떠한態度도明示하지 안는다 伊太利가 參戰하면米國이 參戰하고 蘇聯이 [illegible]할러이므로 傍觀하고잇는지는 모르다 그러나 獨逸의 孤戰을 傍觀하고잇는것은獨逸에 若干한 失望이 아닐것이다 實로 獨逸은伊太利의援助업시는 英佛의 兩大强國에 敗할것이거의 決定的 事實이요, 獨逸敗當의 伊太利가 發言權이 업서지고 그勢力의 衰退해질것도 想像키 不難하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伊太利가 沈默을지킴은怪異하다 적어도 現在에잇서서英佛에는 米國이란 强大한 國家의支持가 잇스며 獨逸엔 伊太利, 日本이란 强國의支持가 잇스나 日伊兩國이 經濟的으로軍事的으로 큰 後援者가 못되고 蘇聯이 經濟的으로多少獨逸을도우나 軍事的으로 政治的으로엽마음 獨逸을 도울까는 疑問이니. 英佛에 勝點이 만흔것은不諱의 形勢이다.

英佛이戰勝時 極東策에全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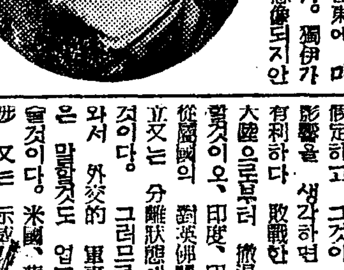
以上과가치萬一 英佛이勝하여 獨逸이敗하고 伊太利조차發言權이 弱해진다면 蘇聯의 中歐或은 南歐進出은 積極的이 되지 못할것이다. 何故오하면 英佛이 獨伊와 戰爭中은 餘力이 업서 蘇聯의 進出을 阻止치못하나 一旦 英佛이 戰爭을끗내면 赤禍防止의 온갓手段을 쓸것으로 보이는때문이다. 그러므로 戰勝한 英佛과 大戰中勢力을 擴大한 蘇聯은 極東으로 그餘勢를 빼치라할것은 事實이니 戰爭終局前에 支那事變이 處理되엇스면 모르거니와 그때까지 遲延되는날엔 英佛蘇의 極東干涉이積極化할것이다. 보라 저日淸戰爭後 英佛露三國이 干涉하여 帝國으로하여금 遼東半島를 支那에 還附케하고 歐洲大戰後 華府會議의 結果 對支二十一個條를 撤廢케한것은 帝國의 戰爭으로 疲弊한 機會를 타서 武力的 或은 外交的干涉을 한 結果가아니냐. 그러므로 歐洲大戰後 다시 英佛及蘇聯이 極東方面으로 積極的進出을 敢行하여 帝國의 對支政策에 干涉을 할것은 想像키不難하다. 그때까지 帝國은 完全히 支那事變을 處理하여 極東에잇서서의 新秩序가 完全히 樹立되고 外國의 干涉할 餘地를 주지안흘것으론 밋지만 歐洲大戰이 意外에 速히 解決되어 事變處理途中에干涉하기 始作하면 帝國으로서는 一種의 障碍物이 되지안흘수업다. 歐洲大戰中 英佛의 對蔣援助行爲는 比較的 緩漫해 젓다 하지만 아직援助行爲를 繼續하는것이 事實이요 더욱米國과 蘇聯의 對蔣援助는 英佛업는틈을 타서 代理行動을하는感이 不無하니 저日米通商條約의廢棄, 眞珠灣에 海軍集中은 消息을 엿볼수잇지안흔가. 況且 歐洲에 戰爭조차 終熄되어 英佛이 勝利하면 英佛米蘇의 干涉은 猛烈할바잇슬것이다. 萬一 英佛米蘇가 極東에干涉한다하면 첫재蔣介石을 武力的財政的으로 돕고 外交的으로帝國을 牽制하라할것이다. 그러나帝國의對支新秩序建設工作은 如何한政府가 出現하드래도 不動의 方針이니 外交的 言辭로써 兵을撤하거나 蔣政權을 認하여 妥協하지는 안흘것이다. 英米佛等이 帝國의極東에 잇서서의 特殊地位를 認定치 안코는 견디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戰爭이 終結된英佛兩國은 外交的으로 牽制할수가 업슬땐 或은武力示威도 敢行할것이다. 米國은 戰爭에 參加치 안햇기때문에 武備를조금도 損傷치안햇고 蘇聯도 對芬蘭戰爭에 多少武力의 損害를보다하드래도 極東의軍備는 조금도 損傷되지안햇다 이米蘇를 이끌고 英佛이 對日武力示威를 한다면 輕輕한問題가아니다.

對日武力干涉은 蘇聯牽制로不能

그러나 英佛은 모르나 米蘇가 共同하여 帝國에 武力的示威를 行할수는업다. 何故오하면 蘇聯은 列强을 戰爭케하고 그背後에서 疲弊를기다려 赤化를꾀할지언정 어떤 列國과 攻守同盟을 매저 一國을 攻擊할 意思는 업다. 그것은 今次歐洲大戰時의 蘇聯의 態度가 證明한다. 蘇聯은 滿蘇國境及 支那共産黨으로하여금 盛히 反滿抗日運動을 이르킬것이오, 英米는 共同하여 太平洋方面까지 海軍을 出動시켜 示威를 敢行할지 모른다. 그러나 蘇聯은 戰後英佛米의 强大를 猜忌하기때문에 盛히 歐洲及 中央亞細亞에서 英佛의 友邦及植民地를 擾亂하려할지며 英米와 帝國과는 戰爭케하랴할러이므로 英佛米는 蘇聯과 對立이 甚하여 英米帝國主義對蘇聯의 戰爭이 더 急迫해질것이다. 蘇聯이 近者 빨틱海岸及발칸方面으로盛히 進出을 꾀하는것이 獨逸敗亡後社會革命이 起하면 蘇聯은 이에 進出치아니치못할지오 이리되면 英佛帝國主義의 [illegible]할것이므로 미리 그戰略根據地를 鞏固히하려함에 잇다한다. 英佛이 어찌 安心하고 極東에 全力을다할수잇스리오. 獨逸이 敗하고伊太利마저 發言權이 업서진다하드래도 英本國艦隊를 全部 極東에 移駐시키지 못할것이아니냐. 英本國艦隊가 極東에 오지 못하는以上 米國이 혼자 武力干涉을 안할것은 最近의 米國態度로 미루어알수잇다. 그러므로 設使 英佛이 勝利하여 極東에잇서 干涉하드래도 武力으로까지는 나오지안코 外交的으로 나오는것은 豪脅할바가 업다. 新東亞建設計劃은 政治的關係로 多少 妨害를 맛드래도 進行될지며 經濟方面도 新段階에 들어갈것이다. 即 大戰中物資難으로 建設이 遲遲하던 大陸에잇서서의 生産力擴充計劃及開發事業은 現在보다 更以急速度로 進展될지며 日滿支三國間 經濟提携는一層緊密化하야할것이다 (寫眞은 히틀總統과 첸首相)

獨伊가勝利하면 帝國엔極有利

이에反하여 獨伊가勝하고 英佛이 敗할 境遇에 極東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할가. 獨伊가 勝할境遇는 容易히 想像되지안호나 蘇聯이 帝國植民地를攪亂하여주고 日本이 極東方面에서 英佛을 妨害하고 獨伊가 奇襲作戰으로 英佛을 攻擊한다면 어려운境遇도 想像되지 못할이 아니다. 伊太利의沈默이 英佛獨三國의 疲弊의 機會를엿보아 獨逸에 加擔하여 英佛을 打倒하려는 心算인것을 누가 아니라 保障하랴. 軍事家의 말하는바에 依하면 伊太利空軍이 一齊히 出動하여 地中海上의 英海軍根據地를 一擊之下에 粉碎하고 獨伊兩聯合軍이 佛國境을 侵入하여 英佛聯合軍을 東南으로 壓迫하면 英佛降伏도 至難之事는 아니라한다. 況 日蘇가 政治的 經濟的으로 援助가잇슬境遇랴.



萬一 獨伊가 英佛에 勝한다 假定하고 그것이 極東에 미칠 影響을 생각하면 一層 帝國에 有利하다. 敗戰한 英佛은 支那大陸으로부터 撤退치 아니치못할것이오, 印度, 印度支那, 其他 從屬國의 對英佛關係는 거의獨立又는 分離狀態에 빠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極東方面에 와서 外交的 軍事的으로 干涉은 말할것도 업고 示威조차업슬것이다. 米國, 蘇聯이 또한干涉 又는 示威하지안흘가할것이나 英佛退却後의 米蘇가 現在以上으로 積極的으로 나오지는 못할것이다. 何故오하면 戰後 獨伊의 强盜를 꺼리는 米蘇가 어찌 歐洲及 米洲方面을 放置코 極東에 干涉만 일삼으리오. 또戰勝한 獨伊로 보더라도 一時에 全世界를 自家마음대로 弄絡할만한 實力은 업슬지며 特히 帝國과는 親善關係에 잇스므로 新東亞建設에 干涉 乃至妨害는 안할것이다. 獨伊는 現在에잇서서도 武力과財政이 貧弱하거늘 今般 戰爭으로 비록勝利를 得한다 할지라도 疲弊할것은 必然한 形勢며 歐洲問題處理에 奔忙할獨伊로서東亞問題等을干涉할餘暇와實力은업슬것이다(寫眞은 스탈린書記長)

新東亞建設도 順調進行豫想

그러므로 獨伊가 勝하면 極東은 帝國의 獨擅場이 될지며 따라 帝國의 新東亞秩序建設은 極히 順調히進行될것이다. 辟言하면 英米佛蘇의 積極的援助를 밧던 蔣介石政權은 그 援助바들길을 喪失하여 崩壞의길을速히밟을지며 新政權樹立運動及治安工作은 一層 活潑히進行될것이다. 따라 帝國의 支那에對한 經濟的建設計劃도 着着 進行될지니 無盡藏의 支那資源은 餘地업시 開發되어 日本軍工業設備 即 生産力擴充에 資하고 支那本土內의 生産工業及 經濟復興에 莫大한 原動力이 될것이다. 그뿐아니라 英佛勢力의 退陣은 印度, 濠洲, 馬來諸邦, 印度支那等에 經濟的 進出의 好機會를 與하여 極東天地가 帝國의 獨舞臺인 感을 줄것이다. 이와가치 外로 政治的 經濟的 狀態가 潤澤하는지라 內로 輸出工業의 增進 國內消費材의 增産을 招致하여 極東에 不景氣를 모를 好況을 呈할것이다.

勿論 米蘇의 牽制又는 干涉이 活潑할것은 事實이나 利害가 다른米蘇가 一致하여 帝國에 對하리라고는 밋기어려움으로重大한 障害는 안될지며 이 支那事變處理와 아울러 帝國의第二段的 飛躍의 機運을 釀成하게될것이다.

英佛獨和平도 可能性은잇다

그러나 歐洲大戰이 長期化하지안코 短時日內에 和平이되어 歐洲問題가 一段落될境遇에 極東에 미치는 影響은 如何할가 和平의 兆朕乃至 理由가 全然업는것은 아니다. 現狀대로 放置하면 英佛, 獨이모두 損害를 볼지언정 利益을 볼것은업다. 또 數年을 걸려 어느쪽이 戰勝한다 하더라도 큰利가 업고 모두 疲弊해질것은 第一次歐洲大戰이 가라친바다. 그러면 왜 英佛及 獨逸은 無用한 戰爭을 繼續하고잇슬가. 그것은 서로體面問題로 戰爭하는것이다. 獨逸은 當初 波蘭을 攻擊하더라도 獨蘇不可侵條約이 締結된以上 英佛은 이것을 傍觀할줄로 미더섯다. 그러나 英佛로서는 獨逸의 東進政策을 그대로 傍觀한다면 將次 如何한 行動까지敢行할지 모른다. 必是 빨칸諸國乃至 亞弗利加까지도 伊太利와 協力하여 征服할것으로 생각햇다. 그리하여 英佛은 마침내起하여 獨逸의 行動을 挫折시키려한것이다. 그러나 英佛도 本格的으로 獨逸을 打倒하여 城下之盟을 밧는것보다 戰爭에訴하므로써 獨逸을屈服케하고 獨逸로하여금 그行動을 中止케하려하엿다. 그러나 獨逸은 體面關係上 降伏을不肯하고 꿋꿋내戰爭을覺悟하엿다. 이러하므로 戰爭은 和平될機運이 적으나 서로戰爭의 不利는 알고 오직 體面을 保存하려하므로 米國又는 伊太利가는 中立國이 나서和平을 調停할 機會가 全然업는것이 아니다. 勿論 大戰勃發當初에뭇솔리니伊首相이 이것을 企圖안한바아니나 獨逸을 擁護하려는 和平條件이 엇스므로 英佛이 應할듯하지 안헛스며 그後白和兩國元首가 또한和平을 提議햇스나英佛이 듯지안허 成立되지못햇다. 萬一伊太利가 獨逸로하여금 讓步케하고 和平을提唱한다면 全然不可能한것도 아니다. (寫眞은 뭇솔리니首相)

英佛米極東進出 더욱活潑을豫想

紐育方面에서는 이런消息이盛히宣傳되고잇다. 萬一 獨逸이伊太利의 提議를 들어 和平에應한다면 英佛에 有利히 講和될지오 그條件으로는 히틀總統의下野와 체코슬로바키아의 獨立, 波蘭의獨立認定 빨칸에 잇서서의 英佛의 優位, 獨蘇不可侵條約의 廢棄賠償金 軍備縮少等 苛酷한 條件이 附與할것이다. 이리되면 英佛의 勢力은 一層 强化되고 英佛의 極東干涉은一層 顯著해질것이다. 即英佛은 獨逸의軍事的 財政的 勢力의 極히 劣勢됨으로 機會로 歐洲에 小康狀態가 現出됨을 틈타 極東方面으로 進出할수잇슬지라 米國의 壓力을 加해올것이다. 即 英米는 共同하야 蔣介石政權을 援助하고 新政權樹立을 妨害할지며 南支權益保護를 要求하며 門戶開放 機會均等을 要求할것이다. 게다가 蘇聯은 歐洲秩序가 恢復되어 後方撹亂의 機會를 失하면 自然防衛의 不足한極東을 向하야赤化의 鋒鋩을 내세우지안흘수업거니 비록 노몬한停戰協定이 成立되고 漁業條約其他日蘇間問題交涉이 比較的順調로 進行되는中이라하드래도다시侵略의 鋒鋩을 들고 蘇滿國境으로 進出하며 蔣介石後援行動을 積極化할지 모른다.

勿論 英米가 武力干涉을 못할것은 歐洲大戰 勃發前의 態度를보아 分明하나, 그러나 獨逸의 氣焰가 減縮된後에 英佛은 極東方面에의 活動이 大戰勃發前보다 一層 活潑할것은 明若觀火다 따라 經濟的 建設工作에도 物資難, 資金難이 當分間 繼續될지며 帝國의 決心은 一層 鞏固해저야될것이당 그야말로 長期戰, 長期建設을 目標한 大理想, 大抱負미테 英米佛蘇를 巧妙히 操縱하여 大業成就에나가야될것이다. (寫眞은 루大統領)

國際道德頹廢論
"마카베리즘"登場
列國政治의金科玉條로
① 金明權

두개의觀念이 하나의事實로서 現되는일이잇다 그러하여 國際政治는 어떠한 條件下에서 二律背反에 되는냐하는 問題가생기게된다 이것은 一種의수수께끼갓지마는 國際生活에서 누구나 經驗하는 事實인것이다.

그러면 國際道德을 말하라면 반드시 마키아베리즘이 聯想된다 그러나 이두개의觀念은 同一한것이 아니오 觀念上으로는 兩極으로 對立하는것이다 即國際道德은 善이라하면 마키아베리즘은 惡으로서 서로容納할수업는觀念이다 그러나 國際政治에잇서는 이두개의觀念은 하나로表現되어 分別을지을수 업게된다 그리고 만일國際政治家들은 누구나 마키아베리즘을 非難하지마는 저의行動은 마키아베리즘이 아닌것이업다.

그리하여 國際道德과 마키아베리즘은 國際政治에서 二律背反이되지안코 한調和하는 同律로 表現된다 따라서 國際道德을 말하면 마키야베리즘으로써 內容을 삼지아니할수업게된다 그리고 國家意識이帝國主義에서 强調되는限에는國際道德이 마키아베리즘으로 表現되는것은 必要한일이 아닐가한다勿論여기에서도 手段의 異同을 가지고는 本質의 差異를 立論치못한다.

孟子는 國內政治를 말함에잇서서「사람을죽이되 칼로써하나挺으로써하나 무엇이다르겟느냐」고 論破하엿거니와 더구나 國際政治에 잇서서는 或은武力으로써하거나或은 恫喝로써하거나或은巧智의奸策으로써하거나强者가 弱者를 侵奪하는 弱肉强食의 國際道德은 다를것이업다.

그러므로 從來國家에잇서서아담스미스를 經濟學의父라함에比하여 마키아베리를 政治學의父라하여도 異議가 업슬줄안다 그리고「아담스미스」의經濟學은資本主義의初期에잇서서 큰功績을나타내엇고 마키아베리즘은 그末期에이르러서 만흔價値를 發揮하고잇스니 年代的效用이다른것을 말할수잇스나 그러나資本主義의初期에잇서서는 마키아베리즘의 效用이 업섯든것이아니다.

元來資本主義는 經營을目的으로하고 政治로써 手段을삼은關係로 目的에置重하여 아담스미스의 經濟學이 더드러난것뿐이다 그러데 그末期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마키아베리즘이前面으로 나타낫드냐하면 目的을 追求하기어려운 事情이잇서 一層手段의 必要가切實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제마키아베리즘은 一種의手段으로서 浮動하지안코 絶大한權威를가진 科學이되게되엇다.

다시말하면 資本主義가 帝國主義로 表現되는 初期에잇서서는 目的의追求가容易하여 어디서나 植民地를發見 할수잇섯스니 마키아베리즘의 效用을 頭腦에必要할가 엇섯스마는 그의再分割時代에 이르러서는 目的의如何에서 手段이 決定되지안코 手段의如何로써 目的을 決定하게되니 마키아베리즘은 實踐道德으로해서나 行動綱領으로해서나 帝國主義의 金科玉條가되엇다. 그리하여最近資本主義諸國에잇서는마키야베리즘의 科學的體制를 組織하므로써 저와對立한 모든事物의 否定을爲하고잇다 그것은 道德觀念에서 一掃하엿다.

그러므로 從來의事實들이 마키야베리즘은 目的을爲하여 手段을가리지안는것이라 하엿지마는 지금은手段을 爲해서만 道德을部讀하는것이라할이 보다適切하지아니할까한다 바꾸어말하면 目的을爲한 手段으로서 現實性이잇는것만 道德的價値를認定하고 그러치아니한것은 무엇이나 反道德이라 하여 배격하는것이 마키아베리즘의本質이다 그러므로 그것은目的을爲하여 手段을 가리지안는것이아니요 手段을爲하여 倫理體系를 選擇하는것이면 아니된다 그리고 米國의修正中立法은 手段을爲하여 倫理를 體系한 마키야베리즘의 典型으로해서 國際的意義를가지고 잇는것은 누구나모르는바아니다.

그리하여 米國大統領 루즈벨트氏는 지난[illegible]에보낸 敎書에잇서서 新中立法의 精神을 說明하고 그의 倫理性을 强調하엿는데 이제 그 一節을 譯하여보면 「現行中立法은 米國의 傳統的外交政策과 諸外國과의 平和的關係를 破壞하엿다 그中 武器輸出 禁止條項이야말로 米國의 中立과 平和維持上 가장 危險한것이라」하여 마치내 武器輸出禁止條項을 削除해노핫다.

그러면 「武器輸出禁止條項이야말로 米國의 中立과 平和維持上 가장危險하다」는말을어떠케 理解하여야조흘가 그리고 武器를輸出치아니하면 中立도 平和도 維持할수업는가 米國은 危險한라인가아닌가 더구나 從來의中立法은 米國의 傳統的 外交政策과 諸外國과의 平和關係를破壞하엿다함은 넘우도 强辯한主張이아니냐 或은米國의武器가일직英佛兩國에 더만히 輸出되어 英佛兩國의 武力으로 獨逸을膺懲할수잇섯스면 今次戰爭이 勃發치아니하엿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가치 米國의武器를 일직英佛兩國으로 輸出치못한것은 武器輸出을禁止한中立法의 缺陷이아니다 그리고 武器를輸出치아니하면 傳統的 外交政策이破壞된다함은 米國의 外交政策의 本質을 究明에 조흔 參考가되겟거니와 그우에 그로써 諸外國과의 [illegible] 明한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러나 그主米國은 [illegible]지아니하엿고도 아모로도 [illegible] 가지고잇지아니한 모양이니 저의放縱은 [illegible]以外에 다른것이될수업다.

그리고 過去의米國은 [illegible]이엇스나 數年前 巴奈馬運河를 擴大하기爲하여 巴奈馬地峽問題에對한 行動은 어찌하엿는냐하면領土問題의 要求에 不應하는 國家에 對해서는 大軍을 動員하여 壓迫하엿는데 巴奈馬와如한國家는 强弱이不同이라 어찌할수업서 저의要求를 聽許하엿거니와 어떠한일 英佛等國이 米國의 侵略을 糾彈하고 巴奈馬를援助하엿스면 米國의面目은 보다조치못하엿슬것이다 그러나 이제米國은 蘇芬의 紛爭에 介入하여 芬蘭을援助하면서 蘇聯의 侵略을 糾彈하고잇스니 비록賢人則明이라는 말이잇다할지라도 米國의厚顏無恥는言語道斷이다. 더구나 그것은 어떠한道義感에서나온것이아니오 英國의代理行動에지나지아니하니 蘇聯을牽制하여 獨逸의優勢를 減殺하므로써 戰爭을 長期化시키려는陰謀以外에 다른것이될수업다 그리고 蘇芬紛爭은 巴奈馬에對한米國의行動과는 다른것이 잇지아니한가한다. (續)

諸官廳各銀行會社御用
和洋諸紙 文房具 和洋帳簿 各種印刷
健愛堂
崔健鎭
京城府[illegible] 電話光化門③[illegible] 振替口座京城[illegible]

神經科 內科 專門
醫學博士 李重瀲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番地

白松藥局
京城府體府町三四

朴吉龍建築事務所
電話光化門一五六四番
京城府公平町五九番地

朝日洋服店
主 張世均
京城府鍾路二丁目十一番地
電話光一八三九番 振替京城六九三六番

賀正

張電氣商會
張聖雲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七七
電話光③二四四七番

京城鍾路
博文書館

式場貸式 新化衣裳
萬花堂禮式部
西大門町一丁目八五
電光③二〇九三

文化의使者 印刷와製本
彰文印刷株式會社
取締役支配人 具本雄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電話 光化門 一二三三番

白商會

朝鮮起業株式會社
京城府鍾路一丁目七一番地
電話光③[illegible]

興一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一三番地

東小門藥局
藥劑師 劉榮圭
京城府惠化町二二
電話光③三五五三番

朝鮮總督府出版敎科書指定販賣所
一番正シイ標準大辭典全科
春園李光洙傑作選集
朝鮮作家名作全集
內外新刊新舊小說都散賣
雜誌·運動具·文房具
永昌書館
京城府鍾路二丁目九八番地
電話光化門③一五三二番
振替口座京城六二三二番

電機 ラヂオ
光云商會本店
京城蓬萊町一丁目八三(京城驛前)
電本三〇六五番

鎭痛劑「パンタリン」製造發賣元
三龍製藥社
尹錫弘
李鳳熙

朝鮮內外映畵配給業組合

鳥網 兎網 鴨網 各種 其他漁具一式
御商 海 海鮮商會
京城府黃金町四ノ
振替口座京城二〇五七九

大京齒科醫院
院長 安鍾書 高啓薰 蔡禧鎔 李龍基

文章社
(京城·韓青빌딩)三層
電話光 一六二七番
振替京城二五〇七〇番

瑞西强壯劑國産ノイエトニク
注射藥製造ノイエ製藥所
處方調劑 賣藥·化粧品 衛生材料 藥品相談
京城藥局
京城鍾路一丁目八七(光化門郵便局前)
電話光③四三五五
振替京城八三一六七番

物心兩面의總力動員
新秩序建設에奮進
興亞의偉業完遂切迫

對支事變의 勃發을 보게된지 어느듯 二年有半의 歲月이 흘럿스나 國民政府는 依然 抗戰을 繼續하고잇다 그러나 至今 皇軍將兵이 내어쏘는 一發一發의 彈丸은 東亞新秩序建設의 在據를 알려주는 힘찬警鐘인을 어찌하랴 支那는 北、中、南部나 要衝地方이 모두 東亞新秩序의 一環으로서 更生하고잇다 事變은 따라서 單純한 日支戰爭이아니오 東亞再建을 目標하는 歷史的인 曠古의 偉業이오 眞正한 聖戰인것이다.

이 聖戰의 意義를 達成키爲한 興亞國策의 大綱은 이미 近衛內閣時代 御前會議에서 決定되엇고 그 槪貌는 近衛聲明에 依하여 示唆되어 興亞의 歷史에 不朽의 光輝를 던지고잇거니와 事變이 本格的 長期建設期로 移行됨에따라 國內의 政治、經濟的性格도 必然的인 變化를 밧게된것은 事實이다 [illegible] 從來의 自由主義的 功利主義的인것은 完全히 그림자를 감추고 文字그대로 全體主義的인 方向으로 全面的移行이 完了되고 財政經濟産業等政策과 行政이 또한 完全히 戰時體制의 强化를 目標하는 國家統制下에서 一絲不亂으로 運行되고잇슴다.

[illegible] 無統이라하겟다. 阿部內閣은 [illegible] 少數物價統制를 撤廢하고 貿易省新設과 官吏身分保障令撤廢斷行을 無期延期는 하엿슬망정 急迫한 國際情勢의 近情을 살펴 重要國防財源의自給自足을 實現하고저 生産力擴充計劃實行을 促進하는同時에 各種經濟部門에 亘하여 日滿支를通한 綜合計劃을確立하는한便 物資動員을 整備하며 物價統制를 徹底히하고 勞務의需給을 調整할뿐 만아니라 國家總動員體制를 더욱强化하는同時 特히 首相의 總動員指揮權을 强化한點은 特筆할만한 處事이엇다.

그리고 國政에對하여 國民의 支持協力을 求하고저 [illegible] 各政黨의 黨首와 月二回定期的으로 會見하여 國政을 相議하기로한것은 國家와國民을爲하여 欣快事인同時에 大乘的인 擧措라아니할수업다.

이가치 阿部內閣은 歐洲戰爭에는 絶對不介入方針을 明示하고 압서刷新決定된 確固不動의 對支根本方針을 堅持하고 近近誕生될 汪兆銘氏의 支那新中央政權의 成立을 援助하여 이와 協力 事變處理完遂에 國家의 總力을 傾倒하고잇는것이다.

(寫眞은 上으로부터 近衛公、平沼男、阿部首相)

事變處理를標榜
阿部內閣、新舞臺에
近衛에서平沼로平沼에서阿部로

近衛內閣의退陣…昭和十二年六月 林內閣의 뒤를이어 政界收拾役으로서 擧國的支援下에 登場한 近衛內閣은 國內政情의 不安緩和 各層의 摩擦抗爭의 解消를 第一義的使命으로 所謂平和內閣의 組織을目標로 成立되엇던만큼 意外에 勃發된 支那事變은 近衛內閣에 豫想치안흔 重大責任을 지워 [illegible] 此間一年有半 各種方策을考究하여 戰爭遂行에 努力하엿스나 戰局이 長期戰化하매 內外가呼應 長期建設時代로 轉換케되자 內로는 [illegible] 國內革新政策의 實行이 困難케된데다 長老閣僚로 크게期待되던 宇垣外相이 對支中央機關問題로 突然辭職케되어 致命的 打擊을 밧게된後에 外로는 戰局이急進 武漢三鎭과 廣東攻略이 完成되자 戰局은 一大轉機를 劃하여 事變은 完全히 新段階로 移行케되엇다 卽戰爭中心에서 東亞新秩序建設期로 移行케되자 이를 機會로「新事態下에는 新內閣에 依한新構想」의 必要를 力說하고 一月四日마침내 總辭職을斷行 責任을 平沼內閣에 引繼시키고 말엇다. 이보다압서 御前會議를 開催 對支國交調整根本方針을決定하여 中外에聲明한 所謂「近衛三原則」은 今日까지 帝國의 對支方策으로 되어 잇는것은 周知하는바와갓다.

平沼內閣의掛冠…一月四日第七十四議會 休會中에 突然總辭職을하게된 近衛內閣의뒤를바더 成立(五日에)된平沼內閣은 施政根本方針의 核心을 萬民輔翼의 總親和政治論에두고 事變處理方策에 對하여는 一切近衛內閣時代에 決定된 大方針을 踏襲하고 對第三國關係에 잇서서는 日獨伊防共協定 强化에全力할것을 聲明하여 國民의 支持를바더오든中 八月二十三日 千萬意外에 獨蘇不可侵條約成立으로 同月二十八日 組閣後八個月만에 드디어總辭職을 하게되엇다. 辭職하게된經緯로말하면 日獨伊防共協定이 締結되어 所謂樞軸外交時代에 들어갓을때 獨逸로부터 防共協定에서 一步를더나가 樞軸協定의 締結을 提議하여오게되어 五相會議에서 討議하기無慮七十餘回 昨年五月二十日의 五相會議에서 비로소意見의一致를보아 六月五日閣議決定、首相으로부터 內奏하여 所謂『對歐策』이 決定되엇다. 그러나 이가치決定된『對歐策』의內容에 對하여 獨逸政府側에서는 不滿을 [illegible] 하므로 平沼首相은 히틀러總統에게 親電까지보내엇스나 꼿꼿내 意見의合致를 보지못하고 [illegible] 苦心하던中 八月十九日 獨蘇通商協定이 成立되고 繼續하여二十三日에는 兩國間에 不侵略條約까지 調印됨에미처 防共樞軸協定의 相對國은消失되고 말엇다 이에平沼內閣은 [illegible] 輔弼의責任과 國民에對한 政治的責任에서 [illegible] 다시말하면 平沼內閣은 『複雜怪奇』한 新情勢 [illegible] 必要하다」는것이下野의 理由이엇다.

阿部內閣의誕生…이가치 平沼內閣의 引退는 全혀獨蘇接近의 影響에 依한것이므로 따라서 後繼阿部內閣은 平沼內閣과 外交上『別途의政策을樹立』하고『國內體制를整備하여 外交의機軸』을 革新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當然한理由가잇는것이니 九月十三日 阿部內閣이 聲明한 政綱政策의 根本要點卽『政策의 中核을 事變處理에두고 外交는 自主的立場을 固持하여 複雜微妙한 國際情勢에 對應하며 內로는 軍備의充實、基本國力을培養하여 內外諸般施策을 이目的으로 統合集中시켜 써日滿一體의實을擧하여 日支新關係의 實現을期한다』고한것은 차라리當然[illegible]

事變處理

現地軍統率鐵壁陣
支那派遣軍總司令部創設

事變이 重大轉換期에 逢着되고 作戰은 全支에 亘하게되매 이에따른 諸般施策도 必然的으로 一層强力且綜合的運用이 要請되던 이즈음 陸軍에서는 드디어 昨年九月十二日 支那派遣軍 總司令部를 編成하고(十月一日 南京에設置) 總司令官으로 하여금 支那派遣軍인 在支諸軍을 統率시켜 對支戰爭 遂行態勢에 千斤의 무게를 더하게하여 事變處理의 劃期的成果를 거두게하엿다 [illegible] 總司令官에는 教育總監이던 西尾壽造大將을 總參謀長에는 前陸相 板垣征四郞中將을 任命하는 一方 關東軍司令官 植田謙吉大將後任에는 軍部內最高長老級의 梅津美治郞中將을 起用한것은 特筆할 事實이어니와 이가치 大陸第一線國防에 挺身하는 關東軍과 支那派遣軍首腦의 二大主軸을 編成하여 陣容의 一新同時에 淸新潑剌性을 具現케한것은 特히注目되는 事實이잇다.

支那派遣軍 總司令部設置는今回가 처음이아니오 두번째이니 第一次는 日露戰爭時의 滿洲軍總司令官에 大山巖元帥、總參謀長에 當時陸相(內相、文相을兼任)이던 兒玉源太郞大將이 各其任命되엇던것이 잇섯던것으로 此間四十五年 當時나現今이 다가치國家總動員의態勢에잇서 前으로는明治三十六年 六月十二日 [illegible] 昭和十四年 九月十二日 [illegible] 二十世紀中에 決行될 劃期的 [illegible] 對照를 일우고잇다 當時 大山元帥는 六十二歲 兒玉大將은 五十三歲이엇슴에對하여 今回는 五十九歲와 五十五歲의『콤비』로서 [illegible] 西尾將軍과 [illegible] 板垣將軍은 興亞의偉業을 使命으로 [illegible] 大軍을 叱咤하면서 聖戰完遂에 一路邁進하고잇다.

(寫眞은 西尾總司令官과 板垣總參謀長)

外國援助도無望
蔣政權氣息奄々
雪上加霜으로國共分裂自家騷動

南京으로부터 重慶에遷都 一百四十師 百五十萬大兵으로 [illegible] 一千萬弗의 補助를 하고 그리고 또 武漢三鎭 [illegible] 그뿐아니라 沿岸各地 [illegible]

[illegible] 이라는것이 一般的觀測이다. 大戰勃發로 列國은對支援助에미처 손을 쓸랑사이가업슬뿐아니라 도로혀 日本과 가튼 大國을 敵으로 삼는것은 매우 不利하다고 생각하고잇는形便이다 이것은 蔣介石의便으로보면 武器輸入또는 經濟援助上에잇서 對外國依存關係를 持續하지안흘수업는 [illegible]

[illegible] 態度가 나타나고잇다한다. 歐洲戰亂으로 蘇聯도 支那에對한關心을 從前대로는 가질수는업슬것이나 그러나 歐洲戰亂에對한 蘇聯은 最小의犧牲으로 손쉽게 큰 效果를거둘수잇는 [illegible] 그뿐아니라 [illegible] 共産黨으로서는 適當한機會에 國民黨의下野를 [illegible] 支那共産化의本色을 나타내일것은 明白한일이다 따라서 各地將領의 反共運動과 共産黨의 高壓的態度는 이必然的 運命을가진 國共分裂을 促成시키는것이 아닌가 보인다.

國內體制

統制、動員의連發
總動員法의全面的發動

國家總動員法이 昭和十三年四月一日에公布 五月五日부터 內外地를 通하여 一齊히施行된以來 滿一年半 戰時體制의 進展에따라 緊急하고 認定되는規定은 逐次發動되어온結果 制定當初 [illegible] 物議가만튼 이法律도 이제는 國民의日常生活과 密接한關係를 갖게되엇다.

그間總動員審議會를 開催하기六回에 制定된勅令案은 二十三件에達하는바 그中勅令으로 이미公布施行된것이 十五件 閣議決定되어 近近公布키로 決定된것이八件이다. 이미發動된것과 또는發動되려는 條項을列擧하면 總動員業務(第三條) 國民徵用(第四條) 勞務統制(第六條) 總動員物資의 使用收用(第十條) 利益配當制限(第十一條) 土地工場家屋工作物의 管理使用收用(第十三條) 事業設備의新設擴張(第十六條) 國民登錄制(第二十一條) 總動員業務者養成(第二十二條) [illegible] 計畫設定規程(第二十四條) 試驗研究(第二十五條) 補償規程(第二十九條) 審議會官制(第五十條)等十三個條에 達하고잇다.

그리고 戰時緊急을要하는것은 臨時立法을 制定適用하여왓는데 特히 臨時資金調整法을 强化하여 重點主義를 確立하고 生産力擴充計劃에關係잇는 事業인지라도 物資不足에鑑하여 一定한事情이 잇는境遇에는 資金의貸出을 制限하여 統制經濟의 重點主義로 移行한것은 周知의事實이다.

이미發動을본 總動員法中 特記할만한것을 든다면 昨年七月十五日부터 施行된 國民徵用令(第四條)은 人的總動員體制를完成한 劃期的 立法이오 昨年四月十日부터 實施되어 一時財界의波瀾을 惹起하던 會社利益配當制限(第十一條)은 [illegible] 制限(一割以上은制限)及 資金融通令(第十一條)은 가장 直接的 效果를 거두고잇스며 現在厚生省이 熱心히努力하고잇는 第六條關係의 勞働統制와 商工省中心으로한 第十條 第十三條의 總動員物資 施設의使用 收用과 遞信省의 船舶技術者養成等으로 效果가 크게期待되는것인데 特히 價格統制의 應急的措置로서 總動員法 第十九條를 樞軸으로 發動된 勅令은 綜合的物價政策의 斷行으로서 價格 運送賃 保管料 保險料 賃貸料 加工賃 金及 給料에對하여 九月十八日 現在額(朝鮮은 家賃及 地代는昭和十三年十二月三十一日)으로 引上禁止를 斷行하여 戰時低物價를 强化한것으로(昨年九月二十日發動 期間은一個年)이 亦是 劃期的立法이라 할것이며 使用 收用을規定한 總動員法第十條와 戰時貿易政策遂行에 緊要한 第八條의發動等은 總動員法의 全面的發動에 拍車를加하는 重要論點이라 할것이다.

以上은總動員法發動의 槪略인바이가치 生産力擴充 輸出振興等에 全力하여 軍需를充足시키는 同時에 勞務 物資 資金等을調整하여 聖戰目的 完遂에邁進한 國內經濟體制를 整備强化하게되엇다.

◇南潯鐵道開通式◇

"新秩序建設" 對第

"近衛聲明" 全文

政府는 今年十月의 聲明에서 明示한바와가치 終始一貫 抗日國民政府의 徹底的 武力掃蕩을 期하는同時에 支那의 同憂具眼의士와 相携하여 東亞新秩序의 建設을 向하여 邁進하려한다 方今 支那各地에서는 更生의 氣運이 이러나고 [illegible] 이에 政府는 更生新支那의 關係를 調整하려 그 根本方針을 中外에 闡明하므로써 帝國政府의 眞意를 徹底하려 期하는 바이다.

日滿支三國은 東亞新秩序의 建設을 共同의 目的으로하여 結合하고 相互間에 善隣友好 共同防共 經濟提携의 實을 擧하려한다 이것을 爲하여서는 支那는 先次 [illegible] 抗日의 愚와 滿洲國에 對한 拘泥의 情을 一擲하지 아니치 못하다 卽 日本은 支那가 自進하여 滿洲國과 完全한 國交를 [illegible] 要求한다.

다음으로 東亞의天地에는 콤인테른勢力의存在를 不許하는 故로 日本은 日、獨、伊防共協定의 精神에 則한 日支防共協定의 締結로써 日支國交調整上의 緊要件이라고 斷定한다 그리고 支那에 現存한 實情에 鑑하여 이防共目的에 對한 充分한 保障을 擧하기 爲하여는 同協定 繼續期間中 特定地點에 日本軍의 防共駐屯을 認定할것과 內蒙地方을 防共地域으로할것을 要求하는것이다.

日支經濟關係에對하여는 日本은 何等支那에서 經濟的獨占을 行하려는것이아니며 또新東亞를 理解하고 이에卽應하여 行動코저하는善意의 第三國利權을 制限코저 함과가튼것을 支那에잇서 求하는者가아니다 다못어디까지 日支提携와合作을 實効잇도록함을 期하는者이다 卽日支平等原則에서서 支那는帝國臣民에 對하여 支那內地에잇서의 居住와 營業의自由를 容認하여日支兩國民의 經濟的利益을 促進하고 또日支間의歷史的關係에 鑑하여 特히北支及內蒙地域에서는 其資源의開發 利用上日本에對하여 積極的으로便宜를 與함을要求하는바이다.

日本이支那에 求하는바의 大綱은 以上과如한것이다 日本이 大軍을動員시킨 眞意에徵하면 日本이 支那에求하는것은 區區한 領土가아니오 또 軍費賠償에잇는것이아님은 스스로分明하다 日本은 實로 支那新秩序建設의分擔者로서의 職能을實行함에 必要한 最少限度의 保障을 要求코저하는者이다 日本은 支那의主權을 尊重함은勿論 나아가支那의 獨立完成을爲하여 必要한 治外法權을 撤廢하고 또租界返還에 對하여 積極的考慮도 不辭하는 바이다.

[illegible] 것이다 政府가 [illegible] 第三國의 權益을 尊重한다는 聲明을 [illegible] 發表하는 同時에「事變前의 事態에 適用하던 觀念乃至 原則을가지고 그대로 現在及 今後事態를 律하려함은 何等當面의問題를 解決하는 所以가아닐 뿐아니라 東亞恒久의 平和確立에도 資하는바가아니라」고하며 또는「東亞로부터 各國의 經濟活動을 全然 排除하려고 생각지안는다 그러나 資源이貧弱한 日本으로서는 [illegible] 支那와 互相扶助하여 必要物資의 自給自足과 生産物의 [illegible] 市場確保를 [illegible] 必要不可缺한일로 [illegible] 支那에서의 第三國의 經濟活動은 新體制에依하여 結合되는 三國의 國防及經濟 [illegible] 必要[illegible]

京城組合銀行
株式會社 朝鮮銀行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株式會社 第一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安田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三和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株式會社 漢城銀行
株式會社 東一銀行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京城會社團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社
朝鮮鐵道株式會社
株式會社朝鮮取引所
朝鮮郵船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不二興業株式會社
日滿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信託株式會社
株式會社 住友本社 京城販賣店

朝鮮取引所
證券取引員組合

株式會社 **大澤商會** 京城支店

三國商會

住宅經營 一般設計 不動産仲介 不動産賣買
京城府鍾路二丁目八(長安ビル內)
朝鮮工營株式會社
電話光化門③三一二七番

朝鮮映畫株式會社
朝映議政府撮影所
本社 京城府瑞麟町一二八番地
電話光化門③三一四四番
撮影所 京畿道議政府龍淵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四二
電話光化門〈二一四一五 七四九〇 八三一〉

京城府長谷川町二十一番地
(富士ビル內)
合同産業株式會社
電話本局② 〈六〇二六 〇四六三〉番
電略 (コサ)又ハ(コウサン)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七
東亞商事農具部
電話本局五四四四番

京城府北米倉町九三ノ四〇
鮮滿拓殖株式會社
總裁 二宮治重

京城自動車交通株式會社
三四[illegible]七番

方針의 解剖

"近衛三原則"을 基礎로 新中央政權誕生態勢
汪兆銘氏의 和平運動大進捗

[illegible] 甘肅、[illegible] 一部이다。 이[illegible]地方의 總人口는 二億以上을 算하고잇는데 戰爭에서 二百三十萬이란 엄청난 大兵을 잃어버린 蔣介石으로서는 이 兵力補充問題는 非常히 큰 問題일것이다 勿論 이 二億人口를 거나리고잇는 蔣介石으로서 그 兵力補充에 그다지 困難이 업슬것이라고 斷定치는 못하드라도 武漢에서 敗退한後 겨우 九十萬으로 減下되엿던 正規軍을 벌써 [illegible]

[illegible] 에잇는 [illegible] 四川의 [illegible] 이기는하나 이것을 開發하는데잇서서는 現在의 蔣介石으로서는 아모리 產業移轉([illegible])에 主力을 하엿다 하드라도 外國資本과 技術에 依賴치안흘수 업슬것이다。 英國과 佛國、米國과 蘇聯은 先後를 다투어가면서 資本과 軍需品其他有形無形으로 蔣介石을 援助하어왓다 特히 英國은 [illegible]

[illegible] 所謂 [illegible] 事件이다。 이러는사이에 [illegible] 歐洲 [illegible] 지난九月初에 歐洲大戰이 再發하엿다。 이歐洲戰爭은 帝國의 [illegible] 有利하고 이와反對로 蔣政權에 對하여는 大打擊 [illegible]

[illegible] 一層 [illegible] 가튼 [illegible] 中國共產黨의 國民黨에 對한 [illegible] 共產黨의 [illegible] 이다。 [illegible] 共產黨이 [illegible] 에 對하여 重大한 [illegible] 火線으로 主戰派、[illegible] 共產黨 [illegible] 共通된 [illegible] 反共 [illegible] 主義的으로 不相容인 [illegible] 力을 다하고잇고 共產黨이 [illegible] 共合作關係에 [illegible] 모양이다。 이러케 하여 [illegible] 蔣政權의 政治的 [illegible] (寫眞은 蔣介石)

汪兆銘氏

武漢三鎭과 廣東을 陷落시키고 日本全土의 二倍半이나되는 占領地域을 가지게된 帝國은 一面 이 地域內에서는 新東亞建設工作을 進行시키고 他方으로는 應戰主義를 取하엿다。 當時首相 近衛公은 昭和十三年十二月二十二日 支那事變處理에 對한 重大聲明을 發表하엿는바 이것이 善隣友好、共同防共、日支經濟提携等 原則을 骨子로하고 支那具眼之士와 協力하여 [illegible] 帝國의 決意를 [illegible] 것이다。 이聲明에 呼應하여 汪兆銘의 新支那中央政權樹立運動은 開始된것이다。

重慶脫出以來 여러번 蔣介石에 對하여 和平救國을 勸告하여오던 汪兆銘은 昭和十四年 七月十日 드디어 蔣介石과 斷乎絕緣하고 自己가 主動者가되어 和平救國運動에 나갈것을 宣言하엿다。

爾來、汪을 中心으로한 新中央政權運動이 進行中인데 이政權의 政治的目標는 全然上述한 近衛聲明에 一致되는것은 勿論이다。

新支那中央政權을 樹立함에잇서 汪兆銘은 먼저 그核心이될 國民黨의 再編成과 蔣介石에게 歪曲된 三民主義의 修正을 必要로하엿다。 昭和十四年八月二十八日부터 三十日에걸처 上海에서는 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가 열니엿다 이大會에서 汪은 擁戴되어 主席이되고 正統派國民黨의 新政綱도 決定되엇다。

이政綱은 將來誕生될 新中央政權의 政綱이되어잇서 重大한要素가될것이므로 다음에 그主要綱目을 列擧한다。

即 一、國家生存及中國獨立의 機會에 基한 睦隣政策의 勵行 二、非共產主義國家와의 聯合共同에 依하여 第三國際共產黨의 陰謀防止 三、友邦의 正當權益尊重及이와의 關係調整 四、平等互惠의 原則에 基한 友邦과의 通商條約修訂 五、各友邦의 資本及技術의 合作에 依한 經濟回復及資源開發 六、略 七、國民大會召集、憲法公布實施 八、略 九、軍隊의 國軍化、遊擊隊解散 十、幣制整理、銀行制度確定等以下省略

이와同時에 이大會는 大會宣言을 發表하여 當面問題인 日支防共協定締結、互惠平等原則에 基한 日支經濟提携、其他滿洲問題의 合理的解決及內蒙의 特殊防共地域化하는데對한 [illegible] 하여 根本그政策等을 闡明하엿다。

이劃期的 國民黨第六次大會와 이어서서 九月五日에 열린 中央執監委員會에서 汪兆銘은 正統派國民黨主席의 地位로 當時南京에 모혓던 臨時、維新兩政府의 主席인 王克敏、梁鴻志와 九月中旬에 所謂三巨頭會談을 열엇다。 이會談에서 三日間에 新政權樹立의 基礎的問題에 關한 意見交換이잇섯는바 그原則的意見에잇서 一致을보앗다。 뒤를이어서 新政權樹立運動은 新中央政權의 胎盤이될 中央政治會議의 組織을 目標로 一路進行되고잇는 [illegible]

[illegible] 大體 이政權樹立에對한 帝國의 態度는 어떤가 이新政權樹立運動이 처음부터 近衛聲明에 對應한것이고 또帝國의 [illegible] 新中央政權의 成立을 絕對로 必要로하는 [illegible] 支援하는 態度를 가지고잇는 [illegible] 지난十月三十日에 西尾支那派遣軍總司令官、板垣同參謀長은 汪兆銘과 會見 軍의 積極的支持를 闡明하고 十一月中旬에 阿部現內閣은 帝國政府의 積極的支援을 聲明하여 그迅速成立을 希望하엿다。

그와가치 帝國朝野의 絕對的支援을 밧고잇는 이新政權樹立運動은 果然 支那事變處理에는 어떤 關聯을 가지고잇는가 即 이新政權이 成立되면 支那事變處理는 곳 終了되느냐 아니되느냐하는 問題인데 이에對하여 新政權樹立은 다만 事變處理進行上에 잇서서의 重大且有利한 "모멘트" 이지만 이것이 곳 事變處理의 終了를 意味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政府當局의 意見이고 輿論이다。

國關係調整 ―으로

對第三國關係

東亞新秩序建設은 [illegible] 帝國의 根本國策이다 따라서 對第三國關係도 이根本國策을 中心으로 [illegible] 善隣友好 共同防共 經濟提携의 三原則을 實施하려면 첫째 [illegible] 植民地的地位를 離脫케할것 셋째 門戶開放 機會均等主義도 無制限일수업고 支那의 自主와 自主에必要한 國防上의 基本的要件으로 [illegible] 第三國의 [illegible] 自然히 [illegible]

東亞新秩序는 東亞의 共同防衛 [illegible] 共同經濟의 [illegible] 新東方文化의 [illegible] 帝國主義的 [illegible] 排除 [illegible] 日本帝國의 [illegible] 第三國에 對하여 [illegible] 東亞新秩序建設은 [illegible] 帝國政府의 [illegible] 根本方針을 [illegible] 것이다。

[illegible] 沿岸封鎖工作이잇다 이것은 外國에 依存하지안흘수 업는 蔣介石의 對外依存政策을 水泡化하려는데 그意義가잇다 汕頭、舟山島、福州、溫州、岱山島、興化、三都澳、鎭海、潮安、汕尾、泉州、銅山、沙埕等中南支各港이 完全히 封鎖된것은 蔣介石에 對하여 一大打擊을 주엇음은 勿論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列國과 困難한 諸問題를 惹起케 하엿다 租界問題가 그主要한것이다。

東亞協同體理論
그發生的動機와 論壇動向

李 [illegible] 燮

(寫眞은 筆者)

歷史的大事件인 支那事變도 그 當初에잇서서는 누구나 오늘의 事態를 豫想치 못하엿다는것이 事實일것이다 그러므로 當時의 事變觀乃至 그 處理策으로 豫想되던方法도 亦是 舊態依然한 日滿支經濟思想의 範圍를 크게 넘는것이 아니엇다 支那大陸이 發展하는 日本의 經濟市場으로서 또原料供給地로서 그리고 그地域의 어떤部分이 國防上必要에依하여 特殊化되어온것은 滿洲事變以來의일이거니와 事變初期에잇서서 한때 事變解決의 範圍를 北支에만 局限시키려고한때도 勿論 이思想이 그底流를 이루엇던것이다 그리하여 無盡藏의 石炭과 鐵 世界首位의 [illegible] 『안티모니』가 關心의 焦點이 되어잇고 大陸建設의 問題는 [illegible] 資源開發問題에 그重點이 노인 感이 잇섯다 그러나 戰線이 南京에서 徐州로 徐州에서 武漢三鎭 여게서 다시 南支로 擴大되는동안 支那天地를 [illegible] 이것을 基礎로한 舊型經濟思想은 支那의 現實에서 [illegible] 斷崖에 直面하게 되엇다 資源開發에는 資金과 아울러 治安確保가 그先行條件이여야 할것이다 모든가 至難한 問題이엇다 尾崎秀實氏가 明瞭히 指摘한바와 가치(東亞協同體의 理念과 그成立의 客觀的基礎 中央公論 十四年一月) 한마디로 말하면 資源追求主義는 支那의 民族問題에서 斷崖에 부듸치고 말엇다 氏에 依하면 [illegible] 支那社會의 二大特質로 半封建性과 半植民地性을 들고 잇고 또 때로는 이것이 過大評價되는 反面 보다도 一般的이오 普遍的인 民族問題가 오히려 看過되기 쉬웟다 支那에 잇서서의 最大問題는 實로 이民族問題인것으로서 그動向은 抗日戰線의 基本인 國共合作에서도 볼수잇고 日本의 支持下에 成立된 新政權의 首腦部와 및그 住民에게서도 發見할수잇다 抗日支那가 貧弱한 經濟力과 不完全한 政治體制와 그리고 劣勢한 軍隊로써 어찌되엇던 오늘까지 抵抗을 繼續하여 온다는 수수께기는 오로지 이 問題에 잇다 帝國이 武力으로써 支那大陸을 地域的으로 敵과 帝國편의 두部分으로 分割시킨다하더래도 이問題만은 兩地域의 共通된 問題로 오래 남을것이라고 한다。

이와가치 資源追求主義乃至 舊型經濟思想이 자칫하면 看過되기쉬웟던 支那民族問題에 부듸첫을때 이問題는 새로운 檢討를 要求하엿다 그리하여 그結果로 생겨난것이 바루 東亞協同體論이엇다 東亞協同體思想은 이러케 事變進展의 한복판에서 그歷史속에서 實로 苦悶하는 東亞百年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誕生된 『東亞의 아들』이엇다 [illegible] 『東亞의 아들』 協同體論은 어느듯 政治、經濟、文化의 各方面으로 浸潤하엿다 特히 帝國의 支那에 對한 要求가 領土도 아니오 償金도 아니오 다만 東亞諸國을 連結하여 참된 道義的基礎 [illegible]

[illegible] 近衛聲明이 發表된以後에는 이思想에는 [illegible] 이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事變初에잇서서는 [illegible] 三木淸氏는 現在日本이 大陸에 [illegible] 事變의 [illegible] 歷史는 [illegible] 世界史的意味를 [illegible] 東亞協同體論은 [illegible] 東亞 [illegible] 世界史的意味를 賦與하려고하엿다。

更生一周年을 祝福하는 아드바룬(漢口)

皇軍作戰의 新生面
破壞에서 建設로 占領地確保에 注力
遊擊隊粉碎一方敵輸血路도 積極遮斷

現地工作

近衛聲明이 發表되고 新政權樹立運動이 新展開를 보이게 되자 建設을 主眼으로하는 帝國側의 軍事的作戰과 이建設妨害에 全力을 傾注한 蔣介石의 作戰은 戰爭의 相貌를 一變시켯다 即從來의 正規戰에依한 大遭遇戰을 極力 避하고 蔣介石은 側面戰背後戰으로 轉換하고 主로 遊擊戰으로 對抗하는 同時에 所謂敵後建設을 開始하엿다 이敵後建設은 我占領地域內의 治安을 擾亂하고 僞政府等을 設置하여 民衆의 敵愾心을 鼓[illegible]

[illegible] 新秩序建設을 妨害하는 目的을가진 [illegible] 背後工作이다 이러한目的에서 我占領地域內와 周邊에 殘留하고잇는 殘留部隊와 遊擊隊를 總動員하여 反擊하여왓다 이에對하여 廣大한 占領地域의 確保를 目標로한 皇軍의 軍事工作과 新東亞建設工作이 꾸준히 繼續되고잇다。

即中支戰線에서의 廬山山系、武漢掃蕩戰과 南昌攻略戰은 [illegible] 에서 敗退한後 我占領地內에 殘留하고잇던 敵殘兵을 對象으로한것이고 山西地區掃蕩戰은 [illegible] 共軍을中心한 山西省潛入敵의 掃蕩戰이고 [illegible] 山東省內에서 泰山山脈에 依據하여 治安擾亂을 일삼고잇던 于學忠軍十萬大兵을 對象으로한 掃蕩戰이엇섯다。

以上掃蕩戰으로보아 敵은 아직도 相當數字의 大軍을 가지고잇는것을 알수잇다 그主要한 掃蕩戰의 敵兵力을 보면

一、山西省內殘敵ー省南部에는 中央軍、陝西軍 四川軍合十數師 西部에는 閻錫山軍十個師 朱德麾下共軍 二十五、六師 [illegible] 敵은 十六個師十九萬 二、中支方面ー南昌作戰(三月二十日開始) 敵은 [illegible] 個師 四月에 [illegible] 陷落에서의 [illegible] 은 廿個師 [illegible]

[illegible] 十萬 [illegible] 의 [illegible] 이라는 宏壯한 數字에 [illegible] 그러나 이러케大軍을 相對로 [illegible] 戰爭이 不過旬日로 終了되는 것은 迅速果敢한 [illegible] 因이겟지만 그보다도敵이 正面遭遇戰을 避하고 側背戰또는 遊擊戰 [illegible] 으로부터 [illegible] 이에對하여 占領地域內의 [illegible] 所謂點과 線을 [illegible] 目標로한 [illegible] 이 [illegible]

[illegible] 作戰이 [illegible] 一月十五日에 開始된 北海作戰 [illegible] 南寧 [illegible] 나라 我占領圈을 擴大한點으로 [illegible] 그積極作戰 [illegible] 廣西省內로進展하여 [illegible] 昨年中의 [illegible] 作戰으로 [illegible]

主力을 [illegible] 證明하는것이라할수잇다。

北支開發과 中支那振興

[illegible] 이엇다고 말할수잇다。(寫眞은 及川支那艦隊司令長官)

▲北支開發會社
資本金三億五千萬圓
目的事業 一、交通運輸及港灣에 關한 事業 二、通信에 關한 事業 三、發送電에 關한 事業 四、鑛產에 關한 事業 五、鹽의 製造、販賣及利用에 關한 事業
關係會社
1、華北交通會社
2、華北電信電話會社
3、龍烟鐵鑛會社
4、興中公司
5、華北鹽業會社

▲中支那振興會社
資本金一億圓
關係會社
1、華中鑛業會社
2、華中水電會社
3、上海內河會社
4、華中電通會社
5、上海恒產會社
6、華中水產會社
7、華中自動車會社
8、大上海瓦斯會社
9、華中鐵道會社
10、淮南炭鑛會社
11、中支蠶業會社

株式會社 辻本商店 京城

京畿道高等官、食堂員一同

東部醫院 崔晚鏞 京城府鍾路五丁目五〇 電話光化門二七七七番

朝鮮火藥銃砲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五ノ二八

高麗ホテル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番地 高弼權 電光③二二五七番

興亞自動車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四八 電話本局②四六八九番

京城府東大門市場 不老草キャラメル製造本舖 成聖商會本店 電話光二五一二番

(株)株式會社京城荷主組 支配人 金瑛鎭

三銅商店 銅鐵商 朴弼允 京城府蓬萊町一ノ一六 電話本局②一四四二番 工場 永登浦

洙先鐵工所 裵洙先 京城府黃金町二ノ八九 電話本局②一九一五番

朴求玉 京城府鍾路三ノ七一

株式會社 朝鮮機械製作所 [illegible]川町二十一番地([illegible]) 電話本局②代表八一三六番

京城府鍾路二丁目 韓靑ビルヂング事務所 電話光化門③二〇七番

松下電器產業株式會社專賣代理店 京城府鍾路二丁目五〇番地(パコダ公園前) 電氣器具ラヂオ卸商 三和電機商會 電話光化門③一六九五番 振替京城二六七六六番 營業所 [illegible] 支店 [illegible]

興亞自動車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ノ一四八

京城商業實踐學校 校主 內田鯤五郎 校長 今野道夫 金湖町山十六番地 電本七四二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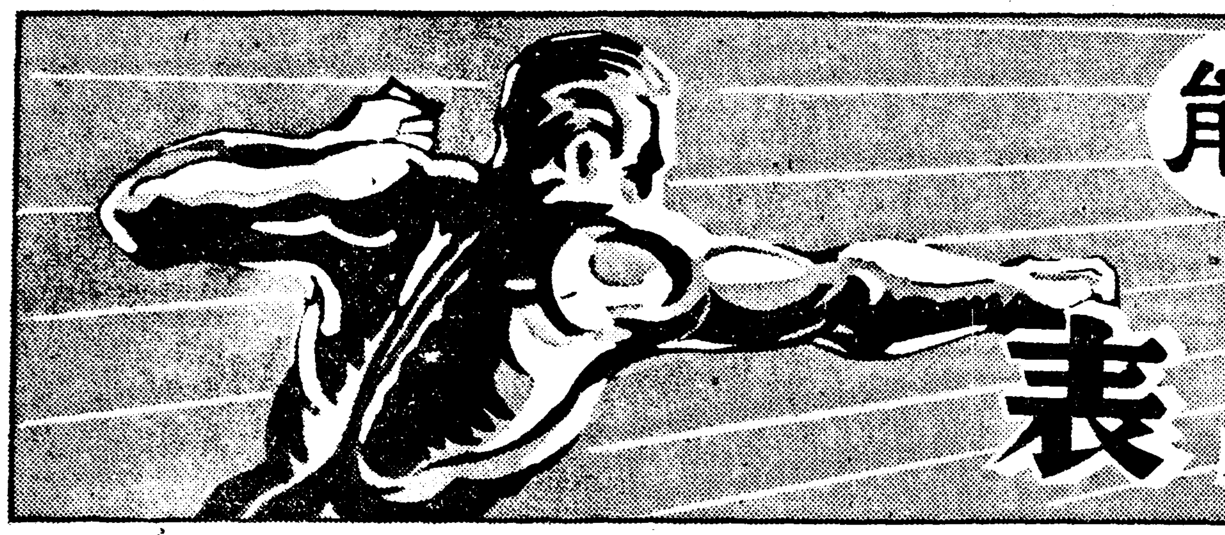
金泰彥 東亞金銀商會 電話光化門一一二三番

紙物問屋 全北紙物商會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話(光)一四〇

京城府太平通 各種印刷 登記用紙 卸賣商 京城印刷所 電本一九〇八番

土木建築請負 株式會社 工營組 取締役社長 韓基昇 京城府齋洞町一一二番地 電光③三五四〇番

朝鮮料理業組合 (가나다順)
京城府觀水町 國一館 電光③
同瑞麟町 東明館 電光③
同敦義町 明月館 電光③
同樂園町 美吉別莊 (パコダ公園裏入口) 電光③
同授恩町 福海園 電光③
同南大門通一丁目 食道園 電本②
同漢江 食道園別莊 漢江莊 電龍④
同樂園町 松竹園 電光③
同城北町 飮碧亭 電光③
同瑞麟町 朝鮮館 電光③
同武橋町 春景園 電本②
高陽郡崇仁面貞陵里 淸水莊 電光③
京城府淸進町 淸風館 電光③
同仁寺町 天香園 電光③
市外貞陵里 天香園別莊 電光③
京城府鍾路 太西館 電光③
同漢江龍鳳亭內 太西館別莊 電龍①
同貫鐵町 泰和館 電光③



健康萬能

昭和拾五年(庚辰)

陰陽曆對照表

陽一月大

一日	月	癸卯	十一月二十二日	平張
二日	火	甲辰	二十三日	定翼
三日	水	乙巳	二十四日	執軫
四日	木	丙午	二十五日	破角
五日	金	丁未	二十六日	危亢
六日	土	戊申	二十七日	危氐
七日	日	己酉	二十八日	成房
八日	月	庚戌	二十九日	收心
九日	火	辛亥	十二月一日	開尾
十日	水	壬子	二日	閉箕
十一日	木	癸丑	三日	建斗
十二日	金	甲寅	四日	除牛
十三日	土	乙卯	五日	滿女
十四日	日	丙辰	六日	平虛
十五日	月	丁巳	七日	定危
十六日	火	戊午	八日	執室
十七日	水	己未	九日	破壁
十八日	木	庚申	十日	危奎
十九日	金	辛酉	十一日	成婁
二十日	土	壬戌	十二日	收胃
二十一日	日	癸亥	十三日	開昴
二十二日	月	甲子	十四日	閉畢
二十三日	火	乙丑	十五日	建觜
二十四日	水	丙寅	十六日	除參
二十五日	木	丁卯	十七日	滿井
二十六日	金	戊辰	十八日	平鬼
二十七日	土	己巳	十九日	定柳
二十八日	日	庚午	二十日	執星
二十九日	月	辛未	二十一日	破張
三十日	火	壬申	二十二日	危翼
三十一日	水	癸酉	二十三日	成軫

陽二月(閏)

一日	木	甲戌	十二月二十四日	收角
二日	金	乙亥	二十五日	開亢
三日	土	丙子	二十六日	閉氐
四日	日	丁丑	二十七日	建房
五日	月	戊寅	二十八日	建心
六日	火	己卯	二十九日	除尾
七日	水	庚辰	三十日	滿箕
八日	木	辛巳	正月一日	平斗
九日	金	壬午	二日	定牛
十日	土	癸未	三日	執女
十一日	日	甲申	四日	破虛
十二日	月	乙酉	五日	危危
十三日	火	丙戌	六日	成室
十四日	水	丁亥	七日	收壁
十五日	木	戊子	八日	開奎
十六日	金	己丑	九日	閉婁
十七日	土	庚寅	十日	建胃
十八日	日	辛卯	十一日	除昴
十九日	月	壬辰	十二日	滿畢
二十日	火	癸巳	十三日	平觜
二十一日	水	甲午	十四日	定參
二十二日	木	乙未	十五日	執井
二十三日	金	丙申	十六日	破鬼
二十四日	土	丁酉	十七日	危柳
二十五日	日	戊戌	十八日	成星
二十六日	月	己亥	十九日	收張
二十七日	火	庚子	二十日	開翼
二十八日	水	辛丑	二十一日	閉軫
二十九日	木	壬寅	二十二日	建角

陽三月大

一日	金	癸卯	正月二十三日	除亢
二日	土	甲辰	二十四日	滿氐
三日	日	乙巳	二十五日	平房
四日	月	丙午	二十六日	定心
五日	火	丁未	二十七日	執尾
六日	水	戊申	二十八日	執箕
七日	木	己酉	二十九日	破斗
八日	金	庚戌	三十日	危牛
九日	土	辛亥	二月一日	成女
十日	日	壬子	二日	收虛
十一日	月	癸丑	三日	開危
十二日	火	甲寅	四日	閉室
十三日	水	乙卯	五日	建壁
十四日	木	丙辰	六日	除奎
十五日	金	丁巳	七日	滿婁
十六日	土	戊午	八日	平胃
十七日	日	己未	九日	定昴
十八日	月	庚申	十日	執畢
十九日	火	辛酉	十一日	破觜
二十日	水	壬戌	十二日	危參
二十一日	木	癸亥	十三日	成井
二十二日	金	甲子	十四日	收鬼
二十三日	土	乙丑	十五日	開柳
二十四日	日	丙寅	十六日	閉星
二十五日	月	丁卯	十七日	建張
二十六日	火	戊辰	十八日	除翼
二十七日	水	己巳	十九日	滿軫
二十八日	木	庚午	二十日	平角
二十九日	金	辛未	二十一日	定亢
三十日	土	壬申	二十二日	執氐
三十一日	日	癸酉	二十三日	破房

陽四月小

一日	月	甲戌	二月二十四日	危心
二日	火	乙亥	二十五日	成尾
三日	水	丙子	二十六日	收箕
四日	木	丁丑	二十七日	開斗
五日	金	戊寅	二十八日	開牛
六日	土	己卯	二十九日	閉女
七日	日	庚辰	三十日	建虛
八日	月	辛巳	三月一日	除危
九日	火	壬午	二日	滿室
十日	水	癸未	三日	平壁
十一日	木	甲申	四日	定奎
十二日	金	乙酉	五日	執婁
十三日	土	丙戌	六日	破胃
十四日	日	丁亥	七日	危昴
十五日	月	戊子	八日	成畢
十六日	火	己丑	九日	收觜
十七日	水	庚寅	十日	開參
十八日	木	辛卯	十一日	閉井
十九日	金	壬辰	十二日	建鬼
二十日	土	癸巳	十三日	除柳
二十一日	日	甲午	十四日	滿星
二十二日	月	乙未	十五日	平張
二十三日	火	丙申	十六日	定翼
二十四日	水	丁酉	十七日	執軫
二十五日	木	戊戌	十八日	破角
二十六日	金	己亥	十九日	危亢
二十七日	土	庚子	二十日	成氐
二十八日	日	辛丑	二十一日	收房
二十九日	月	壬寅	二十二日	開心
三十日	火	癸卯	二十三日	閉尾

陽五月大

一日	水	甲辰	三月二十四日	建箕
二日	木	乙巳	二十五日	除斗
三日	金	丙午	二十六日	滿牛
四日	土	丁未	二十七日	平女
五日	日	戊申	二十八日	定虛
六日	月	己酉	二十九日	定危
七日	火	庚戌	四月一日	執室
八日	水	辛亥	二日	破壁
九日	木	壬子	三日	危奎
十日	金	癸丑	四日	成婁
十一日	土	甲寅	五日	收胃
十二日	日	乙卯	六日	開昴
十三日	月	丙辰	七日	閉畢
十四日	火	丁巳	八日	建觜
十五日	水	戊午	九日	除參
十六日	木	己未	十日	滿井
十七日	金	庚申	十一日	平鬼
十八日	土	辛酉	十二日	定柳
十九日	日	壬戌	十三日	執星
二十日	月	癸亥	十四日	破張
二十一日	火	甲子	十五日	危翼
二十二日	水	乙丑	十六日	成軫
二十三日	木	丙寅	十七日	收角
二十四日	金	丁卯	十八日	開亢
二十五日	土	戊辰	十九日	閉氐
二十六日	日	己巳	二十日	建房
二十七日	月	庚午	二十一日	除心
二十八日	火	辛未	二十二日	滿尾
二十九日	水	壬申	二十三日	平箕
三十日	木	癸酉	二十四日	定斗
三十一日	金	甲戌	二十五日	執牛

陽六月小

一日	土	乙亥	四月二十六日	破女
二日	日	丙子	二十七日	危虛
三日	月	丁丑	二十八日	成危
四日	火	戊寅	二十九日	收室
五日	水	己卯	三十日	收壁
六日	木	庚辰	五月一日	開奎
七日	金	辛巳	二日	閉婁
八日	土	壬午	三日	建胃
九日	日	癸未	四日	除昴
十日	月	甲申	五日	滿畢
十一日	火	乙酉	六日	平觜
十二日	水	丙戌	七日	定參
十三日	木	丁亥	八日	執井
十四日	金	戊子	九日	破鬼
十五日	土	己丑	十日	危柳
十六日	日	庚寅	十一日	成星
十七日	月	辛卯	十二日	收張
十八日	火	壬辰	十三日	開翼
十九日	水	癸巳	十四日	閉軫
二十日	木	甲午	十五日	建角
二十一日	金	乙未	十六日	除亢
二十二日	土	丙申	十七日	滿氐
二十三日	日	丁酉	十八日	平房
二十四日	月	戊戌	十九日	定心
二十五日	火	己亥	二十日	執尾
二十六日	水	庚子	二十一日	破箕
二十七日	木	辛丑	二十二日	危斗
二十八日	金	壬寅	二十三日	成牛
二十九日	土	癸卯	二十四日	收女
三十日	日	甲辰	二十五日	開虛

陽七月大

一日	月	乙巳	五月二十六日	閉危
二日	火	丙午	二十七日	建室
三日	水	丁未	二十八日	除壁
四日	木	戊申	二十九日	滿奎
五日	金	己酉	六月一日	平婁
六日	土	庚戌	二日	定胃
七日	日	辛亥	三日	定昴
八日	月	壬子	四日	執畢
九日	火	癸丑	五日	破觜
十日	水	甲寅	六日	危參
十一日	木	乙卯	七日	成井
十二日	金	丙辰	八日	收鬼
十三日	土	丁巳	九日	開柳
十四日	日	戊午	十日	閉星
十五日	月	己未	十一日	建張
十六日	火	庚申	十二日	除翼
十七日	水	辛酉	十三日	滿軫
十八日	木	壬戌	十四日	平角
十九日	金	癸亥	十五日	定亢
二十日	土	甲子	十六日	執氐
二十一日	日	乙丑	十七日	破房
二十二日	月	丙寅	十八日	危心
二十三日	火	丁卯	十九日	成尾
二十四日	水	戊辰	二十日	收箕
二十五日	木	己巳	二十一日	開斗
二十六日	金	庚午	二十二日	閉牛
二十七日	土	辛未	二十三日	建女
二十八日	日	壬申	二十四日	除虛
二十九日	月	癸酉	二十五日	滿危
三十日	火	甲戌	二十六日	平室
三十一日	水	乙亥	二十七日	定壁

陽八月大

一日	木	丙子	六月二十八日	執奎
二日	金	丁丑	二十九日	破婁
三日	土	戊寅	三十日	危胃
四日	日	己卯	七月一日	成昴
五日	月	庚辰	二日	收畢
六日	火	辛巳	三日	開觜
七日	水	壬午	四日	閉參
八日	木	癸未	五日	閉井
九日	金	甲申	六日	建鬼
十日	土	乙酉	七日	除柳
十一日	日	丙戌	八日	滿星
十二日	月	丁亥	九日	平張
十三日	火	戊子	十日	定翼
十四日	水	己丑	十一日	執軫
十五日	木	庚寅	十二日	破角
十六日	金	辛卯	十三日	危亢
十七日	土	壬辰	十四日	成氐
十八日	日	癸巳	十五日	收房
十九日	月	甲午	十六日	開心
二十日	火	乙未	十七日	閉尾
二十一日	水	丙申	十八日	建箕
二十二日	木	丁酉	十九日	除斗
二十三日	金	戊戌	二十日	滿牛
二十四日	土	己亥	二十一日	平女
二十五日	日	庚子	二十二日	定虛
二十六日	月	辛丑	二十三日	執危
二十七日	火	壬寅	二十四日	破室
二十八日	水	癸卯	二十五日	危壁
二十九日	木	甲辰	二十六日	成奎
三十日	金	乙巳	二十七日	收婁
三十一日	土	丙午	二十八日	開胃

陽九月小

一日	日	丁未	七月二十九日	閉昴
二日	月	戊申	八月一日	建畢
三日	火	己酉	二日	除觜
四日	水	庚戌	三日	滿參
五日	木	辛亥	四日	平井
六日	金	壬子	五日	定鬼
七日	土	癸丑	六日	執柳
八日	日	甲寅	七日	執星
九日	月	乙卯	八日	破張
十日	火	丙辰	九日	危翼
十一日	水	丁巳	十日	成軫
十二日	木	戊午	十一日	收角
十三日	金	己未	十二日	開亢
十四日	土	庚申	十三日	閉氐
十五日	日	辛酉	十四日	建房
十六日	月	壬戌	十五日	除心
十七日	火	癸亥	十六日	滿尾
十八日	水	甲子	十七日	平箕
十九日	木	乙丑	十八日	定斗
二十日	金	丙寅	十九日	執牛
二十一日	土	丁卯	二十日	破女
二十二日	日	戊辰	二十一日	危虛
二十三日	月	己巳	二十二日	成危
二十四日	火	庚午	二十三日	收室
二十五日	水	辛未	二十四日	開壁
二十六日	木	壬申	二十五日	閉奎
二十七日	金	癸酉	二十六日	建婁
二十八日	土	甲戌	二十七日	除胃
二十九日	日	乙亥	二十八日	滿昴
三十日	月	丙子	二十九日	平畢

陽十月大

一日	火	丁丑	九月一日	定觜
二日	水	戊寅	二日	執參
三日	木	己卯	三日	破井
四日	金	庚辰	四日	危鬼
五日	土	辛巳	五日	成柳
六日	日	壬午	六日	收星
七日	月	癸未	七日	開張
八日	火	甲申	八日	開翼
九日	水	乙酉	九日	閉軫
十日	木	丙戌	十日	建角
十一日	金	丁亥	十一日	除亢
十二日	土	戊子	十二日	滿氐
十三日	日	己丑	十三日	平房
十四日	月	庚寅	十四日	定心
十五日	火	辛卯	十五日	執尾
十六日	水	壬辰	十六日	破箕
十七日	木	癸巳	十七日	危斗
十八日	金	甲午	十八日	成牛
十九日	土	乙未	十九日	收女
二十日	日	丙申	二十日	開虛
二十一日	月	丁酉	二十一日	閉危
二十二日	火	戊戌	二十二日	建室
二十三日	水	己亥	二十三日	除壁
二十四日	木	庚子	二十四日	滿奎
二十五日	金	辛丑	二十五日	平婁
二十六日	土	壬寅	二十六日	定胃
二十七日	日	癸卯	二十七日	執昴
二十八日	月	甲辰	二十八日	破畢
二十九日	火	乙巳	二十九日	危觜
三十日	水	丙午	三十日	成參
三十一日	木	丁未	十月一日	收井

陽十一月小

一日	金	戊申	十月二日	開鬼
二日	土	己酉	三日	閉柳
三日	日	庚戌	四日	建星
四日	月	辛亥	五日	除張
五日	火	壬子	六日	滿翼
六日	水	癸丑	七日	平軫
七日	木	甲寅	八日	平角
八日	金	乙卯	九日	定亢
九日	土	丙辰	十日	執氐
十日	日	丁巳	十一日	破房
十一日	月	戊午	十二日	危心
十二日	火	己未	十三日	成尾
十三日	水	庚申	十四日	收箕
十四日	木	辛酉	十五日	開斗
十五日	金	壬戌	十六日	閉牛
十六日	土	癸亥	十七日	建女
十七日	日	甲子	十八日	除虛
十八日	月	乙丑	十九日	滿危
十九日	火	丙寅	二十日	平室
二十日	水	丁卯	二十一日	定壁
二十一日	木	戊辰	二十二日	執奎
二十二日	金	己巳	二十三日	破婁
二十三日	土	庚午	二十四日	危胃
二十四日	日	辛未	二十五日	成昴
二十五日	月	壬申	二十六日	收畢
二十六日	火	癸酉	二十七日	開觜
二十七日	水	甲戌	二十八日	閉參
二十八日	木	乙亥	二十九日	建井
二十九日	金	丙子	十一月一日	除鬼
三十日	土	丁丑	二日	滿柳

陽十二月大

一日	日	戊寅	十一月三日	平星
二日	月	己卯	四日	定張
三日	火	庚辰	五日	執翼
四日	水	辛巳	六日	破軫
五日	木	壬午	七日	危角
六日	金	癸未	八日	成亢
七日	土	甲申	九日	成氐
八日	日	乙酉	十日	收房
九日	月	丙戌	十一日	開心
十日	火	丁亥	十二日	閉尾
十一日	水	戊子	十三日	建箕
十二日	木	己丑	十四日	除斗
十三日	金	庚寅	十五日	滿牛
十四日	土	辛卯	十六日	平女
十五日	日	壬辰	十七日	定虛
十六日	月	癸巳	十八日	執危
十七日	火	甲午	十九日	破室
十八日	水	乙未	二十日	危壁
十九日	木	丙申	二十一日	成奎
二十日	金	丁酉	二十二日	收婁
二十一日	土	戊戌	二十三日	開胃
二十二日	日	己亥	二十四日	閉昴
二十三日	月	庚子	二十五日	建畢
二十四日	火	辛丑	二十六日	除觜
二十五日	水	壬寅	二十七日	滿參
二十六日	木	癸卯	二十八日	平井
二十七日	金	甲辰	二十九日	定鬼
二十八日	土	乙巳	三十日	執柳
二十九日	日	丙午	十二月一日	破星
三十日	月	丁未	二日	危張
三十一日	火	戊申	三日	成翼

庚辰陰曆節候表

月之大及小月	朔日辰	節氣	入節日時 陰曆	入節日時 陽曆	節氣	入節日時 陰曆	入節日時 陽曆
正月大	辛巳	雨水	十三日癸巳	二月廿日	驚蟄	廿八日戊申	三月六日
二月大	辛亥	春分	十三日癸亥	三月廿一日	清明	廿八日戊寅	四月五日
三月小	辛巳	穀雨	十三日癸巳	四月廿日	立夏	廿九日己酉	五月六日
四月大	庚戌	小滿	十五日甲子	五月廿一日			
五月小	庚辰	芒種	初一日庚辰	六月六日	夏至	十六日乙未	六月廿一日
六月大	己酉	小暑	初三日辛亥	七月七日	大暑	十九日丁卯	七月廿三日
七月小	己卯	立秋	初五日癸未	八月八日	處暑	二十日戊戌	八月廿三日
八月小	戊申	白露	初七日甲寅	九月八日	秋分	廿二日己巳	九月廿三日
九月大	丁丑	寒露	初八日甲申	十月八日	霜降	廿三日己亥	十月廿三日
十月小	丁未	立冬	初八日甲寅	十一月七日	小雪	廿三日己巳	十一月廿二日
十一月大	丙子	大雪	初九日甲申	十二月七日	冬至	廿三日己亥	十二月廿二日
十二月小	丙午	小寒	初九日甲寅	一月六日	大寒	廿三日戊辰	一月二十一日

食事倍加
陽氣倍加
活動力倍加

千古秘方·世界的強壯劑

百補丸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年藥

京城堅志町
平和堂株式會社ビル 百補丸販賣部
電光六三二・六二三・三三〇番・振替二六五五五番

造氣血·造筋骨

少年百補丸

調経·煖宮·胞胎

婦人百補丸

年神方位表

家聚周堂圖

廚	夫	姑
婦		堂
竈	第	翁

月建

一月 戊寅	七月 甲申
二月 己卯	八月 乙酉
三月 庚辰	九月 丙戌
四月 辛巳	十月 丁亥
五月 壬午	十一月 戊子
六月 癸未	十二月 己丑

寒食	初伏	中伏	末伏	臘享
陰二月二十九日	陰六月十二日	陰六月二十二日	陰七月十二日	陰十二月十六日

一日得辛　十二龍治水

土王日

陰二月十一日　陰六月十七日　陰九月二十日　陰十二月二十日

天火日

正、五、九月子日　二、六、十月卯日　三、七、十一月午日　四、八、十二月酉日

日曜表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7	4	3	7	5	2	7	4	1	6	3	1
14	11	10	14	12	9	14	11	8	13	10	8
21	18	17	21	19	16	21	18	15	20	17	15
28	25	24	28	26	23	28	25	22	27	24	22
		31			30			29			29

祝日・大祭日

四方拜	一月一日
元始祭	一月三日
新年宴會	一月五日
紀元節	二月十一日
春季皇靈祭	三月二十一日
神武天皇祭	四月三日
天長節	四月二十九日
秋季皇靈祭	九月二十三日
神嘗祭	十月十七日
明治節	十一月三日
新嘗祭	十一月二十三日
大正天皇祭	十二月二十五日

製品一覽表

百補丸　婦人百補丸　小年百補丸　蔘茸靈神丸　皮膚萬能水　當還淋藥(慢性用)　當還淋藥(急性用)　平和金鷄納　蛔虫藥　小兒蛔虫藥　高級胃散　第一目藥　第一カンプル錠　沃度丁幾　第一芳香ヒマシ油　山蔘清心丸　牛黃清心丸　牛黃抱龍丸　常壽香蘇合丸　廣壽香蘇合丸　第一梅毒藥　更生　第一滯症藥　第一痔藥　第一感氣藥　ケンノーシン(健腦神)　內服齒痛藥　第一祛痰鎭咳藥　日月女王丸　第一咳嗽藥　第一止瀉藥　第一外傷藥　第一寸虫必死藥　平和六味丸　平和六味地黃湯　平和八味丸　八味湯　鹿茸大補丸　鹿茸大補湯　十全大補丸　十全大補湯　正氣逐補散　大造丸　三腎大補丸　煖宮丸　調經種玉丸　調經種玉湯　七製香附丸　倍四物丸　倍四物湯　四六丸　四六湯　八珍丸　八珍湯　蔘术健脾丸　蔘术健脾湯　肥兒丸　肥兒湯　水土丸　水土湯　延齡固本丹　雙和丸　雙和湯　腎氣丸　腎氣湯　杞菊地黃湯　附益地黃湯　香砂六君子丸　香砂六君子湯　固眞飲子丸　固眞飲子湯　補中益氣湯　右歸飲　理中湯　歸脾湯　枳术丸　人蔘榮養湯　却病延壽湯　滋陰降火湯　敗毒散　外五十餘種

年歲對照表

天保十二年	百歳	辛丑	壁上土
同十三年	九十九歳	壬寅	金泊金
同十四年	九十八歳	癸卯	〃
弘化元年	九十七歳	甲辰	覆燈火
同二年	九十六歳	乙巳	〃
同三年	九十五歳	丙午	天河水
同四年	九十四歳	丁未	〃
嘉永元年	九十三歳	戊申	大驛土
同二年	九十二歳	己酉	〃
同三年	九十一歳	庚戌	釵釧金
同四年	九十歳	辛亥	〃
同五年	八十九歳	壬子	桑柘木
同六年	八十八歳	癸丑	〃
安政元年	八十七歳	甲寅	大溪水
同二年	八十六歳	乙卯	〃
同三年	八十五歳	丙辰	沙中土
同四年	八十四歳	丁巳	〃
同五年	八十三歳	戊午	天上火
同六年	八十二歳	己未	〃
萬延元年	八十一歳	庚申	石榴木
文久元年	八十歳	辛酉	〃
同二年	七十九歳	壬戌	大海水
同三年	七十八歳	癸亥	〃
元治元年	七十七歳	甲子	海中金
慶應元年	七十六歳	乙丑	〃
同二年	七十五歳	丙寅	爐中火
同三年	七十四歳	丁卯	〃
明治元年	七十三歳	戊辰	大林木
同二年	七十二歳	己巳	〃
同三年	七十一歳	庚午	路傍土
同四年	七十歳	辛未	〃
同五年	六十九歳	壬申	劍鋒金
同六年	六十八歳	癸酉	〃
同七年	六十七歳	甲戌	山頭火
同八年	六十六歳	乙亥	〃
同九年	六十五歳	丙子	澗下水
同十年	六十四歳	丁丑	〃
同十一年	六十三歳	戊寅	城頭土
同十二年	六十二歳	己卯	〃
同十三年	六十一歳	庚辰	白鑞金
同十四年	六十歳	辛巳	〃
同十五年	五十九歳	壬午	楊柳木
同十六年	五十八歳	癸未	〃
同十七年	五十七歳	甲申	井泉水
同十八年	五十六歳	乙酉	〃
同十九年	五十五歳	丙戌	屋上土
同二十年	五十四歳	丁亥	〃
同廿一年	五十三歳	戊子	霹靂火
同廿二年	五十二歳	己丑	〃
同廿三年	五十一歳	庚寅	松柏木
同廿四年	五十歳	辛卯	〃
同廿五年	四十九歳	壬辰	長流水
同廿六年	四十八歳	癸巳	〃
同廿七年	四十七歳	甲午	砂中金
同廿八年	四十六歳	乙未	〃
同廿九年	四十五歳	丙申	山下火
同三十年	四十四歳	丁酉	〃
同卅一年	四十三歳	戊戌	平地木
同卅二年	四十二歳	己亥	〃
同卅三年	四十一歳	庚子	壁上土
同卅四年	四十歳	辛丑	〃
同卅五年	三十九歳	壬寅	金泊金
同卅六年	三十八歳	癸卯	〃
同卅七年	三十七歳	甲辰	覆燈火
同卅八年	三十六歳	乙巳	〃
同卅九年	三十五歳	丙午	天河水
同四十年	三十四歳	丁未	〃
同四十一年	三十三歳	戊申	大驛土
同四十二年	三十二歳	己酉	〃
同四十三年	三十一歳	庚戌	釵釧金
同四十四年	三十歳	辛亥	〃
大正元年	二十九歳	壬子	桑柘木
同二年	二十八歳	癸丑	〃
同三年	二十七歳	甲寅	大溪水
同四年	二十六歳	乙卯	〃
同五年	二十五歳	丙辰	砂中土
同六年	二十四歳	丁巳	〃
同七年	二十三歳	戊午	天上火
同八年	二十二歳	己未	〃
同九年	二十一歳	庚申	石榴木
同十年	二十歳	辛酉	〃
同十一年	十九歳	壬戌	大海水
同十二年	十八歳	癸亥	〃
同十三年	十七歳	甲子	海中金
同十四年	十六歳	乙丑	〃
昭和元年	十五歳	丙寅	爐中火
同二年	十四歳	丁卯	〃
同三年	十三歳	戊辰	大林木
同四年	十二歳	己巳	〃
同五年	十一歳	庚午	路傍土
同六年	十歳	辛未	〃
同七年	九歳	壬申	劍鋒金
同八年	八歳	癸酉	〃
同九年	七歳	甲戌	山頭火
同十年	六歳	乙亥	〃
同十一年	五歳	丙子	澗下水
同十二年	四歳	丁丑	〃
同十三年	三歳	戊寅	城頭土
同十四年	二歳	己卯	〃
同十五年	一歳	庚辰	白鑞金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事變第四年 經濟大觀

十五年의標語
統制는强化된다
民需는抑壓된다
低物價協力하자

大戰一年·事變四年 內外經濟의前途
인플레防止가絕對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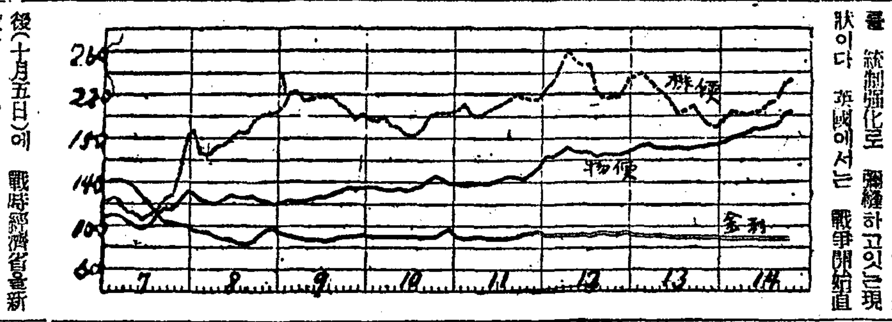
「今次大戰性格」

昨年九月三日의 英國의 獨逸에對한 宣戰布告로써 歐洲戰亂은 開幕되엇는데 처음에는 短期休戰이냐? 長期戰이냐? 하는것이큰問題이엇고 그歸趨如何에對한判斷도 混沌한것이 잇섯스나 其後時日의 經過를따라 交·國의 好、不好를 不拘코·長期戰은必至이라는것、그뿐아니라 今次大戰은 軍事的方面에 置重하기보다도 經濟戰에注力하는 性質의것이랄것을 알게되엇다。따라서 第一次世界大戰과 今次大戰의相異點의 하나를 이經濟戰에置重하는데 두고잇는것이다。勿論第一次大戰時에 잇서서도經濟戰은重要하엿스나 그것을깨달은것은 大戰이 이미開始되고 그우에相當히 進展된後에야 그重大性에 認識을하게되엇는데 今般에잇서서는 第一次大戰時의諸經驗을 活用하여 처음부터經濟戰에注力한다는 形態를取하게되엇다。그리고 이러한經濟戰의端的表現은 交戰國間에잇서서의 海上封鎖戰이다。

戰亂開始直後부터 獨逸의潛水艦 機雷戰이速開되어 英佛商船擊沈에 主力을傾注하고잇는터인데 英國側發表에依하면 戰爭開始以來 九、七、十一의三個月間에 英國商船으로써 沈沒된것이 八十六隻 三十萬噸의多數에達하엿다하며 其他艦船의 被害도莫大한것이잇다。그러므로 英國側에서는 이에對抗코자 昨年十一月二十八日獨貨拿捕令을公布 十二月四日부터 實施하고잇는데이것은 獨逸로부터의 輸出貨物及獨逸人의所有貨物을 公海에서拿捕하는것으로 英國의이러한 戰時措置는 諸中立國、特히 獨逸과接近한 通商關係에잇는 中立國의 商權을 危殆하게하는것이므로 各國은爭先 이에抗議를提出하고 日本에서도 同様의抗議를 提出하엿스며 其後에도諸種의問題를 惹起하고잇는것은 周知하는바이다。그런데 獨逸側에서는 이報復手段에對한 一層積極的인 報復手段으로서 英國向船舶의 無差別擊沈을 決定하는等 今次大戰에잇서서의 獨逸의基本戰略이 英佛通商網의 破壞에잇고 英佛의그것이 獨逸의 經濟的封鎖에잇는것을 알수잇겟다。

「國際經濟動向」

今次大戰이 叙上과가튼 性格을 가지고잇스므로 그에依하여 交戰國의經濟가 重大한것은勿論 各中立國의 經濟도 甚大한影響을받고잇다。우선英佛에서는戰爭開始와同時에 國內經濟의戰時統制强化를 急施하여「인플레」大增稅 戰時公債大增發에의 길—이것을獨逸과가튼 나라에서는 이미平戰時體制時代로부터 밟아온길—을 밟고잇다。英國經濟의 金融市場은 그輸出力의 衰退等으로 惡化된 基礎우에 戰爭이



開始되엇스므로 戰爭開始로 말미암아 磅貨가激落을 演하는等의 動搖를바닷는데 이러한動搖를 統制强化로 彌縫하고잇는現狀이다 英國에서는 戰爭開始直後(十月五日)에 戰時經濟省을新設하고 九月二十七日에는 英國財政史上 空前의 巨額이라고하는 一億二千六百萬磅(明年度의)大增稅를 斷行하엿스며 新公債發行은 回避하겟다는 솨이먼藏相의 言明을지키지못하고 드디어 第一次 五億磅 第二次一億五千萬磅 計七億五千萬磅의 戰時公債를 發行할權限을어더公然한「인플레」에의길을밟고잇다。一方 米國에서는 戰勃始初부터 中立을標榜하고잇스나 이것은 軍事的方面에 그치는것이고 經濟的方面에 잇서서는 반드시 中立을 지키고잇다고는 할수업겟다。即 經濟的으로 英佛을援助하는 効果를가진 新中立法이 昨年十一月三日에 成立되어 이에依하여 英佛을援助함은 勿論 同時에 英佛側에서 殺到하는 軍需品注文을 引受하여 彪大한 利潤을 내인다는 一石二鳥를 노리고잇는것이다

이로써 軍需工業方面에는 熱狂的景이 展開된것은 事實이나 英獨海上戰의 激化는 米國에도 甚大한波紋을投하여 大戰의 米國經濟에對한 影響도 樂觀만할수는업는狀勢이다。

그러나 世界金融市場의 霸權은 戰亂勃發을 契機로하여 完全히倫敦으로부터 紐育에로 移行되어 磅貨에對한 弗貨의 比重은 [illegible]되리만큼 커지고 各國의 輸送金 逃避資金을 沿米國에로 流入되어· 財務省發表에依하면 昨年十月廿一日現在의 米國金保有高는 百七十億弗을突破하여 世界金保有總額의七割以上에達하엿다 이로써 金過多症이 米國의重病으로된것이다

其他歐洲의諸中立國 特히交戰區域에 隣接하여잇는 和蘭、白耳義의兩國 스칸디나비아諸國、빨칸諸國이 바든反響도 深刻한것이잇다 即英獨의 海上通商破壞戰激化로 和蘭、白耳義兩國은 大脅威를바다 窮迫化를 難免할形勢인데 英獨兩國의 和蘭、白耳義獲得戰도激烈한것이 서로通商協定締結로써 自己陣營에 誘引코자 努力하고잇다。스칸디나비아諸國、其他에對해서도 가치 이야기 할수잇겟다。

如何間에 戰亂勃發은 全世界에 大衝擊을주어 世界經濟가저마다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잇스니만큼 그波紋도 一波는 萬波를불러 複雜性을 띠고잇다。이戰爭이 世界經濟가 恐慌狀態에 잇는때에 勃發한것은 恐慌의性質을 變改시켜 急激多端한動變을 齎來할것이다。

「日本經濟의影響」

我國은 이미 支那事變을 三年間이나 遂行하고잇는때에 歐洲戰亂까지 이에加하게 되엇스므로 複雜한影響을 밧게되엇는데이것은 前段大戰時에 잇서서 日本經濟가 自由主義的 飛躍을 하여 [illegible]에잇던것과 判異한바이다。

前日本經濟는 二個年餘의戰爭遂行에依하여 根本的變改를입고 그集中的表現으로서 惡性「인플레」의 脅威가 相當히 濃厚하여진 段階에、歐洲戰亂勃發로因하여 여러가지 深刻한 反響을 밧게되엇다。

勿論 歐洲戰爭은 複雜多端한 性格을 띤것이므로 前後의 進展如何에 따라 그것이 미치는 反響도 單一치 안흘것이나 그前途如何를 豫測키는 至難事이므로 우선 至今까지바든 諸影響을보면 歐洲戰亂은 國內物價高에 拍車를 加하여「인플레」를 促進시킨것을 第一로 들어야하겟다

勿論 歐洲戰亂이 업더라도日本의「인플레」는 前進一路가잇섯슬따름이엇스나「인플레」進展에 拍車를 加하고 그進行을加速度的으로한데 歐洲戰亂의 反響이 잇는것이다。(一部 論者가 立論하는바에 依하면 歐洲戰亂勃發前까지는 日本의 物價는世界水準으로보아 獨步的高位에잇섯고 그것이 輸出을 阻害하여 [illegible]「인플레」를 [illegible]할 有力한 要因이엇섯다 [illegible]亂勃發로 因하여 世界的物價全般이 上昇됨을 따라 國內對外兩物價의 鋏狀差가解消되고따라서 惡性「인플레」가 [illegible]도 解消되엇다하엿는데 어것은 事變以後의 實情가 어떠[illegible]한바이다。即國內物價水準은海外物價高에 追隨하여上昇되고國內의諸「인플레」情勢는 一段의 進展을 보앗다。)

더욱이 歐洲戰亂의反響인 國際爲替의低落은 國內物價騰貴를一層促進시켯다。圓貨는 英貨크로스의 暴落으로 弗에對해서는 上昇되고 弗에對해서는 低落되엇는데 我國은 其輸出에잇서서는 [illegible]에依存하는度가 놉고 輸入은 弗에依存하고잇는 關係에잇서서 이러한傾向은 자못不利하다。그러므로 爲替市場의基準을드디어 十月二十四日에 이르러弗에서 弗로 變更하기는하엿스나 如何間에 爲替低落이준 反響은 甚大한것이잇서 其後의 猛烈한 通貨膨脹의 一要因이 된것이다。

다음에 戰亂勃發은 交戰各國乃至 中立國에 잇서서의 軍需資材의 需要激增을招來하여 따라서 諸物資의 輸入難이深化되게되엇다 이러한 歐洲로부터의 重要物資輸入杜絶 乃至制限은我國의 生産力擴充計畫에 停滯를 齎來하고 延하여 物動計畫에도 相當한 變改를加할必要가 생기게되엇다。

其他 海運方面에잇서서도 異變이생겨 昨年十一月二十一日에는 郵船照國丸이 擊沈되는等의 犧牲이 잇섯는데 이와가치 歐洲戰亂의 我國에對한 影響은相當히 深刻한것이 잇섯는데 戰亂勃發直後에 잇서서는 第一次世界大戰時의 經驗으로보아 戰亂勃發이 我國에 絕對有利한條件이 될것과가튼 夢想을 가진側도잇섯스나 이러한 浮薄한氣分을其後漸次로雲散되고말앗다。

統制經濟는前進

尨大한明年度豫算

昨年十二月八日의 豫算閣議에서 正式決定을본 十五年度의豫算總額은 百三億六千萬圓의 巨額에達하엿는데 其中一般會計歲出 五十九億圓。臨時軍事費特別會計 四十四億六千萬圓으로 이것을 十四年度의豫算總額 九十四億九百萬圓에比하면 九億五百萬圓의增加이다。이러케 日本의豫算이 加速度的으로 膨脹을거듭하고 잇는것이日本經濟의 全貌를 이야기하는것으로 그豫算膨脹의 主因이되어잇는것은 다시말할것도업시 支那事變遂行에依한 臨時軍事費의 累增이다。即 一般 特別兩會計를 通한軍事豫算의 總額은 六十六億七百萬圓으로 이것을 十五年度豫算總計 百三億六千萬圓에 比하면 實로 六割三分強에 當하고잇다 十四年度의 同比率六割八分強에 比하면 約四分가량의減少를 보기는하엿스나 軍事豫算中에占하는 軍事費의比重이 依然的으로 큼을알수잇고 또一般會計中의 諸歲出中에도 間接的으로 軍事費的性質을띤것이 만흠을생각할때에는 日本經濟가 實로軍事費를 中心으로하여 其中에도 彪大한 軍事費放出을 中心으로 움지기고잇는것을 알수잇겟다 支那事變勃發以來로 支出한 臨時軍事費는 明年度에는 百六十四億四千四百萬圓의彪大한額에達하게된다。

公債消化에全力

이러한 超巨額의 歲出을調達하는데 至今까지赤字公債發行에依하여왓스나 其後에잇서서도公債發行額은 去益增加될것으로明年度豫算을 調達할公債發行의計畫은 臨時軍事費에잇서서約三十六億圓、一般會計에잇서서 十六億七千五百萬圓、各特別會計三億合計五十五億七千五百萬圓에 達할豫定이라한다 그리고 昨年十二月十五日 大藏省豫算內示會에서 發表한바에 依하면 支那事變勃發以來의 公債發行高는 百六億六千二百萬圓으로 되어잇는데 어[illegible] 至今까지의 公債[illegible] 百十億圓을 突破하게되엇다 어에 十四年度에 發行할 豫定다。十五年度로 繰越되는 未發行額 三十二億圓及 十五年度發行豫定額 五十五億圓을 加하면 十五年度에 잇서서는 公債發行額이 三百億圓을 突破할것이 必至로되엇다。

이러한巨額의 公債發行에 對하여 至今까지는 大體로 順調로운 消化를보이어 그狀況을보면 如左하다 即昭和十二年(自七月七日至十二月末日)에 잇서서는 新規發行額 十三億에對하여 消化額은 七億二千百萬圓으로그消化率은 五十五·五%이엇고 十三年中에 잇서서는 四十三億三千萬圓에對하여 三十七億八千九百萬圓으로、八十七·五%、十四年十二月十三日까지에 잇서서는 五十億三千萬圓에 對하여四十二億三千五百萬圓으로 八十四·一%이며 總計에 잇서서는 百六億六千萬圓에 對하여 九十七[illegible]八十二%에 [illegible]를 내인것이다 그런데 昨年十月부터 公債消化가 相當한 鈍化를보이어 同月中의 消化率은 겨우 四十七·九%에 不過하여 公債消化問題가 脚光을 비치게 되엇다。

·그런데 이消化不良의 原因[illegible]象으로서 金利가 若干이나마强調를보하고 一方 貯蓄增加도若干鈍化되어 加速度的으로 急膨脹되는 通貨의增發과 아울러形勢는 要約을 不許하게되엇는데 要컨데 이러한 現象은 大體的으로 「인플레」의 進展을 말하는것이다。即通貨의 大膨脹은金融市場에서보면 資金의繁忙이 가할을 말하는것이고 資金의繁忙가限度면 金利가 昂騰되어公債消化에 商品資金이 自然減少된다。如何間에今後에잇서서도上記한바와가튼 彪大한公債를發行하여가야 할터이니 公債消化에는 特히 防備한工作이 必要할것이다。

「인플레」防遏策

十五年度의 豫算實施로因하여 政府資金의散布는 依然巨額에達할것이고 또明年度에도 新規로 五十五億圓이나 公債를 發行할것이므로 今後에잇서서의「인플레」進展이 一層 顯著하게될것은 分明한바이다。이미 昨年十月頃부터歐洲大戰의 反響을바다「인플레」의 規模는 相當히 擴大되어「인플레」의 浸潤은 各層各隅에 達하고 諸物價의昂騰은 顯著한것이 잇스며 日銀、朝鮮銀券의 膨脹은 前古未曾有의 新記錄을 示現하엿다。이러한 基礎우에 今年의 我國經濟는前進하여야 할것이므로「인플레」의 如上의 進展이 破局을意味하는데 鑑하여·今年에 잇서서의 統制經濟의 主眼이「인플레」防遏에 잇서야할것도 分明한바이다。

그러면「인플레」防遏에는 如何한 對策이 잇슬까?第一에豫算의 規模를 縮少시킬것이 捷徑일것이나 이것을 바랄수업는것은 明年度豫算의 總計를 一瞥하므로써 充分히 알수잇다。

다음에 생각되는것은 大增稅이다。政府에서도 이에着目하여 新期的大增稅案을 樹立하고 平年度國庫增收 八億千四百萬圓 此中地方交附金을 差引하면 國庫純增五億九百萬圓에 達하는 大增收를 企圖하고 잇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新規公債發行에依한 그利權은 新規增稅가 對하여 調達한다는데는 効果가 잇슬지나 猛威를 떨치려는「인플레」防遏手段으로서는 充分타할수업겟다。

事態가 이러한限 「인플레」防遏을 爲하여 至今까지 取하여온 貯蓄獎勵 資金調整法의 運用等을 强化함은 勿論이겟스나 다시 積極的인 强權的措置를取할수밧게 업슬것이다。即 總動員法의 全面的發動이다。

「인플레」의 一段進展에 對하여 總動員法發動에 依한 抑壓强化——이것이 今年에 잇서서의 統制經濟의 하개縮圖가 될것이다。

物動計畫新方向

「인플레」問題와 關聯된 또한가지重大問題는 物動計畫이다。「돈」과物의 關係에잇서서 物資가不足되는것이 인플레의根因이고 그뿐아니라 「돈」을아무만치도 어떠케 物資가업는限「돈」은 無用長物이라하여도過言이아닐것이다。그러므로 十五年度物動計畫에잇서서는 不足되는物資와 「돈」과의 相關關係에 重點을 둔다하는것은 當然한歸結이라하겟다。

이미各種物資의 不足傾向은除年부터 表面化하여 諸種問題를惹起하고잇섯는데 特히昨年九月에 歐洲大戰이 勃發된以後는 歐洲로부터의 各種重要物資의 輸入이 杜絶되고 또米國으로부터의輸入도 日米通商航海條約廢棄後에新協定이締結될는지 못될는지分明치안코 그뿐아니라 米國內及外國으로부터의 注文激增으로 諸種重要物資의 價格이 奔騰을示하엿스니만큼 相當한困難이豫想되므로 物動計畫에 對해서도 어느部分에對하여는 根本的으로 改訂하여야할 必要가잇슬것이다。(物動計畫의 編成如何에對하여는 日米關係의如何가큰要素가되어잇다。來議會에提出하려는 對日禁輸法案의運命이 如何히될는지? 日米通商協定廢棄發効後의 日米通商이 如何히될는지에依存하는바가크다 日米關係가 如何히될는지는勿論豫測을 不許하는바이나 그[illegible]如何에不拘 長期化하는[illegible]에따라 我國에서 하는 重要物資의 輸入難이 深化될것은 旣定事實이니 我國에서는 이에對한 適當한 措置가 必要하게될것으로 우선 日滿支를 一體로하는 自給自足體制의 確立에 對하여 一層의 努力을 加할것이고 一方國內的으로는 民需制限을 一段强化하게될것이니 今年에잇서서의 國民生活은 一層窮迫을 告하게될것을 覺悟하여야하겟다。

重點主義

이미言及한바와가치 各種物資의不足傾向은 特히最近에이르러 顯著한것이잇다。다시말할것도업시 輸入杜絶로因하여 原料取得難이 深化된까닭이다。昨年夏以來의 電力·石炭의不足은 相當히 深刻한것이잇는데 電力·石炭等의動力源에對한 需要는 激增되어가는데不拘코 그供給은 여기따르지못하는까닭이다。이러한動力不足으로 操短休業을 實施하는工場이 續出하엿던것은 記憶에새로운바이다。特히 石炭의不足은 其後로도 改善을보지못하고 去益窮迫를 加하고잇는 形勢인데 이러한傾向은 非單 石炭뿐아니라 其他重要物資에잇서서도 同度의差는 잇슬지나 同様이므로 이에 我國産業은 一轉換을하여 積極的으로 重點主義를 强行하게되엇다。

即設備가優良하고 內容이充實한大會社에 生産을集中하여 效果를내이자는것인데 우선 鐵鋼에잇서서는 그生産配定及 材料配定을 優秀工場에 集中하도록 措置하는同時에 各種別配定에對해서도 各工場의 實績에應하여 能率的인 操業을하게하고 이方針에따라 生産及原材料의 配定을 一、銑鋼一貫工場 一、銑鋼一貫作業이 아니라도 軍用品의 生産을 擔當하는特殊工場 一、單獨平爐工場의 順位로써하기로되엇다。其他石炭에잇서도 大略가튼 措置를 取하는等 今後의產業이積極的으로 重點主義를 取하여 감을따라이에伴한劣惡會社의補償問題等이惹起될것이다。

× ×

이外에 貿易、爲替의方面에잇서서도統制는 一段强化될것이고 貿易部門에잇서서는 아직第三國貿易이그다지 改善을보지못하엿스니만큼 國際收支의困難은 未脫이어서 民需輸入의抑壓도 一層强化될것이 必至이며 爲替에 對해서도 管理統制가一層 嚴重하게될것이다。

農工併進政策의再檢討
重農政策의沿革과그內容

【上】 李勳求

朝鮮은 氣候와 風土가 農業에 適宜하고 封建社會의 原始産業으로 農業이 가장重要하엿든 原則에 例外가 되지못하여서 古來로 부터 農業을 產業의 大宗으로 國本을 삼아왓다。그래서 今日 歷史의 페이지를 넘기며 產業政策으로 記錄을 본다면 거진全部가 農業에 關한것이라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다。이만치 重農政策을 實行하여온 結果로 日韓合倂當時인 三十年前事實을 보아도 朝鮮人口의 八割이 農業에 從事하엿고 또全産業生産額의 八割五分以上이 農産物價額으로 占領하여 잇서서 實로 朝鮮은 글자그대로農業國의面貌를具有하엿던것이다。日韓合倂이라는

「歷史的事實」은 當時 日本朝野 識者가 두가지 觀點을 가지고 朝鮮을 對하게 되엇스니 그하나는 곳 政治的으로 新附의 二千萬民衆에게 一視同仁의 皇恩下에 同化政策을 實施하는것이요 또하나는 經濟的으로 朝鮮은 日本商業의 獨占한市場이오 또 工業의 培養地로 原料를 産出供給하는 植民地라는것이엇다 이두條件을 滿足시키는 産業은 무엇보다도 農業이엇다。即農業은 工業의 原料와 商工業者의 食糧을確保하고 또農民의 購買力은工業으로 生産한 商品을 消化하는 市場에서의 唯一한 條件이엇다。그러므로 朝鮮에서 重農政策을 實行하는것은 또한 自然의 理數로 寺內總督以後 歷代總督의 施政이 이重點을 離脫한적이 업시 進行되어 온것이다。

이와가튼 重農政策의 實行中 特히 顯著한것은 中南鮮地方의 棉花栽培奬勵、桑蠶、畜産의獎勵、稻作及 田作의改良

「産米增殖」의奬勵、土地改良事業의 推進、水利施設의 完備、畜産의改良、肥料의 增施等諸項目으로 表現되어서 그成績이刮目에 値할만치 易揚되엇다。

大正八年以後 齋藤總督의武斷에서 文化에 轉向하고 『同化』를改題하여 『融化』를使用하엿스나 그經濟政策에 잇서서는依然 重農的色彩를 完全히 脫殼치못하엿고 宇垣總督時代에는 『朝鮮人에게밥을 주자』하는 大眼目下에 當時世界大戰後 恐慌으로 沈滯에 빠진 朝鮮農村經濟의 再建을 圖하는同時에 物心兩面으로農村振興의 政策을 具現하는데 努力하여서 『農村振興』『自力更生』은 政治上은 勿論 一般社會上으로도 사람의意識中에기괴 浸透하게 되어서 重農政策은 依然히一步도 後退의 姿勢를 보이지아니하엿다。

이와가튼 重農政策의 結實로 나타난것은 곳農業技術의 進步向上과 및 그로조차오는

「農業生産」의 增大다。

이것을 簡單하게 數字로 例擧를 들어보면 明治四十三年末에(日韓合倂當時)農地面積은 二百四十六萬四千餘町步에 不過하던것이 昭和六年(滿洲事變當時)에 四百四十五萬五千餘町步로 增大되엇고 農業者數는 四十四年末에 二百三十二萬六千餘戶이던것이 六年末에는二百八十八萬一千餘戶로 增加하엿스며 農業生産의 總額은 四十四年末에 一億二千餘萬圓이어던것이 六年末에는 七億二百餘萬圓으로 激增을 示現하엿다 이와가치 農業者와 農地面積과 農産物價額의 絕對數에 잇서서는 年年 飛躍的으로 增大하는 자취를 남기고 나온것이다。

그러나 한번 冷靜하게 觀察하여보면 日韓合倂當時에잇서서 日本內地의

「資本主義」는 아직 擴張期에 屬하엿던것이다。勿論日淸戰爭以後 各種의 生産製造業과 및交通運輸業과 商事貿易等 產業이 資本主義的으로 經營되기 始作하여 잇섯지만 그擁有한 資本額의 僅少한것과 및經理技能이 今日로 보는 長成한資本主義에 比하여 아직 幼稚한 地境에서던것이다。過去三十年이라는 一代의 時期를두고 長足의發展을 遂한 內地의資本主義는 自然外地에까지 그波動을 미치게하엿다。그結果로 朝鮮은日韓合倂當時로 昭和六年頃까지即 四半世紀동안에 資本主義的變遷期를 經過하여와서 우에서 말한바 重農主義的政策에 農業의 發展을보앗스나 表面에 잇서서 資本主義擡頭를하여 商工業이 加速度的으로 發達하여오고 잇엇다。그래서 朝鮮內의工業과 商業이 漸次로地盤을 鞏固히하게되엇다 結果로 農業의振興과 增大가 絕對數에잇서서 上記한바의 數字와가치 膨然한 事實로 存在함에 不拘하고 相對數에 잇서서는 漸次로 減退의 傾向을 보여오던것이다 이相對數의 減退한最近의例擧으로는

「昭和元年」에 農業者는 全人口의八割三分一厘나 되던것이 同六年에는 八割八厘로 減退하고 同十二年에는 六割九分六厘로 激減된事實과 및 朝鮮의重要産業인 農業、鑛工、水産業의 總生産額으로보아서 昭和元年에 農業生産額이 七割六分一厘强을 占하던것이 同六年에는 七割一厘弱으로 轉落하엿고 同十二年度에는 五割六分四厘强으로 激減을 招來한 事實을가지고라도 넉넉히 볼수가 잇다。特히昭和六年以降의 激變은 六年以後의 變遷을 이야기하는것으로 뒤에서 詳述하는바의 諸原因을 證明하는것으로 보아서 大差가 업슬것이다。이와가치 重農政策은 絕對的으로는 相當한 成果를 擧하엿스나 相對的으로는 도리어 逆結果를 나타내고 衰減의길을 밟아온것이다。

物의代表로 證券投資

三商證券常務 具然昶

株價를 相對的으로보는가? 或은 株式은物의代表로서 보는가가問題될것이다。그리고 最近의 市場의 空氣를보면 株式은物의 代表로서보는 空氣가 濃厚한데 이러한觀點에서보는 限아직 上騰餘地가잇을것이다。그런데 어떠한 株價일가가 問題로되는데 昨年中에는 一種統制混亂時代라 할만한것이어서 株價에 잇서서도 이것을 反映하여 浮動株價가一時盛行한적이잇섯스나 今年에는 重點主義强行을따라 事業自體에도自然 淘汰가잇슬것이고 여에따라株式에도 選擇買를하게될것이다 軍需[illegible]統制가優先되어 整理를 하게될것이지 立場에서보아 一流株를 가게될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內容이 優良하여 增配를하게되는會社株에對한 買氣가勃興될것이다 勿論政府의統制强化와 이에伴하는投機抑壓은 考慮하여야하겟스나 株界에對하여서도 希望을가저서 조흘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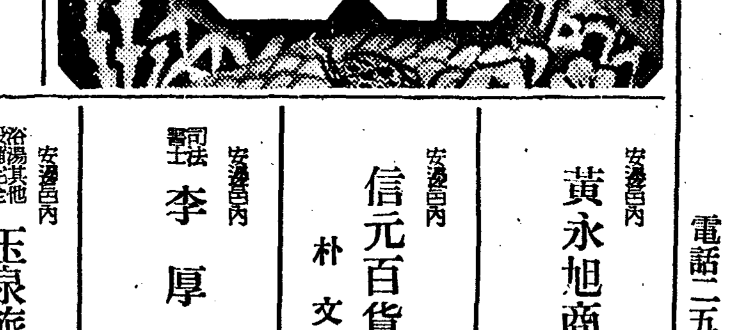
安邊郡安道面中坪里 東華醫院 院長 黃永述

安邊邑內 高等料理 海東館 主 嚴文鉉 藝妓 李英子 沈英心

安邊邑內 鶴城釀酒場 金淳吉 電話一九番

安邊邑內 和信連鎖店 電話二二番

京元線安邊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安邊代行營業所 電話二五番



安邊邑內 中央理髮館

京元線安邊驛前 平安精米所 金相賢 電話二六番

安邊驛前 美人天國 梨花食堂 主 李赫基 姜福順 張奇男

安邊邑內 兄弟鐵工所 主 鄭允模

安邊面中花山里 尹澤林

安邊面下花山里 面協議員 李明烈

安邊面斗滸里 面協議員 全秉祚

本報安邊支局 黃相律

安邊邑內 黃永旭商店

安邊邑內 信元百貨店 朴文信

安邊邑內 司法書士 李厚埴

安邊邑內 浴湯其他設備完全 玉泉旅館 李東伯 電話三三番

安邊面比山里 金昌鎔

安道面中坪里 李恒旭

安邊邑內 崔泰煥

京元線南山驛前 南山精米所

京元線安邊驛前 東海運輸組 職員一同

安邊面上花山里 崔載律

安邊郡新茅面公須田市 新茅醫院 醫師 全性柔

安邊邑內 元タク株式會社 安邊出張所 電話一八番

安道面比山里 金鴻涓

安邊邑內 和利百貨店 朱南啟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主任 黃永般

安邊邑內 和信堂時計店 李在贊

安邊邑內 相信洋服店 主 崔相晧

安邊邑內 信元精米所 朴元益

安邊邑內 平安麵屋 主 金達京 電話二七番

安邊邑內 丁奎贊

安邊驛前 設備完全 登州旅館

安邊邑東南里 基富農園 崔基一

安邊邑內 公醫 黃相彥 電話二四番

安邊邑內 李鳳淳 電話一一番

公人俱樂部

安邊邑內 崔仁英

安邊邑內 漢興商店 全漢洪

安邊邑內 金澤自轉車商店 主 金澤夏

安邊邑內 米穀商 黃道永

安邊邑內 全寅燮

安邊邑內 東秉百貨店 電話二二番

安邊邑內 安邊洋服店 韓貞栢

安邊邑內東南里 安一果樹園

安邊邑內 文化時計店

安道面事務所 職員一同

安道面飛鵝里 木材商 李宗淳

安道面比山里 金昌濬

安道面大瓦里 面協議員 金一榮

安道面於雲里 面協議員 李錫均

安邊邑內 林基寬

安邊邑內 南浦食堂

安邊邑內 海光商店

安邊邑內 朝日時計店

安道面比山里 金鴻稷

安邊邑內 雜貨商 德盛利商店

安邊驛前 東一農園 柳成培

安邊面斗滸里 崔基柱

安邊面下花山里 李大鏞

安邊面上花山里 崔承吉

安邊面中花山里 面協議員 金炳琳

安邊面上花山里 崔達相

安道面 面協議員 李昇圭

安邊驛前 東亞理髮館 主 李煥

滿洲三江省勃利縣城內 牧丹江北滿實業株式會社 勃利出張所

勃利出張所 職員一同

三江省勃利縣城內 司法代書人 金在煥

活版石版 諸印刷 協同印刷所

勃利驛前 丸八運送部 電話一五一番 主 朱一相

勃利縣城內 張相翼

利洋雜貨、レコード蓄音機 中央百貨店 主 高義燮

三江省勃利縣 學校組合 職員一同

永光醫院 院長 李基述 京城府新堂町二四七ノ四六 往十里鐵道醫務室 電本②七四六一

京城東大門市場 三益商會 崔鎭觀 電話③二、八四五番

綿布商 仁昌商會 崔仁成 京城府鍾路四丁目一六〇 電光 [illegible]二〇番

무슨事業을할까

民間의經濟活動 어떠한方向으로나갈까

事變, 大戰下에 經濟界는 더욱 統制가 强化되고 擴充面이 커갈것이나 그러타고 民間의 經濟活動을 停止시키는것이 아니요 生産擴充으로 各方面에 依하여 全心專力하여갈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未曾有의 大事變, 新古에업던 統制强化下에 무슨 事業을할까 어떠한方法으로 어떠한方針으로 나가야할까? 左記諸氏에게對하여 各其權威者에게 執筆을 求하엿는바 事業經營의 指針이 되엇스면 조흘까한다.

一、農業朝鮮의再認識……永保合名常務理事 李定宰
一、半島의金鑛業……殖産局産金課事務官 桂珖淳
一、輸出工藝振興과特殊物工業化……朝鮮輸出工藝協會主事 赤松明
一、水産物의生産擴充……平北道産業技師 鄭文基
一、時局下商人의나갈길……京城商議業務課長 赤尾正夫
一、朝鮮林産의新使命……農林局林政課事務官 小野文賢
一、服分投資의問題策……金益證券常務取締役 具鎔

農業朝鮮의再認識

永保合名常務理事 李定宰

民은以食爲天이라는말은 人間生活에 眞理를말한 萬古不變의 格言이다 이明明白白한 眞理가 或은 野卑한 格言으로 忘却되기 쉬우나 非常時下 食糧問題의 確保를 생각할때 다시한번 吟味할 格言이라 더구나 朝鮮은 自來로 農業國이니 農業은 朝鮮의 根幹的産業이다. 朝鮮人口의 八割은 農業에 從事하는 住民이니 무엇보다도 農業이 科學的으로 더 發達되고 振興되어야 하겟다. 勿論商業도 工業도 鑛業도 다 더 큰 飛躍的 飛躍이잇서야 하겟지만 참으로 農業의 飛躍的 發展이 잇을때 처음으로 朝鮮의 全住民의 大部分이 幸福에 均霑되는 때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朝鮮의 人口는 統計的으로 農業人口가 增加하고잇는때이라.

朝鮮의 農業人口

大正十一年	一四、六三〇、二三六人
昭和 元年	一五、五六〇、四八六
同 五年	一五、九三〇、〇〇三
同 十年	一六、六〇〇、九七一

農業人口는 右와가치 大正十一年부터 十四年後인 昭和十年에 約二百萬이 增加되엇다. 一方 耕地는 大正八年에 四百三十二萬餘町步이던것이 昭和十一年에는 四百九十四萬町步로 六十二萬町步가 增加되엇는데 不過하여 農業者一人當耕地面積은 〇、〇四反의 減少를보이고잇서 漸次細農으로 轉落하는傾向이 顯著하다 그러므로 朝鮮農業政策의 理想은 小農經營의 合理化에 잇스며 이를 꾀하는 政策은 即農村의 疲弊이라고 생각한다 農民의 過半數는 小作農이니 右表의 其數字를 表示하면

	地主	自作	自作兼小作	小作	火田民	計
大正八年						
同百分比						一〇〇
昭和七年						
同百分比						一〇〇

地主는 大正八年부터昭和七年의十四年間에 겨우〇、二%의增加에不過한데 自作農은 三、五%의減少오 自作兼小作農은 一三、九%의減少를示하고 小作은 一五、二%의增加를 이에反하여 ……

內地 朝鮮 伊太利 獨逸

	內地	朝鮮	伊太利	獨逸
總面積	三八二、一二〇	二二一、三三三	三一〇、〇〇八	四七〇、六三八
耕地	六〇、〇〇八	四四、九四一	一二一、七五一	一九三、三九五
永久牧草地 森林	一九〇、八〇八	一六二、三四〇	五六、〇〇七	一二八、九四七
未耕地	一、七七三		二、四六九	一、九〇七

第一 農民은 耕地를 지켜야 하겟다

第二 ……

第三 ……

半島의金鑛業 上

殖産局産金課事務官 桂珖淳

一、産金奬勵의理由

金이貴金屬으로서 人類에게貴重된는 音時부터傳하여 오는事實이지만 金은 果然그만한 價値가잇는것일가. 生來金과因緣이엽는탓인지 筆者는金自體에對하여 아모魅力을感지안는다. 吾人의生活에는 各種物資이 必要하지만物資로서의 金은二 ...

二、朝鮮金鑛業의今後

朝鮮에서 金을生産한 歷史는 오래며 鑛業冶金術도 普時부터 相當히發達된 模樣이나 金鑛業이 秩序잇는 企業으로서 發展되기는 總督施政以來이 ...

三、朝鮮産金五個年計畫의槪要

時局下商人의進路

京城商議業務課長 赤尾正夫

文那事變以來 商業組織에大變革을齎來하여왓다 從來의商業은營利主義를本位로한는 配給交易機關이잇스나 漸次公益的配給機關으로되고잇다 이것은 商業史에特筆大書할事實이다 事變當初부터 物資의配給統制 生産制限 輸入抑制 低物價政策이 强化되어 今日에는 事變解決上 又는國民生活上의 重要品은 大小間에使用制限又는 配給統制를 實施하고잇고 生産力의擴充 國民生活의安定을 目的으로하는 低物價政策을 强行하는反面에 消費節減을 目的으로하는 配給統制 物價의値上을 防止하는價格停止로 所謂商業의妙味는 全혀減殺되어 맛지煙草나 切手를파는것과가튼 手數料主義의 商業組織이 確立되고잇다.

(商)

이傾向은 今後去益强化될것은 人의 好不好를 不問코 我國의 事變處理上 가장 緊要한事項이다. 政府는 全然히 配給統制나 低物價를 强要하는것이아니고 第一次 歐洲大戰後에 온것과가튼 大恐慌을 未然에防止하여 强固한 經濟的繁榮을期하기 爲한것이다. 配給統制나低物價가 商人뿐아니라 國民이 ……

水産物生産擴充

平北産業技師 鄭文基

朝鮮半島는 最近東亞新秩序의 建設에 本邦大陸政策의 發展에따라 自然的地利의便과 天然的資源의 豐富함을 內外모두 再認識하게되엇다. 特히最近朝鮮利用에 無盡藏인 鑛産을開發을 爲始하여 水力電氣等의 開興과 各種重輕工業의 急速한 發達은 大陸政策遂行上 不可缺한現實이다. 朝鮮半島의 將來를豫想하여 展望할때 現狀이라고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如斯히産業의 急速한 發達엔 自然 人口의移動과 集團을 形成하는法이라 따라서 食糧의 均衡은 깨트려지고말것이다 ……

(業)

(營)

(物)

東海岸篇

朝鮮半島는 東西南三沿海로 나누어잇는바 그三沿海의 性質이 天然的으로 相異하다 東海는 日本海에面하여 北은 豆滿江口에서 南은 釜山港에 이르는 海岸인바 그海岸線의 延長이 約一、八五〇粁에達하며 沙濱鹽田가 相當히 ……

정어리

平壤府港町 金友洋行 電話二六七三番

平壤府新陽里一八二ノ四 各國自動車修理部分品販賣 平壤自動車工業株式會社 電話二一五一番 振替口座平壤一六一〇番

平壤府仁興里五一五 朝鮮製釘工業株式會社 平安商事株式會社 電話二八九七番

平壤 三和會 販賣元 三井物産株式會社 平安釀造株式會社 大同釀造株式會社

新式燒酎 釀造元 七星釀造株式會社 大平釀造株式會社

平壤府箕林里二八〇 古物貿易 朝鮮資源商會 大山精米所 承寬河 電話五一八七番 振替平壤一八三九三七番

平壤府大同門通 泰興商會 電話二八八三番

平壤府仁興里 百花染色工場 同洋襪部 電話三三二三番

平壤府南門通 義昌商會 電話三六一七番

平壤鍾路 食料雜貨卸商 メリヤス 中央商會 電話二八二七番 振替平壤三六七番

平壤府箕林里一八〇 大同染色工場 附屬洋襪部 李昌 電話二二六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栗田商會 崔炳洙 電話三九六一番

平壤府箕林里一八四 韓興紙器工業所 韓宗烈 電話三四五五番

平壤府黃金町 元龍商會 秦龍鶴 電話三五五九番

平壤

平壤府箕林里一八九 朝鮮メリヤス合名會社 電話四一七二番

平壤府鍾路 平安鑛業所

平壤 孫壽卿

平壤 池鎔殷

平壤 尹永善

平壤府銀貨里 農林商會 支配人 朴文燮

平壤 裵炳駿

平壤 李應甲

平壤 金能基

無名氏

平壤放送局

平壤朝鮮人宿屋組合

平壤寫眞組合

平壤府大寶里五一番 平壤府肥料組合事務所 電話四六〇九番

平壤酒造組合

平壤府南門通 東亞商會 電話三五六〇番

靴材料原料卸商 東洋皮革店 電話四四二一番

靴材料原料卸商 平安屋皮革店 平壤府南門通 電話三三二八番

平壤府新場里 三盛製綿所 電話三三六五番

平壤府箕町一二五番地 三元商會 電話二五四五番 四二四六番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日本教育生命保險株式會社 平壤支店長 金贊五 平壤府幸町五六 電話三三〇二番

平壤府西門通 關西運動具店 電話五〇七一番

平壤府上水口里 朝鮮寫眞工藝社 金成煥 電話三九九一番

平壤府六和町六番地 洋食品 歐米雜貨 泰安洋行 電話四五四五番

平壤府巡營里 太陽食堂

平壤穀物商組合

平壤府新倉里バス通 醫學博士 河斗瑛 河醫院

平壤府水玉里 李東英 中央醫院

平壤府巣仁通 院長 劉鎭 學堂醫院

平壤府上水口里(寶町) 院長 金鳳烈 金外科醫院

平壤府新陽里 院長 趙永植 新陽醫院

平壤府西門通 院長 南基夏 南一醫院

平壤府巣仁通 內科 小兒科 院長 韓東煥 崇仁醫院

平壤府上水口里(寶仁通) 內科 小兒科 院長 康榮基 厚生醫院

平壤府竹典里二〇 李弼相 竹屛局

平壤府箕町九四(元中城) 韓氏萬藥 飯氏驗神丸 中城韓藥局 韓二煜

天寶水本舖 平壤府鉢岩里 電話四〇六七番 振替平壤二四四番 永生堂製藥社 社長 崔永源

平壤府箕町 美奈登商會 金定鎬

平壤府上需里三一八番 崇興商會 金崇業 電話二八一六番

平壤府水玉里五六 福昌商會本店 李福寧 電話二四八六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第一金物商會 韓錫鎬 電話一七一七番

平壤府西門通 東一商店 李東萬 電話四一三〇番

平壤府下水口里一四九 平壤天然氷組合 電話二六二一番

平壤府箕林里一二 東洋電氣商會 電話三六四六番

平壤府箕林里二〇〇番地 箕山材木商會 裵致燁 電話二六七二番

平壤府鉢岩里 院長 康德烈 普和醫院

平壤府西門通 紙物貿易 大福紙物商會 電話四三八一番

平壤莫大小同業組合

平壤 崇仁商業學校

平壤基督教青年會

平壤盲啞學院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平安南道支部

平壤ゴム同業組合
平安商工株式會社
大同ゴム株式會社
同友物產社ゴム部
世大ゴム工業社
世昌ゴム工業社
第一ゴム工業株式會社
正昌ゴム工業所
內德ゴム工業所
平元ゴム工業社
金剛ゴム工業社
農民ゴム工業社
株式會社 鮮滿ゴム工業社
サンエスゴム工業所

平壤府箕林里 月星洋襪工廠 電話三〇五五番

平壤府竹典里 月星物產商會 電話二一三三番

平壤府

平壤 關西體育會

平壤 光成中學校

平安南道知事 石田千太郎

平安南道 高等官食堂

財團法人 白善行紀念館 平壤府敍貢里一九 電話三七二〇番

大同郡農會

平壤辯護士會

平壤府里門里五九 平南陸運株式會社

平南無盡株式會社

平壤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平壤府薛岩里一二 平安農專株式會社 電話二一〇六番

平壤府將別里二〇番地 樂浪堂印刷所 金敬河 電話四三七一番

平壤 大同工業專門學校

平壤府水玉里 正義高等女學校 電話三三四五番 振替口座平壤五九五番

平壤
光成尋常小學校
崇德尋常小學校
聖母尋常小學校
崇賢尋常小學校
正進尋常小學校

平壤 李基燦

平壤 李春燮

平壤 韓根祖

平壤 崔鼎默

平壤 朴泰成

平壤 朴應茂

平壤 金建亨

平壤 金健永

平壤 孫致民

平壤 朴寅煌

平壤 千年龜

平壤府船橋里四二ノ一 崔億泰 電話二九五七番

平壤自動車株式會社

平壤府南門町 電話四九二七番 江南齒科醫院
口腔外科 補綴科 院長 李鎬坤
治療科 矯正科 醫師 金子榮
×光線科 技工科 擔任 金東仁

平壤府西門通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電話三八二九番 振替京城一七〇五二番

平壤水曜會

平壤鍾路 藥種貿易 製藥診療 法橋局 金爽應 電話長二九六五番 三九六五 振替平壤一六六九番

平壤南門通二丁目 五六商會本店 電話 二〇五六番 四三一九番 四六一九番 二二〇一番 支店 新京・大阪

平壤府鹽店里 海陸物產 委托貿易 西北商會 李得春 電話特三一七三番

道立 平壤醫院

平壤府西門通 材木 金物 家典 三成商工社 金成

平壤府大寮里一六三番地 平壤聯合基督病院

平壤府西門通 尹內科醫院 醫學博士 尹基寧 電話四一四二番

平壤府巡營里 眼科 耳鼻科 咽喉科 南山醫院 院長 金致九 電話四七一七番

平壤府大寮里一五二番地 德海醫院 石履元 電話二九二〇番

平壤鍾路 內科 小兒科 濟衆醫院 金秉瑞 電話三九二二番

平壤府將別里 外科 性病科 杏林堂醫院 院長 金麟瑞 電話三九六七番

平壤鍾路（大同門停留所前） 外科 泌尿器科 金龍燦醫院

平壤府新倉里 同仁醫院 張元瓚 電話三一八七番

平壤府新陽里一五九 信昌醫院 金聖恩 電話三八八八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慈義藥房本舖 藥劑師 主 趙鍾弘 趙均健 電話三四九二番

平壤府新陽里 三山痔疾藥本舖 三山不老丸本舖 三山藥業株式會社 電話四〇六九番 振京一九九〇二番

平壤鍾路 本方瓊玉丸 內外保命痔疾丸 發賣本舖 保命堂藥業社

平壤鍾路 蓄音器 レコード卸商 蓄針 常信樂器店 電話三七三二番

平壤府巡營里一〇二番地 仁德洋服店 電話四九五二番

ニュースタヂオ 原色寫眞館 平壤府新倉里里バス大通り

平壤府大寮里 眞美屋寫眞機店 黃致燁 電話四一三二番 振替平壤一八九九番

平壤府東大院里 製造發賣元 平安製革社 電話三三三番 振京一九四三四番

平壤府鷄里 平安南道特產品販賣 廣信組合 電話二一五一番

國產最高級 アジアーミシン 製造發賣元 朝鮮ミシン商會 營業所 平壤府新倉里一三二 工場 平壤府薛岩里七二 電話二四九八番 振替平壤一〇〇二番

平壤府倉田里三七 バンコクミシン シンターミシン 製造發賣元 萬國ミシン製作所 電話四五四七番 振替平壤一七八三番

平壤府竹典里十八番地 綿布 絹綿物 毛織物 御商 崔致吉商店 電話三〇一五番 電略（サイ）又ハ（〇サイ）

平壤府西門通リ 金仁號自轉車 ケーアイ號自轉車 金仁タイヤー 發賣元 自轉車及附屬品卸商 金仁商會本店 電話三七一三番 振替平壤五一八番

平壤府慶上里一一四 日華物產社 電話二一四一番

株式會社 和信平壤支店 電話四一〇一番 振替平壤七七七番

ミシン及附屬品卸賣商 愛國商會 愛國商會營業所

平壤興行組合
借樂館
第一館
キネマ
金千代座
大劇

東洋ミシン商工社

平壤府南門通 共信皮革店 電話二〇七二番

平壤府新陽里 紀新社 電話三三三三番

平壤府敍貢里百五十番地 大平壤ホテル 主 李起燮 電話四六二五番

平壤 株式會社 箕城券番

平壤府鏡齊里 朝鮮料理 明月館

平壤府鏡齊里 朝鮮料理 東一館

平壤府水玉里 カフエー 赤玉會館 電話四九五三番

平壤壽町 カフエーフロリダ會館 支店 沙里院・白馬會館

平壤府八千代町 和洋一品御料理 公會堂食堂 實に氣持のよい靜かな食堂 電話四二六七番

平壤府箕林里 株式會社 鮮滿ゴム工業社 電話二八八一番

平壤府船橋里 平南船運勞働組合 組合長 金貞浩 電話二八一七番

平壤府箕林里 農民ゴム工業社 金恒福

平壤府鷄里一〇六三 共洋襪工場 孫昌潤

平壤府竹典里五六 共昌商會 全佐庸

平壤府竹典里 綢緞布木貿易商 信明商會 電話二〇三二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近藤平壤支店 鄭友永